

제417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8일(목)

장 소 국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
 - 국방부 소관
 - 병무청 소관
 - 방위사업청 소관
- 소위원회 구성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1.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	2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6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6
o 소위원장(김병주·강대식·추미애) 인사	107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성일종 위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국방위원회의 오래된 격언처럼 국방위원회는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제22대 전반기 국회가 어렵게 출발한 만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전통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야 간 간사 합의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위원장이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북한의 도발과 위협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북한과 러시아 군사동맹 복원으로 대한민국 안보는 더욱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각국의 군비 증강, 미국과 중국의 대립 격화로 인한 긴장 관계 증폭 등 외부적으로 수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이 진중하고 결연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 협력의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방부 등 소관기관의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위원회 소속 직원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류승우 전문위원입니다.

국방부에서 국방위원회로 파견 나와 있는 정재열 국회협력단장입니다.

신세민 행정실장입니다.

다음은 입법조사관과 주무관 등 직원들이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서 인사하세요.

위원회를 필요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십시오.

(인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국방위 활동 지원을 위해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10시06분)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병무청 및 방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방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국방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님께는 제22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휴전선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반도와 인태 지역은 물론 유럽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엔사, NATO 회원국 등 가치 공유국과의 글로벌 안보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 지휘부와 국방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 김명수 해군대장입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입니다.

해군참모총장 양용모 대장입니다.

공군참모총장 이영수 대장입니다.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중장입니다.

다음은 국방부 간부입니다.

이영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김수삼 인사복지실장입니다.

김경욱 기획관리관입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입니다.

국방혁신기획관 주광섭 육군준장입니다.

정책기획관 윤봉희 육군소장입니다.

이승범 국제정책관입니다.

방위정책관 곽태신 육군준장입니다.

오영대 인사기획관입니다.

이갑수 군수관리관입니다.

원종대 전력정책국장입니다.

유균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합참 간부입니다.

정보본부장 원천희 육군중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방정책실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일종 신원식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입니다.

국방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결언 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국군의 임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합니다.

3쪽입니다.

국방 조직 및 정원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4실 20국·관 87과·팀으로 구성되어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은 국방홍보원 등 2개 기관이 있으며, 외청으로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공기관으로 한국국방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국직부대 및 기관으로는 23년 9월 1일부로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하여 총 27개입니다.

인원은 24년 정원을 기준으로 군인 50만 명을 포함하여 총 55만 명입니다.

4쪽입니다.

최근 안보정세 평가입니다.

먼저 주변국 정세로, 미국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동맹국·우방국과 연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부 결속 및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가운데 핵심이익 수호를 위해 군사력 증강은 물론 친중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 핵·미사일 위협 증가 등 역내 안보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방위력 증강 및 동맹국·우방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전쟁지속 능력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등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김정은이 압록강 홍수 피해현장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연출하며 애민지도자상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러·북 신조약 체결을 통해 전방위 밀착을 과시하며 중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주적으로 간주하고 쓰레기풍선 살포와 지뢰 및 방벽 설치 등 지속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동향으로 접적지역에서는 우리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

소음 송출을 지속하고 있으며 DMZ 일대에서는 지뢰와 방벽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개발 관련 상당 수준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소형화 기술 또한 진척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는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미사일 시험발사와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목표로 5가지 국방 운영중점을 중심으로 2024년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 국방정책 추진 설명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 국방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 국방현안입니다.

북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대응으로부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제도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우리 군의 대응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3600여 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정상적·적극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6월 4일부로 9·19 군사합의 전부를 효력정지했습니다.

또한 6월 9일부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하고, 7월 21일부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시행 중입니다.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의도는 대북풍선 부양에 의한 남한 사조 유입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고,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여 남남갈등을 유도하며, 아(我) 민간단체 대북풍선 부양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강경대응을 유도하여 성동격서식 다양한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연합방위태세하에 감시를 강화하면서 북 도발을 억제하고 북 도발 시 강력히 응징하겠습니다.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긴밀한 상황 공유와 안전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북확성기는 매일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고려하여 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모든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공동지침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담은 공동지침을 완성했습니다.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재래식 전력 기반에서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해 동맹의 태세·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핵 위기 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한미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통신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미 핵·재래식 통합, 즉 CNI 방안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통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를 확대하여 가시성을 높이는 한편 전략 전개와 연계한 CNI 연습 및 훈련 방안을 발전시켜 미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억제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구축하여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제도화 추진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국방 당국 간 고위급회의를 3국이 순환 개최하며, 23년 12월부터 가동 중인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년간의 훈련계획에 따라 한미일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다양한 영역의 한미일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을 최초로 시행하고 정례화에 합의했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함으로써 3국 안보협력 제도화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고도화하는 북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결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국방협력태세를 확대하며 미래의 도전적인 국방환경에 대비하여 국방혁신 4.0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장병들의 국가관·대국민·군인정신을 강화하여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육성하는 가운데 장병 사기·복지를 증진하고 국방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선진 국방 문화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으로 김종철 병무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김종철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회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2대 전반기 국방위원회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병무청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와 군 소요 적정충원, 신속한 병력동원태세 확

립과 보충역 활용도 제고 등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가안보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영 판정검사자 마약류 검사,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기피자 직접 수사, 진로와 연계한 청년맞춤 병역 설계 확대 등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병무청은 국민들이 병역을 권리와 명예로 인식하고 자기 발전의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병무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석 차장입니다.

김용무 기획조정관입니다.

임재하 병역자원국장입니다.

문경식 입영동원국장입니다.

정홍식 사회복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관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무 기획조정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기획조정관 김용무 병무청 기획조정관입니다.

병무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업무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3쪽, 임무 및 기능입니다.

병무청 임무는 정·소집 및 전시 병력동원과 병역의무자 관리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이며, 기능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조직은 본청에 1관 3국이 있고, 지방병무청 11개를 포함 18개의 소속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6월 말 현재 1949명입니다.

5쪽, 2024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4119억 원으로 6월 말 현재 총액 대비 45.1%를 집행하였습니다.

6쪽, 병역의무자 관리현황입니다.

관리자원은 정·소집 대상, 보충역 복무자, 병력동원 대상 등을 포함 총 692만여 명입니다.

7쪽, 주요 업무입니다.

9쪽, 병역판정검사입니다.

19세가 되는 남성의 병역이행 가능 여부를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해 판정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MRI, 질량분석기 등 최신 의료장비를 활용한 정밀검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4단계 정밀 심리검사 체계 구축 등 청년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서 제공 등 병역의무자의 건강과 편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쪽, 현역병 충원입니다.

군에서 필요로 하는 현역병 소요를 징집과 모집을 통해 충원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각 군과의 협의를 통해 계획인원을 조정하는 등 현역병 충원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군의 수용 범위를 고려하여 원하는 입대 시기를 최대 보장하는 등 병역이행자 중심의 입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입영정보 제공 및 의무자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쪽, 사회복무요원 소집·관리입니다.

공익 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 국민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중점 배정과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무기관 배치로 인력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4대 중독·자산 관리 교육과목 운영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식 교육과 사건·사고 취약 분야 중점 관리 등 현장 중심의 복무관리로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2쪽, 산업지원인력 편입·관리입니다.

산업지원인력을 활용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체 위주로 인원을 배정하고 우수업체 선정과 권리보호상담관 운영 등 산업지원인력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복무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중점 실태조사 등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3쪽, 병력동원훈련 소집입니다.

유사시를 대비 동원자원을 적정 관리하고 동원훈련을 통해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내용으로 연차이내자 동원 지정 등 동원자원 정예화로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병력 수송 시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등 안전하고 내실 있는 동원훈련 소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임무 수행능력 함양을 위하여 지자체 병무담당에 대한 전시업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 대체역 심사·소집입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이행의 조화를 위해 대체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내용으로는 법조인 등 전문 심사위원 구성과 법정 심사기간 준수 등 공정·신속한 편입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의무 부과 및 복무관리와 함께 권리보호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주요 현안입니다.

17쪽,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병역법에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7월 10일 이후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입영환경검사 시 대마, 필로폰 등 6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입영자 관리에 참고가 되도록 국방부와 공유하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자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 판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기획조정관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또 야당의 김병주 간사님이나 김민석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일정이 좀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약해서 중요한 것만 빨리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무청기획조정관 김용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맷음말 드리겠습니다.

21쪽, 맷음말입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효율적 관리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인력 충원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함은 물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존경하옵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위원님들을 모시고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양질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 군수품 조달 그리고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약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방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방산업계를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속하고 압도적인 전력화를 구현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AI 유·무인 복합체계 등 핵심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고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획득 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2027년 국방기술력 세계 7위 달성을 목표로 미래의 전장을 선도할 전략기술 R&D에 집중 투자하고 민간의 혁신적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셋째, 5대 국방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및 전략적 수출 지원 등 방위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방산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2027년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고 그간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방위사업청 그리고 출연기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기 기반전력사업본부장입니다.

한경호 미래전력사업본부장입니다.

홍미루 기획조정관입니다.

정기영 국제협력관입니다.

박정은 방위사업정책국장입니다.

김일동 방위산업진흥국장입니다.

신현승 함정사업부장입니다.

김태곤 첨단기술사업단장입니다.

노지만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입니다.

이건완 ADD 소장입니다.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입니다.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홍미루 기획조정관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미루**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주요 입법 추진계획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임무는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군수품의 적기 조달,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조직과 정원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쪽입니다.

24년 방위사업청 집행예산은 총 21조 4426억 원으로 방위력개선비는 17조 6532억 원이며 국방부 위탁집행예산은 3조 7894억 원입니다.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별 예산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방산, 안보의 기반, 신성장 동력이라는 비전 아래 핵심전력 획기적 증강, 27년 국방기술력 세계 7위 달성 및 4대 방산강국 도약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 추진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방위력개

선사업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현안으로 KF-21 국제공동개발사업 인니 분담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KF-21 국제공동개발사업은 15년부터 28년까지 약 8조 8100억 원을 투자하여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를 대체할 전투기를 국제공동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제기 후속시험평가를 진행 중이며 올해 6월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존 분담금 1.6조 원 중 약 3844억 원을 납부한 상황으로 인니 측은 사업 종료 시점인 26년까지 납부 가능한 최대 금액을 6000억 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와는 수출 확대 및 국방재원 부담 경감 등 국익 극대화를 위해 공동개발 유지가 필요하나 KF-21 사업의 적기 개발 완료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도 필요한 상황으로 예산 부족액은 한국 정부 및 업체가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니 분담금 비율 조정을 위해 8월 중 방추위를 통한 정부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향후 인니 측 제안 분담금 확보 노력 및 인니형 전투기 양산 협의 지속 등 국익에 기반한 협상 및 사업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한국형구축함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형구축함 사업은 20년부터 36년까지 약 6조 1600억 원을 투자하여 전투능력이 우수한 한국형구축함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를 마치고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관련하여 기본설계 업체와 경쟁업체 간 과열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2개의 조선소가 방산업체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법규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입법 추진계획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시험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국방이 참여하는 대부분 우주개발사업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과 방산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기술보호 전담기관 지정,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고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국방부 등 소관 기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할 순서입니다.

○김병주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한번……

○위원장 성일종 이것을 좀 하고 하면 안 될까요?

○김병주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오늘 일단 국방위가 처음 업무보고를 갖고 현안질의를 하게 돼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매끄럽게 진행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 진행이 다소 불편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임종득 위원 때문입니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현안질의의 핵심은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과 대통령실의 외압 진실 규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채 해병 순직과 관련된 관계자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도 나와 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임종득 위원님께서는 이 당시 안보실 2차장을 했고 채 해병 사건에 관련된 핵심 인물 중의 한 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8월 2일 날 해병대에서 수사한 것들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던 날입니다. 그날 안보실 2차장하고 한번 통화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통화기록을 보니까 추가 통화했던 기록도 나왔습니다. 명백한 허위이고 위증입니다. 이런 사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 오늘 국방위원회에서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사건과 관련된 인원이, 여기 임종득 위원이 참가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국회법 32조에도 보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피 신청을 했는지 위원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회피하고 이 자리를 이석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위에는 지난번에도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 21대에 김 모 위원님께서 아들의 병역 중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여기서 질의가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중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때 김 위원께서는 본인이 회피 신청을 하고 자리를 이석함으로써 원활한 국방위 운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국회법도 그러합니다. 만약 당사자인 임종득 위원이 여기 계속 앉아 있다면 정부 관계자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할 겁니다.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대통령실을 방탄하기 위해 앉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본인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임종득 위원께서는 국회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회피 신청을 해 주고 이석해 주면 좋겠고요. 국방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안 될 경우는 현명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강대식 간사님도 의사진행발언, 두 분만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더 주고받으면 본질적인 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추미애 위원** 중인……

○**위원장 성일종** 추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강대식 위원님까지만 의사진행발언하고 회의 들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추미애 위원** 아니, 저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분들 때문에……

○**위원장 성일종** 예?

○**추미애 위원** 이 자리에 꼭 나오셔야 될 두 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강대식 위원** 먼저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추미애 위원**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강대식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추 위원님까지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추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성일종** 양보하시겠습니까?

○**강대식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추미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이 현안에서 가장 국민들께서 관심을 주고 계시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채 해병 순직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 김포 소재에 있습니다. 당시 부사령관이었습니다. 이분과 임기훈 국방대 총장, 현재 국방대 총장이고요 논산에 있지요. 당시에는 국방비서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두 분이 반드시 나오셔야지만 신속히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정종범 사단장은 이른바 정종범 수첩의 당사자입니다. 대통령 격노설에 따른 23년 7월 31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재 긴급대책회의의 해병대의 유일한 참석자였습니다. 장관 지시사항을 해병대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꼭 나오셔야 하고요.

또한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핫라인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비공식 외교·안보 현안보고 시에 채 해병 수사 결과를 대통령께 직접 보고했던 당사자이지요. 그래서 이분이 꼭 나오셔야지만 진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두 분이 나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대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조금 전에 김병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국방위원회가 이렇게 좀 늦게라도 열려서 현안이라든지 또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데, 그 사실들은 여러 차례 검증도 된 상황이고 동료 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야당 위원님 중에서도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거나 또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위원님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국방위 회의이니 만큼 좀 이해관계나 감정이나 정치적 편향들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국방위원회가 본 사실에 충실히 업무보고가 오늘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일종**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각 위원님들과 당의 입장들을 전달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우선 국방부 등 소관기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할 순서입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들이 조기에 임무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오전에만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이석을 그동안 허용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양당의 간사님들께서 오전 질의가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을 좀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원활한 법안 및 예산심사를 위해서 지난번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해서도 회의 종료 전까지 간사님들이 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해병대사령관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나오는 시간은 좀 감해 주시고요.

해병대사령관님, 지난 8월 25일 날 전체회의 때 제가 질의를 했어요. 사령관님과 안보실로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몇 번 통화했느냐라고 했을 때 김계환 사령관님께서는 안보실과 한 번 통화했다, 안보실 2차장이 이첩하고 난 이후에 휴가 중이었는데 들어오면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어요. 사실이지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건 속기록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화 기록이 나중에 확인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안보실 2차장과도 통화를 했고 또 국방비서관하고도 통화했어요. 통화 기록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추가로?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예, 통화 기록은 나중에 확인해서 알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위증이고 거짓이네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그때 제가 기억했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통화 기록은 나중에 그 기록을 확인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위증입니다. 명백한 그거고요.

사실 채 해병의 아주 안타까운 죽음, 부하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거짓하고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유가족에게도 예의가 아니고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우리 해병대원들이 거짓말하는 사령관, 어떻게 영이 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제가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제가 그때 기억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인지 세 번인지 통화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휴가를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통화했던 것만 기억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세부적인 통화 기록은 제가 그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나는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쨌거나 위증이지요. 그래서 지금 해병대사령관은 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양심선언을 하고 채 해병의 순직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외압에 대해서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사령관답게, 장군답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다 답변을 하고 있고……

○**김병주 위원** 예, 들어가세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분명하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하여튼 양심의 소리에 맞게, 좀 명명백백히 장군답게 진실을 밝히세요.

○**한기호 위원** 소리 지르지 마세요. 왜 소리 지르고 그래요.

○**김병주 위원**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정보사에서 군무원에 의해서 블랙요원 기밀 유출된 거 조사하고 있

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조사했고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이 군무원이 기밀을 유출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과거에도 여러 건 기밀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알기로……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나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때 다 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받기도 하고 어떤 징계를 받기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제보받기로는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 여단장이 덮었다 그래요,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정보가 유출이 돼서 이렇게 난리인데 처음 듣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조사하고 수사를 해 보세요. 아마 그때 전 여단장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를 했으면 이렇게 대형 정보유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호미로 막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못 한 거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보사령관하고 여단장하고 맞고소 과정에서 핵심적인 의혹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에 다 신원식 장관님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모르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첫 번째는 진급 비리 의혹이고, 두 번째는 영외사무실을 민간연구소에 사용하게 한 거고, 세 번째는 하극상 조치의 미온적인 조치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급 비리 의혹은 820특기는 여단장이 한 명이잖아요, 장군이. 820은 인가상 편성상 한 명인 거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그렇지만 운용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작년에 인원이 한 명이 임기가 1년 남았는데도 작년에 진급을 시켰잖아요, 현 여단장을. 진급시켰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김병주 위원** 사실은 이 과정에서 신원식 장관과 동기생인 정보본부장이었던 조 모 장군이 신원식 장관에게 청탁을 해서 진급을 시켰다는 의혹이에요, 물론 부인하겠지만. 그래서 북한에 대한 공작을 하라고 하는데 진급 공작을 한 것이 아니냐, 그 진급 공작의 대상이 장관이었다라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답변할 거 있으면 나중에 한번 물아서 해 주세요.

두 번째는 영외 사무실, 그러니까 안가이지요. 안가를 민간 연구소에 쓰도록 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김병주 위원** 거기에 민간 연구소 관여하신 사람이 신 장관과 동기생인 조 모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때 진급을 시켜 주는 청탁을 한 대가로 이 여단장이 그 안가를 무료로 쓰게 해 줬다는 의혹이에요, 실제.

안가 위치 어딘지 압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안가 위치를……

○김병주 위원 잘 모르시잖아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장관이 이런 걸 알 수가 없지요.

○김병주 위원 그리고 안가는 사실은 극도의 비밀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민간 연구소에 준 거는 큰 문제예요, 그리고 무료로 준 거는. 그래서 정보사령관이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해서 시정하는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하극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어서. 하극상이 일어났는데, 정보본부장께 보고를 했는데……

정보본부장 이리 나와 보세요. 잠깐 시간 멈추고.

정보본부장은 하극상에 대해서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지요?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예, 받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이후에?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일단 문제의 심각성을……

○김병주 위원 조치를 했어요, 안 했어요?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조치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일단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바로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제보받기로는……

딱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간사님 1분 더 드리세요.

○김병주 위원 그래서 정보본부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정보본부장이 묵살을 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보사령관은 장관께 재차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았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그때 보고받고……

○김병주 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게 아니고 정보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김병주 위원 정보사령관으로부터는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조사본부로 정식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정보본부장이 저한테 건의를 해서 바로 승인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고 제대로 행동이 안 돼서 외부에서, 예비역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언론에 노출시키고 야당 위원들도 알고 있으니까 언론에 하겠다 하니까 그제서야 조사를 하는 하극상 조치를 제대로 조치를 안 한 이런 의혹을 장관님이 받고 있어요, 세 가지 의혹을. 이런 의혹 받는 것 자체가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나요? 그리고 정보가 새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다 끝나셨습니까?

○김병주 위원 예.

○국방부장관 신원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랙요원의 기밀 누출과 기타 정보사의 고위 장성끼리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김병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진급 청탁이 있었다는 것도 저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고 단지 제보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영외 사무실 운운하는 것은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저도 알았던 것이고 영외 사무실을…… 아니, 900여단장이 예비역한테 영외 사무실을 줄 테니까 장관님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몇 단계 건너뛰어서 승인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보 내용도 상식선상에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극상은, 미온적이라는 것은 전혀 이것도 사실이 다릅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정보본부장이 저한테 이런이런 사건이 있어서 900여단장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 항명과 그리고 상관모욕의 혐의가 의심된다라고 해서 바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라 해서 제가 알기로 바로 그 다음 날 조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제가 그 보고를 받자마자 승인을 하고 바로 수사를 하라고 승인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하고.

이 사실이 정말 항명이고 상관모욕인지 또 해당 또는 여단장이 맞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는 우리 조사본부에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그러면 보고받은 날짜하고, 정보본부장이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날짜, 정보본부장님이 장관님께 보고한 날짜 그리고 장관님이 조사시키라는 날짜 이 자료는 제공해 줄 수 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김병주 위원** 그래야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참고로 보고하자마자 승인을 해서 바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 날짜는 정보본부장……

쉬는 시간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김병주 위원님이 4성 장군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정보사에 대한 유사 사례, 전에 이런 사례 있던 것도 지적을 하셨고 굉장히 귀담아들을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챙겨서 일하시는 데 반영을 좀 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조국 대표님께서 방금 전에 다른 일정 때문에 나가셨거든요.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를 이끄시면서 굉장히 바쁘신 분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혹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두 분에 대한 질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야를 막론하고 좀 조정을 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나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대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랙요원 명단 유출과 관련해서 방첩사와 정보사, 유관기관으로부터 6월 초에 보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장관께서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무슨 내용을 통보받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제가 그 내용을 수사 관계라서 확인해 주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바로바로 실시간 제가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국방부가 처음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출된 인원에 대한 즉각적인 신변 안전 조치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작전의, 작전 또는 정보에 관련돼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 그다음에 수사를 즉각 시행할 그런 조치, 크게 보면 세 가지를 했는데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기밀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뒷부분도 제가 내용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전부 다 또 그런 사항인데, 내가 오늘 질의서를 잘못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답변 곤란하신 부분은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해서 드러난 문제라든지 또 이게 크게 관여가 안 되는 그런 문제다 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사령관은 해킹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근거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강대식 위원** 그 부분도 좀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그런데 하여튼 수사과정에서 지금 거의 다 특정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강대식 위원** 2018년도에 보면 정보사령부 공작팀장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강대식 위원** 이때 보면 5년 동안 조직 내에서 많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준비를 해 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사건도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이게 사전에 준비된 사건이라고 혹시 생각하신 적은 없어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답변이 좀.....

정보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첩보 수집이라든지 블랙요원 관리라든지 이것 주 업무로 담당한 공작관이라는데, 맞습니까? 이번 군무원 A 씨 말입니다.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정보사령부 내에서 개인 노트북을 반입한다든지 아니면 업무용 컴퓨터에 사제 USB를 어떻게,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블랙요원이 메모를 한다든지 프린트를 한다든지 기억력에 의존해서 개인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정보를 저장했다고 추측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현재 수사 중인 관계로 인해서 제가 그 부분을 답변드리는 데 제한은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강대식 위원** 가능성은 있다. 이런 군사기밀이 북한에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언론에서는 지금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이 중국 동포에게 전달되어 북한으로 전달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 조력자가 있다고 의심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본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현재 법과 규정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에 따라서 밝혀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오늘 오전에 지금 이것 검찰에 송치를 했잖아요.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렇게 했는데 송치를 했다라면 북한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확인 이런 것은, 아직까지 했던 이 상황 자체도 여기서는 지금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렇지요?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예,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통보받은 게 없어서 내용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대식 위원** 장관님께 질의할게요.

공작관은 주로 파견된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강대식 위원** 그렇다 하면 현지화가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동남아에 파견된 공작관들이나 이분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대한 대체 투입은 불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정상화됐고.

○**강대식 위원** 정상화됐어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그렇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는 좀 강하게 할 생각입니다.

○**강대식 위원** 보통 이게 블랙요원을 다시 양성하는 데는 약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전혀 경험이 없는 요원에서 양성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됩니다마는 지금 상당수의 기존 교육을 받은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무 조정과 분장을 통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지난 정부에서 보통 보면 국정원법을 개정해 가지고 대공수사 능력이라든지 또 인원 감축이라든지 예산 감축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데에서도 좀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방첩 기능의 어떤 약화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약화된 것은 사실은 우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보 수집은 또 다른 분야기 때문에 정보 수집과 연관시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대식 위원** 그래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제 인력도 두 배로 확충을 하고 예산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국가안보 사태를 위태롭게 하는 흑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관께서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방첩 기능 나왔으니까 여야 위원님께 제가 간곡히 청을 하는데 우리가 방첩 기능 이런 분야가 현실 정치에 좀 개입됐던 과거의 어떤 어두운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가 되고 지금은 그럴 가능성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군사 정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또 방산 강국이 되다 보니까 산업기술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정말 보유해야 될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정치적인 과거의 그런 어두운 면은 사라졌으니까 방첩 기능을 좀 보강하는 측면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셔서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청을 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방첩 기능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동감을 하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모든 위원님들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의 계획을 좀 세우셔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 후속 조치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실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간혹 저 뒤에서 이 답변대까지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좀 한 두어 개 정도 준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권의 대표 주자이시고 아주 존경받으시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유재은 법무관리관 좀 앞으로 나오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유 법무관님, 앞으로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아닙니다.

○**박범계 위원** 아닙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박범계 위원** 여유가 좀 있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아니요,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 사실관계 몇 개 묻고 법리에 대해서 법무관리관답게 답을 해줬으면 좋

겠습니다.

8월 2일 채 상병,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8월 2일 날 기록 회수를 하는데 대통령실 박 모 경정이 민간 경찰의 컨트롤타워인 국수본 이 모 과장에게 전화하고 이 모 과장은 경북청, 경북경찰청의 노 모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 기록상. 그 이후에 유재은 관리관이 경북청 노 모 수사부장에게 전화했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노 모 수사부장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전화했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기록 회수와 관련된 건이었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리고 기록 회수가 됐습니다, 저녁에.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박범계 위원 유재은 관리관님, 그 당시 국방부장관 직속의 검찰단의 수사관들이 가지고 경북경찰청에서 기록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가져왔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제가 지금 명확히 방법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국방부 검찰단은 임의제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인수인계증을 작성하고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서……

○박범계 위원 인수인계증 작성이 법에 있는 내용입니까? 법에 있는 형식이에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

○박범계 위원 어떠한 자료나 물건을 가지고 올 때 그것을 강제수사의 방식으로는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가져오거나 아니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임의제출로 가져오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지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증이라는 방식으로 한 것은 임의제출이에요, 아니면 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제가 지금 명확히 법조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민간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임의제출이에요, 강제수사로서 압수수색이에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임의제출입니다.

○박범계 위원 임의제출이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박범계 위원 그렇게 해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박범계 위원 그런데 인수인계증을 작성하는 게 맞아요? 임의제출인 경우에는 임의제출동의서를 받고 임의제출에 따른 임의제출 압수목록을 피제출자에게 교부하고 그리고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조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맞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박범계 위원 그런 것 국방부에서 했습니까? 검찰단에서 했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검찰단에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하지 않았어요. 이게 불법의 첫째입니다.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에 공수처가 이러한 절차를 위반해서 기록회수를 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내용 아시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아니요, 제가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왜 모릅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못 봤습니다.

○박범계 위원 아셔야지, 그래야지 수사에 대비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제가 김동혁 단장의 수사에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 아니지요. 본인 스스로 항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검찰단이 압수……

○박범계 위원 자, 어찌 됐든……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러니까 검찰단이 문서를 가지고 온 것은 검찰단이 자기네가 적법하게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아까는 그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제가 적법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두 번째 불법의 문제, 그 당시에 군검찰 수사관이 가 가지고 이 수사기록을 넘겨 달라고 하면서 임의제출 방식이든 인수인계 방식이든 가져오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첩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항명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연동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박범계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기록을 가져와 가지고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의 기록 편취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뒤에 국방부장관이 소집을 해 가지고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국방부장관 직속의 사법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에 이 기록을 넘깁니다. 이것의 근거는 뭡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국방부조사본부에 그 기록을 넘기지 않았고요. 국방부조사본부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가서 해병대 수사단이 갖고 있는 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범계 위원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을……

자, 아까 말씀드렸지요. 경북경찰청의 사건기록을 국방부검찰단이 가져와 가지고……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거기 경찰청이 갖고 있던 기록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첩의 효과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법리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박범계 위원 복사본입니까, 원본입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는데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왜 확인이 안 됐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사단에서 이첩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단에 있는 사건을 조사본부로 이첩해 온 것입니다.

○**박범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살리셔 가지고 오후 질의 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군검사가 원래 압수물을 임의제출이든 또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의하면 몰수를 하든지—우리 법조인은 다 아는 얘기예요—가환부를 하든지 환부를 하든지 아니면 타 검찰로 이송을 하든지—같은 기관이니까, 군검찰이니까—아니면 공수처에 넘기든지 이 중의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의문하는 것은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 있는 기록을 국방부조사본부가 가지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군검사가 가져온, 회수한 그 기록을 국방부조사본부에 넘긴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국방부조사본부가 왜 처음에 장관이, 신범철 차관이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이것을 재검토하라’, 국방부조사본부가 거부했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조사본부……

○**박범계 위원** 처음에 거부했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 시점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처음에는 거부했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 왜 진실되게 얘기를 안 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러니까 장관님이……

○**박범계 위원** 우리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회의에 가서 나중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로 이것은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냈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시점을 명확히 말씀해……

○**박범계 위원** 그 전까지, 그 전까지 국방부조사본부가 같은 군경찰이 했던 수사 내용을 다시 재검토하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차원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 거부라는 게……

○**박범계 위원** 처음에는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거부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박범계 위원** 자, 그러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박범계 위원** 맞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두 차례의 회의를 했습니다. 맞지요?

○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두 차례 회의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 **박범계 위원** 소극적으로 하니까 장관이 두 차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맞지요?

○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 회의…… 그러니까 두 차례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범계 위원** 회의는 했지요?

○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회의는 했습니다.

○ **박범계 위원** 1분만 정리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성일종**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 **박범계 위원** 회의는 했지요?

○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 **박범계 위원** 거기서 여전히, 조사본부는 첫 번째 회의 때 여전히 이것 해병대 수사단이 나름 수사한 것을 같은 군사경찰 국방부조사본부가 가지고 와서 이것을 재검토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라는 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소극적인 협조, 소극적 태도를 유지했었지요?

○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 **박범계 위원** 이것을 뒤집은 힘이 누구입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 아닙니까?

○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맞습니다.

○ **박범계 위원** 왜 그랬습니까?

○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1차 수사기관이 하던 것을 1차 수사기관이 받아서 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 법무관리관실의 법리적 판단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거면 장관님 소관의 국방부조사본부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범계 위원** 들어가십시오.

김계환 사령관 잠깐 나오십시오.

○ **위원장 성일종** 17초 남으셨는데 박범계 위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박범계 위원** 묻고 답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여유 있게 쓰십시오.

○ **박범계 위원**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 **위원장 성일종** 질의하시지요.

○ **박범계 위원** 사령관님.

○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예.

○ **박범계 위원** 국방부장관 명령에 의해서 직무수행이 정지됐던, 직무배제 명령을 받았던 임성근 사단장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정상 출근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김계환 사령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지요?

○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틀립니다.

○ **박범계 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장관님이 직무정지시켰던 사항들은 없고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파견 조치를 했던 부분이고, 제가 전임 장관님한테 지시받았던 것은 정상업무 복귀하라는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박범계 위원 사의를…… 직무배제 명령이 아니고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사의가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직무수행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무복귀 명령을 왜 합니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제가 7월 30일……

○박범계 위원 사령관! 직무복귀 명령 왜 합니까, 아직 직무에서 배제가 안 된 사람을? 사의를 표시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을 직무복귀 명령을 왜 합니까, 장관이.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제가 7월 30일 날 장관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사의 표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전 1사단장에 대해서 이렇게 직무배제를 시키겠다고 구두로 승인을 받아서 제가 파견 조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범계 위원 그겁니다, 그것.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직무배제 명령이 있었잖아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이 저한테 사의 표명을 해서 그걸 장관님께 보고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해병대 1사단에서 해병대사령부로 파견 조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범계 위원 오락가락……

○위원장 성일종 박범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지요.

○박범계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장관님,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다 드리면 답변해 주십시오.

장관님께서는 초선의원 시절에 3대 안보 대못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중의 하나가 9·19 남북 합의였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다섯 가지 분야 20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그동안에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유지된 5년 9개월 동안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됨으로써 정찰감시의 사각지역이 발생됐고 약 4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대대급·사단급 무인기가 후방교육용으로 전락됐습니다.

또한 해상완충구역 설정으로 인해서 서해5도에 배치된 해병대는 K9 자주포를 육지로 옮겨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함에 따라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매년 약 3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는 등 낭비가 초래됐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해수부는 이러한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위해서 지난 2019년 1월 30일 환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접촉을 통해서 한강 하구에 대한 해저지도를 제작해서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북측으로 넘어간 해도는 강화도 말도로부터 파주 만우리까지 약 길이 70km, 면적 285 m²에 달하는 지역에 대해서 초음파를 쏴서 해저지형을 파악해 얻은 정보로 2018년 말에

제작됐습니다. 여기는 밀물과 썰물 관측 자료와 암초 위치, 해안선, 수심과 해저지형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한강 하구는 유사시 언제든 북한이 소형 반잠수정이나 소형 침투정, 잠수장비를 장비한 인민군 특작부대를 이용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해당 지역은 1980년 이후에 여덟 차례 북한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시 북에서 서울에 이르는 최기 침투루트로서 유사시 또는 평시 적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거점 중 하나인데 그 지역에 대한 해도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서 고스란히 북측에 전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도를 북한에 전달하고 1년 5개월 만에 해당 해도는 3급 비밀로 지정됐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는 민감한 정보가 수록된 해도를 북한에게는 평문으로 제공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비밀로 지정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비밀로 다루어야 하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북측에 전달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종이지도뿐 아니라 전자지도가 USB에 담겨 함께 제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보도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9·19 합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이 이와 같이 9·19 합의 때문에 작전과 훈련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는 5년 9개월 동안 이것을 이행했는데요. 이 사이에 북한은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에서 1000번씩 위반하고,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미사일 발사하고 포사격을 하고, 아군 GP에 총격을 하고, 무인기 침투, GPS 교란, 10여 차례 쓰레기 풍선 도발 등 총 3600여 회 합의 위반을 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23일에는 모든 군사적 조치 회복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됐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 6월 4일 날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선언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선언은 파기 선언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국가 안전보장이 필요한 9·19 합의를 효력정지에 머무르지 않고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앞서 5년 9개월 동안 많은 훈련이라든지 정찰·감시가 제한됐는데 이것에 대한 현재 조치는 어떻게 복구하시는지 궁금하고, 세 번째 해도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준 것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 망국적인 3대 안보 대못 중의 하나인 그중에서도 해도를 북측에 제공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 그들을 찾아내서 책임을 묻고 유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폭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날 폭염경보가 있으면서 군 의학 관련 논문에 의하면 군부대 온열환자가 매년 한 해에 1000명이 넘습니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은 에어컨 속에서 주무시겠지만 자식 걱정에 아마 밤잠을 설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사병은 중추신경의 체온조절기능이 망가져서 체온이 40도 넘게 올라가는 매우 위험한 병인데요. 온열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의료시설 접근이 제한되는 전방부대일수록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야전부대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전방 8개 사단을 대상으로 의무부사관의 평균 보직률이 77%, 응급구조사의 경우 평균 보직률이 70%입니다.

이미 업무보고에서는 군 특성에 최적화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응급환자가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후속역량 강화 그다음에 사단급 의무대 진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군 내 온열환자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 말고 아주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온열환자들에 대한 대책, 병영 생활의 환경 그다음에 환자가 발생 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장병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폭염 날씨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질문드린 내용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9·19 측면에서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효력정지냐 폐기냐, 효과는 지금 같습니다. 그런데 폐기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이게 없는 건데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9·19 합의 이전에 나온 판문점선언이나 평양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정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나온다면 복원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효력정지가 더 적합하다고 정부에서는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내용은 송구하지만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두 번째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선영 위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러면 세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을 드릴까요? 두 번째는 제가……

○강선영 위원 세 번째부터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신원식 세 번째, 해도는 좀 심각한 사항인데 사실은 평문과 비문 분류는 해수부 소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폭염경보에 관련돼서는 단기적으로 온열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 재난 모든 부대활동에 온열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발생을 하게 되면 현장에 응급장치 그다음에 신속한 후송 이런 제반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폭염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선영 위원 장관님, 두 번째 것은 9·19 합의 때문에 못 했던 훈련과 정찰·감시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복원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말씀드려 달라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것은 다 복원이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비행금지구역과 관련돼서는 지난해 연말 그 조항은 효력 정지가 됐기 때문에 전부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 시행한 것은 이미 다 완료를 했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세세하게 장병들 폭염까지 질의해 주신 강선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조국 위원님 잠깐 나가셨을 때요 조국 대표님하고 박찬대 대표님은 당을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에 여야를 떠나서 외부의 일도 좀 보시고 당무를 좀 집중하실 게 있으셔서 먼저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이렇게 제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조국 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 계신데, 혹시 바쁘시면 먼저 하실 수 있도록……

박선원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박선원 위원**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조국 대표님, 질의 먼저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조국 대표님 하시고 또 양보해 주신 박선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위원**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국방부장관님,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미일 관계는 군사동맹 관계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전혀 아닙니다.

○**조국 위원** 당연히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조국 위원** 그러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면 한미일 사이에 군사동맹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말씀드리면……

○**조국 위원**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위원** 특히 한일 사이에 또는 한미일 사이에 군사동맹을 하려면 조약을 맺어야 되지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요.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6월 14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 7월 22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장관님께서는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 문서를 통해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3국 국방부장관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맞습니다.

○**조국 위원** 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3국의 장관들이 하면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진전된 한미일 안보협력이 후퇴하는 일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위원** 법적인 조치 없이 장관 3명의 서명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됩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3국 중에서, 법적 제한은 있기 때문에 누가 되돌리겠다고 하면 당

연히 되돌려집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어떤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국 위원 그렇다면 장관께서는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 현 국방대학교 총장을 아시지요? 오늘 불출석 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조국 위원 이분이 국방연구 2024년 글에서 '유엔사 회원국을 확대하고 유엔사를 다국적 기구화 하려는 유엔사의 국제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하고 '이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 기지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실체적 고리다'라는 글을 쓰신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이 내용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조국 위원 어떻게 모르십니까? 2024년 최근이고 이분은 안보실 국방비서관이고 현재 국방대학교 총장입니다.

지금 모니터에 나온 건 보이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 논문은.

○조국 위원 이분의 글을 합하면 한미일 군사협력을 확대해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명백히 보이는데, 적어도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의 글에 따르면 사실상 군사동맹 체제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글만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신원식 지금 임기훈 장군은.....

○조국 위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실체적 고리를 만들겠다 그러셨고 그다음에 장관께서는 요미우리·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문서를 통해서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서명을 하고 오셨지요. 맞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조국 위원 그래서 아까 추미애 위원님께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보고와 관련해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조국 위원 당연히 아실 것이고요.

이 문서에, 이 TSCF MOC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협력각서는 규정의 절차를 했고요.

○조국 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 그 문서에 담겨 있다면, 왜냐하면 그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담겨 있다면.

○국방부장관 신원식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조국 위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조국 위원 그러면 이 문서를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것은 3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미국·일본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위원** 이게 워낙 중요한 문서인 게 한미일 사이의 안보협력 관련해서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문서인데, 되돌릴 수 없는 협력각서에 서명을 하셨으면 한미일 관계에서 앞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적어도 국회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게 국가 보안에 문제가 된다면 이 회의를 전환해서 비공개라도, 극소수로 비공개라도 해서 협력각서의 내용을 보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하고 상의해야 되고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은 법적 의미가 아닌 의지의 표현이다……

○**조국 위원** 그 내용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모르지요. 국민도 모르지요. 그 안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장관님은 없다고 하셨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조국 위원님.

○**조국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국방부장관 신원식** 국회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 간의 약정을 가지고 내용을 봐서 국회 비준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합의문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조약이나 협정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국 위원** 형식은 협력각서, MOU라 하더라도 실질적 내용이 조약에 준하는 내용이고 우리나라 국방과 한미일 관계를 결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바꾼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지요.

그다음에, 공개 못 하시겠다는 건데 백 보 양보해서 이 협력각서가 조약이 아니라고 전제하더라도 기관 간 약정에는 속하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기관 간 약정입니다.

○**조국 위원**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 기관 간 약정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4조, 14조 등 그 훈령이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조국 위원** 그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훈령에 따라, 지금 말은 제가 길게 이었습니다만 이 훈령에 따라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국회 비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지금 말씀하셨던 기관 간 약정에 따라서……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십시오.

○**조국 위원**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그 절차, 훈령에 따라서……

○**조국 위원** 이 약정에 따르게 되면 유효기간이 포함되게 되어 있지요, 14조 2항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협력각서의 유효기간이 언제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 세부적인……

○**조국 위원** 유효기간도 말할 수가 없습니까? 내용 말고 유효기간도 한미일 사이에 지

켜야 될 보안입니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 것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관련자한테 유효기간 확인하겠습니다.

○조국 위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 계시지요?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마이크 드리십시오.

○조국 위원 국방부가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국제정책관실 및 법무관리실, 기타 관련 부서로부터 필요성, 법률적 문제점 검토해야 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및 적법성 검토받아야 하고 검토받은 내용을 외국 군사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관리관에게 묻겠습니다.

법무관리관실은 이번 협력각서를 검토했습니까?

장관께서는 이 문서가 기관 간 약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업무가 법무관리실 업무 맞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맞습니다.

○조국 위원 검토했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검토했습니다.

○조국 위원 그 검토 문서는 어디 있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검토 문서는 저희가 문서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조국 위원 그 검토 문서는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 내용조차도 아마 지금 한미 간에 포함되어 있는 조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조국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시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국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한 가지만 즉답을 좀 드려도.....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유효기간은 확인해 보니까 1년 단위고요. 1년 단위 하고 3국의 이견이 없으면 또 1년이 연장되고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조국 위원 제가 보충 시간에 계속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회의 진행상 제가 용어 좀 하나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저희 당 대변인이, 국회의원이 아닌 대변인께서 저희 당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 안 돼서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가 과행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만 있었나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퇴임 이후에 23년도 10월 27일 날 페이스북에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하는 말씀을 또 쓰셨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혼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의 공식적인 용어를 우리 국민들한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보협력이 맞는 건지, 군사동맹은 지금 맷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용어 정의를 잠깐 해 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사동맹이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위원장 성일종** 정확한 용어를 좀 정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장관님께서 잠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보협력이 맞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동맹, 미일동맹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국을 이야기할 때는 안보협력이라는 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제기하는 말씀은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 일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국방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엄청나게 큰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나 우리 군에서도 한일동맹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이렇게 용어를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께서 배려를 또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리버 스터에서도 10시간의 아주 긴 시간 동안 기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팬찮으시다면 한 30초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성일종** 예, 그리하십시오.

○**박선원 위원** 고맙습니다. 7분이 하도 짧아서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첫 국방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해서 주요 직위자, 합참의장님을 비롯한 각 군 총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어려운 여건에서 국토방위, 조국 수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최전선의 사병, 위관·영관급 장교들과 장군님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제가 혹시 어떤 질문에 듣기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군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장관님을 비롯한 주요 직위자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는 점을 혜량해 주시옵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저도 질문하실 터이니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존경하는 신원식 장관님이 취임하신 이래로 많은 고민과 고통에 빠져 계신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군 인사권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사실상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하고 싶어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조보근 예비역 중장에게 휴민트 정보조직을 장관실 직속으로 갖고 싶은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신 바 있다라는 말이 있고요. 820특기자 박 모 장군을 무리하게 진급시키기 위해서 2024년 4월 양전섭 777사령관을 경질성 인사를 하시고 현재 문 소장을 정보사령관으로 임명하셨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박 모 여단장이 조보근 예중장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사무실을 지원하는 문제로 대립,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궤멸적 타격을 입은 주변국 핵심 위협 세력과 적국에 대한 정보 취득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고교 동창들이 군 인사를 장악하고 있고 주요 보직자들이 충암과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서 우리 군 합참과 장관님이 어려워하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의 충암파, 신원식의 국방파가 갈등의 표면을 좁히기 위해서 장관님께서는 국방정보를 직속으로 끌고 오고 싶은 욕구가 생겼는데 그것이 오늘의 국방정보망의 궤멸로 이어지고 하극상을 촉발한 원인이다라고 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양해가 되시면 슬라이드 1 보여 주시고 그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먼저 보시면 2023년 11월에 박 모 정보사 여단장이 이례적으로 진급했지요. 47기, 정보사령관에 비해서 한참 선배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주 위원 말씀도 계셨지만 존경하는 장관님께서는 조보근 중장님과 가까운 사이이시지요.

박 모 여단장이 조보근의 힘을 받아서 장관님 곁으로 왔고 그 과정에서 모처에 있는 영외 사무실, 이건 사실상 휴민트의 핵심 본부라고 말할 수 있는 본부입니다. 단순히 개인 사무실이 아닙니다. 이걸 두고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 조보근 이사장 만나신 적 있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신원식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장관님께서 국정원과 정보 협력의 어떤 답답함을, 갈증을 느끼시고 820 특기부대를 장관실 직속으로 설치하시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잘 대답해 주십시오. 현재 외교부가 외교전략정보본부를 차관급으로 전환·설치하였고 통일부도 정보분석국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상응하게 휴민트, 820특기를 장관님 직속으로, 이미 국방정보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두시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박 모 여단장과 조보근의 협력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하극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제보들이 많은데, 동의 안 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박선원 위원** 박 여단장이 몇 단계 건너뛰어서 나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박민우 여단장이 문상호 사령관과의 갈등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셨고 문 사령관이 정보본부장께도 보고했는데 한 번은 참아라 해서 보고 안 했고 그다음에 한 번 더 가서 보고하니까 그때 원천희 본부장이 장관께 보고했고 그 직후에 박 여단장이 장관님께 직접 해명성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박선원 위원** 잘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오래 전부터 아시잖아요. 잘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니, 뭐를 누구를……

○**박선원 위원** 사실 아니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닙니다.

○**박선원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한 가지만 제가, 잠깐만요.

900여단장을 정보사령부를 거쳐서 정보본부가 관할하는 부대인데 그 부대를 끌어서 제가 왜 직속으로 쓰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정보본부장이 전체를 총괄하는 부대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박선원 위원** 그래요. 말씀이 기신데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그거는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박선원 위원** 슬라이드 2번 주세요.

보이시지요? 금년도입니다. 1월에서 4월 사이에 군 정보기관에서 정보사 요원 명단이 유출된 것을 인지를 했지요. 그래서 4월 달에 777을 비롯한 곳에서 해당 부서, 국정원과 방첩사,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미 4월 달에 보고했고 그때 비공식적으로 두 달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방첩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 사실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박선원 위원** 보고 못 받으신 거지요, 받으신 적이 없지요? 6월 초에 보고받으신 것이 최초이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 주세요.

잠깐만, 이 과정에서 군 정보기관에서 정보사 요원 명단의 유출을 인지하고 유관기관, 여기서는 정보사뿐만이 아니고 국정원과 방첩사가 되겠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그 뒤로 양 모 사령관 아시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신원식**

○**박선원 위원** 경질시켰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오신 분이 이제 지금 777의 박 사령관인데 이분은 충암고 출신이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건 정기인사입니다. 이게 경질이 아니고 4월 달에 장성 정기인사 때 보직 교체가 됐는데 저 두 사람이…… 정보본부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육군 본부에서 의견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잠깐만요. 시간 좀……

국회의원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7분 내에 다 끝내야 돼 가지고……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박선원 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훈련이 안 돼 가지고요.

장관님께서는 정기인사라고 하시는데요. 해당 사령관이 갑자기 경질된 시기와 원인 다 알지 않습니까? 임기 못 채우고 나가신 거 다 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그 뒤로 계속해서 하극상이 벌어집니다. 작년 11월 박민우 여단장이 오고……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세요.

○**박선원 위원** 그리고 인사가 되고 나서 777의 새로운 사령관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다시 하극상이 벌어지는데 이 하극상이 곧 국정원과 함께 정보활동을 해서 휴민트 운영하는 데 답답함을 느낀 우리 군 정보사령부의 일부와 장관님의 입장이 맞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박 여단장이, 820특기자가 직접적으로 장관님 곁으로 조보근 이사장의 협력을 받아서 오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건 비밀 안가가 아니에요. 사실상의 본부입니다, 본부. 820특기 본부입니다. 이것을 노출시키고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 사무실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절대로 2급 이상 비취인가받지 않은 사람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고 위치의 존재도 알아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초래하신 분이 장관님 본인이시고 그 장관님 본인이 이 상황을 맞게 된 오늘의 현실은 충암고 라인으로부터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한 그 공백을 메꾸려는 답답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이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시자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박선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위원장 성일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박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단히 표현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거의 창작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인사 보직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조보근 예비역 중장이 만든 그 단체가 저도 이 사건이 수면 위에 떠오르고 난 뒤 정보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영외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900여단장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다른 건 몰라도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안가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듣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위원장 성일종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정보사 관계관들이 굉장히 정말 뼈아프게 들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앞으로 운용에 참고를 좀 각별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의 특성이 소위 군인이 아닌 많은 민간인 조력자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적법한지 여부는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있고 우리 수사기관에서 이게 정말 적법한 건지 아닌 건지, 만일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900여단장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죄가 특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업무의 특성이 있는 것만큼 우리 수사기관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조사본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나중에 평가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바로 그 지점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 조사기관에 특별히 지시하시고 다 하셔서 여러 대책이나 향후에 여러 가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강할 건 보강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을 수술을 해서 이 부분을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장관님이 답변을 길게 해서 딱 20초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보충질의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박선원 위원 아니요, 이 시간 지나면 놓쳐 버리니까요.

○위원장 성일종 이게 연결돼 있나요?

○박선원 위원 예.

존경하는 장관님, 저도 아시다시피 국가정보원에서 이런 일 했습니다. 장관님, 대북공작국의 일을, 국장의 일을, 차장·원장이 모르면 말이 됩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북 정보와 대북 공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관님께서 모르고 있었다? 원천희 본부장 언제 보고했고 문상호 사령관 몇 번 보고했습니까? 다 아는데 장관님께서 모르고 있었다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겨서 송구스럽다 말씀하셔야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까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를 누구한테 대여해 줬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디테일한 거는 보고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박선원 위원 보고받으셨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국가정보원에서 해 보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기호 위원 (손을 훑)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한기호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건 21대에서 22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상임위원회나 국회에 새로운 트렌드가 생긴 것 같아요. 우선 위원장님의 굉장히 주도적으로 또 많은 시간을 자의적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12시 8분 전인데 그러면 우리는 오전에 질의 못 하고 끝나지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물어보실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보장해 줘야지 위원장님이 마음대로 위원장님이 질문하고 싶은 건 계속 질문하고 바꾸고 싶으면 마음대로 바꾸고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전에 위원님들이 한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맞는 거지 자꾸 시간을 딜레이시켜서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주신 말씀 운영에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없고요.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맥이 끊기지 않고 일정한 시간은 좀 드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또 한기호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짧게,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위원님은 최초의 군사 전문가이시고 또 국방부도 가장 오랫동안 출입한 기록을 갖고 있는 정말 전문가 중의 한 분이십니다.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우선 장관님 이하 군 수뇌부 간부님들 많은 도전 요소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노력하고 계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지엽적인 것일 수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관련해서 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20-5쪽을 한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아래쪽이요.

국방부 업무보고 중에 아래에 보면 ‘초대형 방사포(4.5t)’로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초대형 방사포에 4.5t 탄두를 달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KN-23 개량형을 잘못 표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장관님께서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막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한 초년병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외람될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은 안보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방위는 어떠한 정쟁적인 것보다는 정말 안보의 본질적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까 장관님께서도 인사말씀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북한이 최근에 공개한 신형 전술미사일 250대 공개와 관련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처음 발표됐을 때 저는 사실은 잘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고요. 그래서 저와 보좌진이 분석을 좀 해 봤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뒷부분에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다음이요.

먼저 이게 250문, 이게 대 숫자가 맞나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쪽 앞 열부터 해 가지고 세어 봤더니 전체가 249개가 있었고요. 앞에 김정은이 있었던 스테이지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50대가, 숫자를 북한이 과장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게 더미, 가짜 아니냐 일부 그런 시각도 있는데 실제로 북한이 이런 이벤트를 했다는 것은 민간 상용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지난 4일에 미림비행장에서 이렇게 행사를했던 것들이. 해상도는 높지 않지만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갑자기 특 튀어나온 게 아니고 북한 나름대로 실제로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것은,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사진이 지난 1월 10일에 김정은이 신형 전술미사일 생산공장을 격려 방문했던, 지도했던 사진인데 이때도 수많은 발사대들, 차량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신형 전술미사일이 발사 장면은 공개된 적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근접 사진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도 언론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리의 북한 장사정포 킬러인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SSM과 유사할 것이라는 추정은 있었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 보니까 매우 흡사합니다. 길이, 직경도 거의 같고요. 길이만 우리 KTSSM에 비해서 약간 짧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 보면 이것 혹시 해킹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부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장관님께서 한번 좀 추적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뒷부분 노출이나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위협적으로 봐야 될 것은 소형 전술핵탄두 화산-31형이라고 불리는 이 핵탄두를 신형 전술미사일에도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화산-31형은 직경이 45~50cm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직경 62cm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미사일에 충분히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게 김정은도 큰소리를 쳤습니다만 전방 지역에 배치해서 우리를 위협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사거리가 최대 120km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수도권은 물론이고 평택 캠프 험프리스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가 있고요. 또 북한은 이번에 타격여단을 창설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기를 수여하는 이런 사진도 확인이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600mm 초대형 방사포와 신형 전술미사일 등을 열발, 수십 발을 섞어서 쏠 경우 사실상 기존의 한미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요격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북한은 근래 들어 동시에 여러 발의 미사일이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는 무려 열여덟 발의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위협적으로 판단한 이유 중의 하나는 신형 전술미사일을 북한이 그동안 서해상으로 몇 차례 시험 발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유용원 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초기에 완전히 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지는, 탐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발이 발사됐는지, 궤적은 어땠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미사일들을 발사 차량 한 대당 네 발이 실리도록 되어 있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250 대를 기준으로 하면, 곱하기 4 하면 천 발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님, 북한의 이러한 발사 차량은 실제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에 실을 수 있는 신형 전술미사일 같은 경우 북한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양산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지금 양산을 완전히는 못 했고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에 대한 방어 수단이 사실은 우리 천궁-II나 패트리어트 같은 게 있습니다만 위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진다면 우리가 개발한 LAMD, 이른바 한국형 아이언 돔이라 불리는 이 LAMD를 초기에 전력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군의 계획은 2029년까지 LAMD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너무 늦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새로운 위협이 부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대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유 위원님, 전문 지식에 의해서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하고, 아까 당길 수 있는 분야는 전력화를 좀 초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국민들께서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실까 봐, 저희가 이것을 엄중하게 보면서 대비는 보강을 하는데 그렇다고 국민들께서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실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만약 250대, 천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쏘기 위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북한도 전쟁을 결심하고 난 뒤일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전쟁 도발 징후는 우리 징후 목록에 의해서 사전에 감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우리의 반격을 예상해서 자기들도 보호조치를 하는 등 전쟁 도발, 전쟁할 준비가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 상태면 한미연합도 최고의 감시 및 대응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전개가 되면 단지 방어뿐만 아니라 퀄체인으로 사전에 상당 부분 발사하기도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어만 있는 게 아니고 공격 수단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이게 날아오면 어떡하지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국민들의 생업에 걱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유용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이십니다.

군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허영 위원님하고 두분이 가장 짚으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많은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시병 국회의원 부승찬입니다.

이렇게 장관님께 또 질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사뭇 남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기초적인 것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대통령과 통화를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부승찬 위원** 8월 5일 날 대통령하고 통화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올해……

○**부승찬 위원** 예, 엊그저께.

○**국방부장관 신원식** 8월 5일 한 것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안 했을 겁니다.

○**부승찬 위원** 8월 5일 날, 아까 말씀하신 250여 대 발사대가 전방 부대에 배치됐다고 보도가 나온 날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요 채 해병 사건과 관련돼서 8월 2일 날 이례적으로 하루 동안 수사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대통령실, 경북경찰청 간에 40여 차례 통화가 이루어져요. 이례적이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

○**부승찬 위원** 이례적이지요, 상당히? 하루 동안에 이렇게 국방부하고 통화를 많이 하는 게 이례적인 것 아니에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통화하는 사례가 있나요? 있었나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것은 대통령실과 통화를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대통령하고는 통화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러니까 통상 안보 사항은……

○**부승찬 위원** 아니, 통화……

○**국방부장관 신원식** 안보실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대통령께서 특별히 전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거나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가끔 전화를 주십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견적은 별로 없고요.

○**부승찬 위원** 그렇겠지요, 저도 국방부에 근무해 봤으니까.

그러면 통화할 때 일반 폰 쓰세요, 장관님은?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닙니다. 보안 폰 쓰기도 하고 일반 폰…… 일반 폰으로 전화 오시기도 합니다.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헌법 5조에 보면 국방의 신성한 의무가 5조에 올라와 있어요. 3조가 영토 조항이고 5조에 국군의 신성한 의무가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부승찬 위원** 거기의 신성한 의무가 뭐니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국방부장관 신원식** 원래 국군이 할 수 있는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본연의 임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신성한 의무가. 특히 국토 보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독도는 어느 나라의 영토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것은 당연히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입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화한 것은 실수였나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러니까 일본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오해를 일으키는 표현을 했는데……

○부승찬 위원 아니, 실수였냐고요, 내 말은.

○국방부장관 신원식 좀 면밀히 그 문맥을 잘, 표현을 잘 따져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승찬 위원 지금 일본이 20년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부승찬 위원 이것은 위협입니까, 도발입니까? 그냥 레토릭이에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저는 일본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보고, 단지 우리가 일본의 주장에 너무 또 대응을 해서 그게 국제 분쟁수역화되는 그 문제는 유일하고……

○부승찬 위원 아니, 국방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 차원의 문제고요. 국방 차원의……

○국방부장관 신원식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일본의 그 주장……

○부승찬 위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지요, 국방 차원에서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한 치의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당연합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 독도수호훈련이랑 이런 것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게 얼마 전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게 있어요. CNI,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부승찬 위원 핵·재래식 통합 엄청 홍보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을 좀……

정책실장님 계세요?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실래요?

잠깐 나와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마이크 드리시지요. 거기서……

○부승찬 위원 아니, 나와 주세요. 고개가 아파서요.

핵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게 핵 억제, 핵 작전지침을 비판 나랑이랑 같이 그것 하셨지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예.

○부승찬 위원 서명하셨지요, 그렇지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예.

○**부승찬 위원** 서명하셨는데, 원래 핵 체계에 특정 임무를 배정합니까? 전·평시의 임무를 배정해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미국의 핵 작전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핵을…… 원래 비확산 체제, 물론 냉전 때는 좀 있었지요. 비확산 체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에 190여 개국이 가입하고 나서 핵은 특정 임무에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의 일관된 원칙이에요. 그런데……

슬라이드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7월 16일 날 제31회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이에요.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장 넘겨 보세요.

이게 국방부가 배포한 자료예요. 아실 거예요. ‘미국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한다’……

스스로 창피하지 않으세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아닙니다. 저 문구 포함 부분 배포 자료는……

○**부승찬 위원** 전·평시 임무에, 핵이라는 자산 체계가 전·평시 임무 배정하는 나라가 있어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저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미 측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만든 배포 자료입니다.

○**부승찬 위원** 비핀 나랑이 인정했어요? 비핀 나랑이 인정했냐고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예, 인정했습니다.

○**부승찬 위원** 다음 장.

비핀 나랑의 답변이에요.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다고 윤 대통령이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단호하게 ‘아니요’예요. 단호하게 ‘아니’예요. ‘특정 임무나 목표에 특정 무기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에 대한, 핵을 갖고 있는 P5 국가들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못 지키면 핵 비확산 체제는 무너져요.

그런데 비핀 나랑이 약속하고, 해 놓고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따위로 얘기해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그 앞의 질문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그 질문 내용이……

○**부승찬 위원** 앞으로 넘겨 주세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예, 앞에 한번 넘겨 주십시오.

앞에 ‘예를 들어’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핀 나랑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뿐이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부승찬 위원** 아니요, 지금 영어와 한국어 읽을 줄 모르세요? 특정 무기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첨단무기……

○**부승찬 위원** 아니, 제가요 처음에 왜 핵에 대해서 잘 아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비확산체제 NPT 우리 가입국이에요, 아니에요?

○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가입국입니다.

○ **부승찬 위원** 거기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뭐예요? 비핵국가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주는 원칙이 뭐예요?

○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 **부승찬 위원** 그게 뭐예요? 소극적 안전보장이지요?

○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예.

○ **부승찬 위원** 그다음 또 하나, 두 가지 원칙대로 운영되잖아요. 그 얘기인즉 핵을 가지고 어느 국가든 위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임무에 배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비판 나랑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 나랑이 약속했어요?

○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 **부승찬 위원** 전시, 평시 배정에 약속했냐고요.

○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저희가 그 보도자료를 낸 내용은……

○ **부승찬 위원** 들어가세요.

○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추가보충질의를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득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대응 전략 토론회를 아주 크게 잘 마치셨습니다. 또 잘 알다시피 가장 유능한 안보 전문가로서 국방위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득 위원** 영주·영양·봉화 지역구의 임종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힘내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의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파리에서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의 첫 메달리스트인 하를란이라는 펜싱 선수가 동메달 획득 후에 피스트에 키스를하면서 ‘이 메달은 조국을 위한 것이다, 러시아에서 목숨을 잃고 여기에 오지 못한 동료 운동선수들에게 바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우리 국군장병들이 잘 지켜 주고 있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파리에서 힘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 오물풍선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해서 7월 24일까지 한 10여 차례 오물풍선이 날아와서 국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불편해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쪽에서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의 대북전단 살포 그다음에 우리가 대응해서 했던 대북심리전 방송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심리전 방송, 대북전단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이유가 뭡니까?

○ **국방부장관 신원식** 자기 체제 내부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한테 가장 두려운 것은 외부의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좀 다르게 대응을 해 왔거든요. 2014년 10월 10일에는 고사총으로 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넘어와서 대응하기도 했었고, 2020년에는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전단을 이유로 해 가지고 폭파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비군사적인 것 같은 오물 살포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일단은 북한이 이번에 한 이유는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들이 3차 위성 발사 실패하고 난 뒤에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고, 그런 것보다는 계속 날림으로써 추가적으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피로도 이런 것을 증가시켜서 결국 소위 이른바 남남갈등을 유발해서 대북풍선을……

○임종득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물풍선이 살포되고 나서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돼서 야당의 질타가 상당히 심했지요. 군사분계선에서 왜 대응하지 않았느냐, 대통령실이 뚫렸다 깜깜이다 뭐 이런, 발견도 못 하고 유추도 못 했다 그래서 경계태세, 군사대비태세를 질타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장관님, 격추를 못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안 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시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PPT를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잠실 롯데타워가 555m입니다. 고무풍선이 날아오면 약 한 1.5에서 2.5km 정도 상공으로 날아가는데 만약에 우리 대통령실에 날아오고 있는 풍선을 향해서 그것을 격추를 시켰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달려 있는 무게가 한 5에서 7kg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5kg면 볼링공 11파운드 무게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도심 지역이 밀집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판단이었을 것이고 또 GOP 라인에서 사격했을 때 월경이 돼 가지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인하는 그런 쪽의 우려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것을 국방부 대변인이 설명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공세를 야당은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장병들이 다 들었을 텐데 장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현재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조치 그리고 또 민관군 합쳐서 수거하는 조치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사기는 안 떨어졌습니까? 야당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접한 장병들이.

○국방부장관 신원식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하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야당 모 위원은 자청 포병의 최고 권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분이 오물풍선을 이용해서 전시에 폭탄을 투하하면 상당한 새로운 위협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적이 있지요. 이와 관련돼서 장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일부 국민들께서 거기에 폭탄이나 또 화생방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오물풍선이 됐든 로켓이 됐든 미사일이 됐든 그러한 살상무기를 보내면 거의 그것은 전쟁에 준하는 심각한 도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낫고요. 그러나 우리는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만일 위해물질을, 그러니까 살상물질을 보내려고 하면 부정확한 풍선이 아니라 아마 화포로 쏘거나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걱정은 하고 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진정성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좀 과도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습니다. 군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청하는 분이 지금 미사일로 핀 포인트(Pin Point)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선에 포탄을 날려 보낸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으로 정말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오물풍선과 관련돼서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이 되면 무력도발로 간주하고 원점에 대해서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또 모 위원이 국지전을 유발하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국민의 피해가 생겼을 때 자위권 차원에서 비례성, 충분성에 대응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큰 틀에서는 그 방향이 맞다고 평가합니다.

○임종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언제든지 대응을 자위권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해를 입는 상태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 장관님께서는 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 위원님은 5선을 하시는 동안 우리 국방위에서 간사를 비롯해서 위원장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셨던 산증인이십니다. 훌륭한 인품과 실력을 갖추고 계셔서 저희가 의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장관님을 비롯한 각 군 총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국방정보본부장이 어디 소속입니까? 국방부 소속입니까, 합동참모본부니까, 스리세븐을 비롯한 각 군의 부대장입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이른바 세 가지 캡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정보본부장, 합참정보본부장 그리고 정보부대에 대한 지휘관 세 가지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렇게 모자를 세 개 쓰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좀 분리해야 되지 않아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안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 개선 방안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방부 조직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저는 이런 문제들이 항상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제 위치에서 제 일을 직무를 못 하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군 사망사고 가운데 군 사단장을 비롯한 군 지휘관이 책임을 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전에 22사단장 이승오 지금 전력본부장인가요? 그분이 부임돼 가지고 16일 만에, 부임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냥 주의 경고로 끝난 적은 있지만 이런 대형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면 사단장을 비롯한 군단장, 그때 한민구 장관 때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2사단 사건인가, 임 병장 사건인가 아마 그 부분에도 군단장까지도 책임을 물은 적이 왕왕 있는데,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보직 해임되지 않은 사례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지금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규백 위원**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군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이 보직 해임과 책임을 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런데 사망사고의 성격, 범위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것을 결정하고, 단지……

○**안규백 위원** 아니, 국민적 공분을 많이 사고 있고 모든 국민적 이목이 쏠린 사항에 대해서 이 이상 더 심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물론 국민적 공분도 대단히 중요한 판단의 가치지만 법적으로 일단은 또 공분과 무관하게 따져야 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반을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규백 위원** 장관님, 지휘관은 행위책임과 또 지휘책임 있지 않습니까? 지휘책임은 지휘관으로서의 책임 범위가 무제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군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표가 아니고 사의를 표명한다는 말이 저는 무한책임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어야 할 책임을 안 묻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으로서는 그 역할과 기능을 못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응당 우리 군은 책임을 물어야 되지요. 어떻습니까, 포괄적 지휘책임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당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절한 판단을 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좀 너무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저는 이 해병대 순직 사건으로 인해서 모종의 세력들이 일단의 세력들이 그 해병대의 사단장의 보직 해임을 가로막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신원식** 임성근 소장은 정기인사 때 보직이 교체가 됐습니다, 사단장. 몇 개월 후에 있었던.

○**안규백 위원** 아니, 대개 보면 7월 28일 날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 바로 수리를 않고 계속 대기 상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관님이 말씀하기가 좀 어려운 대목이 있는 것 같은데.

유재은 법무관리관, 8월 2일 날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에 이첩을 하고 나서 다시 국방부검찰단에서 이것을 회수하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맞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 법률용어가 회수입니까, 손으로 집어 온 겁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증거물로 인수를……

○**안규백 위원** 이게 무슨 회수예요, 손으로 집어 온 거지. 아프리카도 아니고 문명국가

에서 수발대장도 없이 문서대장도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경북에서 아직 접수를 안 했다고 했고 저희한테 회수 의사를 물어왔고 저희가……

○**안규백 위원**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받는 즉시 다 접수하게 돼 있는 거지요, 왜 접수를 안 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경북경찰청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지금요. 어디 지금 문명국가에 살면서 기관 대 기관 이 중대한 인명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서대장도 없이 수발도 없이 말이에요, 손으로 집어 온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것은 대통령실 지시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작년 저한테 8월 2일 날 보고한 내용 기억나요, 안 나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안규백 위원** 저는 이게 대통령실 지시가 있지 않았더라면 국방부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그 상황 당시에 가서 손으로 집어 오는 이런 무식하고 무차별적이고 무법적인 이런 처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앉으세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말씀하세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일단 제가 청문회와 법사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노규호 부장한테 전화가 와서 회수 의사를 물었고 제가 회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회수 결정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안규백 위원** 앉으세요. 알았어요.

장관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입니다.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사단장은 책임을 부하한테 미루고 또 대대장은 사단장을 고발하고 부사관은, 중령급에 있는 이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사령관을 고소 고발하고, 우리 군이 어떤 명예를 쌓고 어떤 조직을 쌓는 데는 수십 년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일단 기록하고 녹음을 하고 이게 정상적인 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 부분은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규백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나요?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세요.

○**안규백 위원** 장관님이 짧게 대답하셔서 제가 더 이상 군살을 붙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김계환 사령관님께서도 장관께 사의를 표명한 적 있습니까, 언론 보도 보니까 나왔던데?

○**국방부장관 신원식**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김계환 사령관이?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안규백 위원** 언론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김계환 사령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습니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작년도에 사의 표명한 적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데 장관께서는 사의를 표명을 했으면 그 수리를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저한테 사의 표명했다는 겁니까?

○**안규백 위원** 예.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아니, 전임 장관님 계실 때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전임 장관 때 했어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예, 죄송합니다.

○**안규백 위원** 그래요?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장관은 사람은 다를지 모르지만 군의 여러 가지 행정과 정책과 맥락은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2만 8800 명의 해병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사기 진작과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저는 우리 해병대 지휘라인이 일신하고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김계환 사령관은 사실은……

○**안규백 위원** 아니, 김계환 사령관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그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안규백 위원** 이게 녹음하고 지휘하고 고소 고발하고, 정보본부도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위원장 성일종** 정리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우리 해병대사령관에 관련된 것은 제가 여러 번 밝혔습니다마는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미 고소 고발이 진행이 돼서 임기에 이르기 전에 보직을 교체하기도 법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여타 다른 직위에 있는 사단장과 장군들은 인물과 능력과 효능감이 없어서 사의를 표명하고 다 사표도 수리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하여튼……

○**안규백 위원** 빨리 일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추미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님은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가 늘 붙습니다. 지역에서만 6선을 하신 여성 최초의 기록을 갖고 계시고 또한 여당의 당대표의 최초의 기록도 갖고 계십니다.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신원식 장관님,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라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불법을 엄호하고 은폐하는 데 조력자인 장관이십니까? 어떤 일이 우선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당연히 첫 번째입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그 소신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우선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문제점부터, 아주 쉽습니다. 이것 지적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병대 1사단이 신속기동부대로서 그 당시의 작전통제권을 50사단, 2작전사, 합참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넘겨받은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합참의장님, 당시에 1사단 신속기동부대에서 50사단으로 작전 결과 보고한 내용이 없다 제가 보고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전환했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은 권한이 없으므로 고로 책임도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상대로 한다면 이 보고 넘겼다면 지휘보고가 문서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서상 남지는 않은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추미애 위원** 어떤 조치를 하신 적 있습니까, 당시에?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제가 그때는 지휘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50사단으로, 해병 신속대응부대를 2작전사로 작전통제권을 전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알고는 있지만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임성근 사단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경찰청 수사자료를 봐도 작전통제권 이관 이후에도 아침 일찍 임성근 사단장은 예천 현장지휘소를 방문했고 여단장에게 수색지침을 보고받았고 여단장 수행하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성근 사단장에는 카톡이나 유선으로 일일보고, 공보 활동을 보고했는데 육군 50사단에 보고를 안 했다 또 50사단은 형식적으로 작전통제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해병 1사단장이 지휘를 했다라고 되는 거예요, 증거상으로. 그래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론은 이런 겁니다. 지금의 군도 마찬가지고요.

군이나 수사기관이나 국민이 바라는 상식으로부터 도피하고 궤변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수사 외압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전화번호 800-7070, 과연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을 겁니다.

병무청장님, 당시에 대통령경호차장으로 2년간 재직하셨을 때 일이 일어났어요. 맞습니까?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7월 31일 보면 이 수사 외압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전화번호 800-7070, 과연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을 겁니다.

병무청장님, 당시에 대통령경호차장으로 2년간 재직하셨을 때 일이 일어났어요. 맞습니까?

○**병무청장 김종철** 예.

○**추미애 위원** 02-800-7070 번호가 대통령실 청사 2층 대집무실에 있습니까, 5층 소집무실에 있습니까, 아니면 구 육군서울사무소에 있었던 전화입니까?

○**병무청장 김종철**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번호입니다.

○**추미애 위원** 그런데 이 번호가 갑자기, 경호처 관리번호였는데요 23년 5월에 비서실에서 경호처로 변경되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병무청장 김종철** 세부적으로 전화번호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추미애 위원** 모른다?

그날 10시에는 사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가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회의 결과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시에 그 회의를 할 때는 당시 이슈가 있었어요. 순살 아파트,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로 국민적 원성이 자자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식 회의를 해서 대응을 했는데 그날 800-7070으로 국토부장관, 원희룡 장관하고 네 차례나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도 이 번호로는 대통령이 썼을 것 같은데요.

이 11시에 안보 관련 수석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는 제가 볼 때는 미리 준비된 회의가 아니라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채 해병 순직 관련 국방부의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보고하니까 대통령이 그 별도 보고를 받고 크게 격노를 한 것 같아요. 무슨 이런 일로 8명이나 기소를 할 수 있느냐, 누가 일을 할 거냐 이런 게 그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 보고 직후에 조태용 안보실장도 급하게 불려 갔고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급하게 불렀던 것 같은데, 그 전화번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관님은 7070 번호로 대통령 전화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보통은 업무 연락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개인 폰을 씁니까, 비화폰을 씁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데, 어쨌든 7070으로 저는 전화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 아까 정의를 바라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신다 하셨는데 대통령의 불법을 엄호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들리는데요.

아까 법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국민적 공분이 자자하다 했더니 그 공분도 중요하겠지만 법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경북경찰청에서는 그 수사 결과가 제가 궤변이다라고 합참의장님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합참에 전혀 지휘권을 넘긴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본인이 계속 관여를 했다, 현장 지도도 했다, 지휘를 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 그 자리에서 들으세요.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해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예, 아니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추미애 위원** 그러면 신원식 장관님,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건 이첩에 관한 지시를 누구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겁니까? 장관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런데 또 정진석 비서실장은 장관 지시 불이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방금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장관 지시 불이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위원님, 제가 장관 지시 불이행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장관이 해병대사령관한테 지시를 해서 해병대사령관이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 말을 들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미애 위원** 어쨌든.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 지시 불이행……

이 가닥을 좀 마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장 성일종** 조금 길 것 같은데 추 위원님 보충질의……

○**추미애 위원** 아니, 금방 마칩니다. 이것 관련해서만, 이 꼭지……

○**위원장 성일종** 6선이시니까 제가 욕을 먹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 주시지요, 정리해 주시지요.

○**추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가셔야 된다고들 하시기 때문에……

저걸 보시면 김계환 사령관이 저렇게 문서를, 장관이 보시기에도 이게 문서 같지가 않잖아요. 형식과 절차를 따지는 군에서 두 줄 직직 긋고서 장관에서 사령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령관은 당초 지시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지시할 장관을 표기했다가 이후에 어떤 외압에 의해서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저것 보면서 이게 정말 지금 내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임을 알릴려고 의도적으로 저렇게 문서 양식에 맞지 않게 두 줄 직직 긋고 혼적을 남긴 것 아닌가?

저 순간 저는 서울의 봄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전두환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대통령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최고 지위에 있는 건데 계엄사령관이 와 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의도적으로 끌면서 시간을 표시해 둔, 역사적으로 그 기록을 남긴 그 무도한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저것은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상황을 조직 내부에서 언젠가는 세상이 알리라 하고 증거를 남긴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관계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래서 수사도 궤변이다 이런 얘기지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국방부장관 신원식** 한 가지만 제가 정정 말씀……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추미애 위원님께서 ‘대통령의 불법을 엄호하는’ 표현을 썼는데 대통령께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아예 단정을 하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법을 안간힘을 다해서 지키는……

○**위원장 성일종** 추 위원님, 추 위원님.

○**추미애 위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위원장 성일종** 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추미애 위원** 항명죄로 하도록 지시한 것이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을 7070 번호를 통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은 4선을 역임하시면서 직전 국방위원회를 하셨고 군 개혁에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군 장병들이 가장 존경하고 계신 그런 장군으로서 또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도 22대 우리 위원회나 전반적인 국회가 좀 변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국방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위원님들이 국방부장관과 그리고 배석한 분들한테 질의할 때 소리를 지르거나 겁박하는 식으로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제가 18대부터 국방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계신 분들은 우리 50만 군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 장병들을 고려해서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에게 과하게 또 어거지 쓰는 식의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오늘 보면서 많이 되네요.

장관님, 요즘 초급간부들이 많이 군을 떠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한기호 위원** 그래서 23년도에 4061명의 5년 차에서 10년 차 중장기 간부가 전역을 했는데 이 인원들은 그러니까 정년이 돼서 한 게 아니라 자원에 의한 전역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현장에서 실제로 현역 장교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군인들이 됐을 때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관님도 사관학교 나오시고 또 여기 육해공군 총장님하고 의장님도 군문을 들어설 때 실제로 돈을 벌겠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가장 큰 게 국가를 위해서 봉직하면서 명예스럽게 군 생활하겠다는 게

아마 보편적인 가치 기준일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 가치 기준을 우리 후배들에게 충족을 해 주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장군들 숫자를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몇 명을 줄였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신원식** 70여 명……

○**한기호 위원** 한 70명……

○**국방부장관 신원식**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한 70명 줄였지요. 지금 전방에서 위관장교, 10년 차 이하 5년 차 사이에 있는 위관장교들 하는 얘기가 ‘위원님, 저희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국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21대에서 22대 넘어오면서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 한 명 자리를 가지고 저걸 주느냐 안 주느냐를 가지고 한 달 이상을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비례대표 한 명을 줄여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늘려 줬지요. 300명을 가지고, 그 한 자리를 가지고 우리 국회가 여야 전부 다 머리를 싸매고 난리를 쳤어요. 이렇게 국회의원 한 자리를 가지고 싸우는 국회의원들이 장군 숫자를 70명을 잘라 내도 아무도 이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후배들은 희망이 없다고 그들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군 생활을 해도 장군이 될 확률은 과거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걸 복원을 안 시키고 이대로 가도 우리 후배들이 정말로 군 생활을 보람 있게 할 수 있겠느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군 생활을 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한다면 나도 장군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을 때 군 생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군대 군복을 입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우리 군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의 인생에 군 복무를 마칠 때 마지막 모습은 장성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뺏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도 여기에 대한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후배들이 희망을 갖지 않고 군 생활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종합적인 대책을……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 다 하고 마지막에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사관학교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사관학교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사관학교 출신들이 소위들 중위들 전방에서 만나서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는 병사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저희는 봉급을 병사들만도 못 받습니다’ 지금 병사들, 봉급 주는 병장 봉급을 언제 주냐 하면 3학년 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병사들은 지금 받는 게 내일준비금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사관학교 출신들에게 내일준비금은 안 줍니다. 결국 우리가 내년도에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생도들한테 200만 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으로 ‘우린 병사만도 못합니다’ 하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지, 그러면 미래의 희망에 명예도 가질 수 없고 지금 당장 내가 병사만도 못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단기복무 지원한 장교, 부사관들에게 장려금을 줍니다. 이 장려금 내년에 또

인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육사 출신들이, 사관학교 출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단기복무자가 군대 생활하다가 군대 생활이 좋아서 장기복무를 지원해서 장기복무가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받은 거 반납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실제로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군을 계속 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년부터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장군 정원 준 것은 정확하게 66명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초급간부들부터 또 중견간부들까지 군을 많이 떠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원인은 낮은 보수나 주거 같은 처우 문제도 있고 직업 안정성이 다른 공직 같은 경우는 60세로 정해져 있는데 계급정년에 의해서 빨리 나가게 됩니다. 재취업도 어렵고 그래서 직업 안정성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총괄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 보상에 관련돼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문화적 보상도 그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기계발 여건, 미래 비전, 아까 장군 정원 문제도 미래 비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81년도에 임관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초봉이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높여져서, 지난해 높여서 올해는 중견기업, 초급간부의 경우에 대기업의 한 70%입니다. 그때 훨씬 월급을 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위·소령 됐을 때는 86·87·88, 3저 호황, 단군 아래 최대 호황이라서 민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봉급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자리걸음이었지요. 그런데 한번도 군복을 입은 걸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정리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신원식** 중요한 건 사회적 인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마지막으로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허 위원님은 부승찬 위원님과 함께 가장 젊은 위원이십니다. 또한 늘 약자 편에서 일을 해 오고 계시고 또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법안도 이렇게 많이 내고 계십니다. 최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한기호 위원님과 춘천의 갑을 위원들이 다 국방위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정확하게……

○**허영 위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채 해병 사건에 대한 진상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장관님, 박정훈 대령이 부하직원 맞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김계환 사령관님,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또 의리의 상징인 해병대에서 동고동락해 왔던 후배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박정훈 대령은 부하직원 맞습니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예, 부하직원 맞습니다.

○허영 위원 소회가 어떻습니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안타까울 뿐입니다.

○허영 위원 안타깝다.

유재은 법무관리관님,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는 뭐입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군에서 어떤 지휘관의 개입이나 간섭으로부터 빨리 해방이 돼서 빨리 민간으로 이첩돼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허영 위원 군 사법 제도에 불신이 있었고 또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인권 보장과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한 것이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맞습니다.

○허영 위원 그래서 개정이 되어서 변사 사건이나 성폭력 범죄 또 군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이첩하게끔 되어 있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변사 사건은 아니고요.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와……

○허영 위원 그게 변사 사건 아닙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변사 사건에 관한 관리는 군사법원법상 여전히 저희한테 남아 있고 그것이 저희가……

○허영 위원 채 해병 사건은 이첩 대상 사건이 맞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맞습니다.

○허영 위원 화면을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 3대 범죄, 사망사고와 또 성폭력 범죄, 군 입대 전 범죄의 민간 이첩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으로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총 422건입니다. 변사 사건이 18건, 성폭력 범죄가 378건, 입대 전 범죄가 26건입니다.

그리고 10월 7일 날 장관으로 취임하셨는데 취임하신 이후로도 민간 이첩된 사건이 총 129건입니다. 변사 사건 7건, 성폭력 사건 112건, 군 입대 전 사건 1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통계 수치는 처음 보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제가 이 통계를 정확하게 본 거는 처음입니다.

○허영 위원 120건을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혹시 120건의 사건 중 이첩을 보류 시한 사건이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없습니다.

○허영 위원 유일하게 채 해병 사건 1건이 이첩 보류가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지요.

다음.

유재은 법무관리관님, 민간으로 이첩한 사건의 발생일, 즉 접수일로부터 실제 민간으로 이첩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일이 소요됩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사건마다 경우의 수가 달라서 일관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허영 위원**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입수를 해서 평균으로 한번 내 봤습니다. 변사 사건의 경우 보시는 대로 평균 73일이 소요되었고 성폭력 범죄의 경우 10일, 입대 전 범죄의 경우 38일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소요되는 걸까요, 관리관님?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일단 변사 사건 같은 경우에 변사 사건에 대한 검시를 아직 군사법원법상 검찰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조사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원인이 된 범죄가 드러나야 이첩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허영 위원** 그렇지요. 범죄를 인지를 해야……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맞습니다.

○**허영 위원** 이첩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인지를 하기 위한 과정이 그 정도 소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모로 규정이나 훈령에 돼 있지요.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훈령 별지서식 5호입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훈령입니다. 여기에 죄명, 범죄 인지 경위, 범죄 사실을 적시하도록 돼 있지요. 이런 것들을 적시하기 위해서 그 기일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맞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관리관님, 최근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법사위나 청문회에서 일부 위원들께서 변사 사건이니 민간으로 이첩해야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든 조사든 하면 안 된다. 그러니 박정훈 단장의 수사 내지 조사는 직무를 벗어나는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제가 법사위나 청문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변사 사건 관할이 아직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나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화가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영 위원** 그렇지요. 이 주장은 틀린 주장이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어떤 규정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영 위원** 아니, 법사위에서 국힘 위원들이 박정훈 단장의 수사 내지 조사는 직무를 벗어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틀린 주장이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개별 위원님들의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허영 위원** 지금 그렇게 인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것은 제 법리적 판단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영 위원** 그러니까 법리적 판단으로……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제 법리적 판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허영 위원** 조사나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이첩 기간이 이렇게 걸리는 것이지요, 소요 기간이?

○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 허영 위원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항명죄로 박정훈 대령을 기소를 하고 이런 과정인데 박정훈 대령은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항명에 대한 부분은 무단 이첩에 대한 부분입니다.

○ 허영 위원 그러니까 그 이첩의 과정에 대한 조사·수사가 이첩 과정까지 다 연계돼 가지고 죄를 거기에 뒤집어씌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것에 대한 수사 부분인 것이고 그 부분하고 저 논리하고는 일맥상통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허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는 ‘예’라고 해 놓고 또 이렇게 빠져나가시네요.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성일종 예, 1분 더 드리시기 바랍니다.

○ 허영 위원 장관님,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것 많이 보신 화면일 텐데 최근 국회에 출석하여 가지고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통화한 적 없다고 하셨던 답변의 화면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혹시 당시 국방위 간사로 계시면서 총 몇의,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몇 통의 관계자, 사건 관계자가 총 17명인데요. 몇 통의 통화를 장관님, 간사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국방부장관 신원식 제가 통화 기록을 뽑아 보지 못했는데……

○ 허영 위원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 국방부장관 신원식 언론 보도에는 13회도 있고 18회도 있고 이렇게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영 위원 총 18회 이렇게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문자를 받으셨고요.

○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 허영 위원 그런데 혹시 이 시점에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주요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한 것은 채 해병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요한 국방 현안이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때 북한의 도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때 사실 작년 3월에 김병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초급 간부 그것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8월 중순이 되면 기재부에서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초급 간부 그것에 대해서 긴밀하게 통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UFS나 당시 또 캠버리의 군 지원 이런 문제로 좀 통화를 많이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허영 위원 다음 화면 잠깐 봐 주시지요.

끌내겠습니다.

이게 사건 기간 내에 총 17명이 206회에 걸쳐서 12시간 16분 12초 했는데 17명 중에서 가장 통화 기록이 많은 7명의 상위 내역이고 그 중간에 신원식 그때 당시의 간사님이 계시고 여기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또 유재은 법무관리관, 대통령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가장 많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주요한 사건 관계자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또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현지 장관하고 통화를 한 것이 그 내용하고는 너무나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리고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한 게 새벽 5시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허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허영 위원 예,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잠깐……

이종섭 장관이 그때 우즈베키스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 있을 때 저하고 통화한 기억은 없고요. 그다음에 저때 위원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채 해병 사건하고 여당 간사인 저하고 무슨 관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만일 관련이 있는데 굳이 그것 통화를 안 했다는 것을 상임위에서 뭘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채 해병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국방 현안과 관련해서 통화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허영 위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두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셨고 또 우리 군 수뇌부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배려들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바쁘시니까 조국 위원님 먼저 질의 좀 하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총장님들한테 질의하실 분부터 먼저 배려해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관님, 아까 협력각서 관련해서 국회 비준동의 필요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한미일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한미일과, 실제 미국 일본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향을 질문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신원식 지금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국 위원 예.

○**국방부장관 신원식** 미일과 우선 우리 정책실장이 협의를 한다고 그랬고 되는 즉시 전체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조금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방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겠다는 데 크게 반대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대면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국 군대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훈련하고 있지요? 일본 해상자위대와 한국 군대는 같이 훈련을 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지금 현재요?

○**조국 위원** 예, 현재. 지금 이 순간 말고 말입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SAREX라고 인도적 재난구조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위원** 이게 할 수 있고 할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조국 위원**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와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마찬가지로 할 계획이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양국 간의 항공훈련은 정해진 바 없고요. 한미일 훈련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국 위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여쭙자면 지금 문제의 한미일 협력각서 안에 일본 육상자위대와 한일 또는 한미일 사이에 군사협력을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육상자위대와?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렇게 구체적인 것 잠깐 제가 정책실장한테 자세히 묻고……

○**조국 위원** 알고 계시지만 답하실 수 없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담당 실무자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조국 위원** 육상자위대와 협력을 한다는 얘기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한반도 영토에 올라올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쭙기 때문에 그 내용 역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허락 없이 육상자위대가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지금 현재 육군끼리 연합 3자 훈련은 계획되어 있지 않고 해상 공중훈련은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 비화폰 쓰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조국 위원** 비화폰 몇 개 쓰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개수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부분인데 기왕 물으셨으니까……

○**조국 위원** 저도 과거에 청와대 근무 시절에 비화폰을 썼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정부끼리 쓰는 것하고 군 내에서는 쓰는 것하고 2개……

○**조국 위원** 최소 2개 정도 쓰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조국 위원 비화폰은 보안UC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화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와 관련된 것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국 위원 그것은 통신기록, KT·SK 등 통화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여기 김계환 사령관님 계시지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예.

○조국 위원 김계환 사령관님, 과거 군검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비화폰 제출하셨지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예. 개인폰하고 비화폰하고 다 제출했습니다.

○조국 위원 둘 다 제출하셨지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예.

○조국 위원 앉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종섭 전 장관님도 비화폰 당연히 2개 사용하셨지요?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스톱하고요. 이종섭 전 장관님이 비화폰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답하실 수 없습니까? 당연히 사용하셨지요, 누구든 간에 말입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해병대사령관은 몇 개 가진지 모를 거고 저는 그 비화폰을 공용폰으로 인수받았기 때문에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조국 위원 일국의 국방부장관이 비화폰을 사용 안 할 리가 없지요. 당연히 사용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우리나라 국가운영원리에 따르게 되면 이종섭 전 장관이 사용하셨던 그 2개의 비화폰을 지금 신 장관님께서 이어서 사용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통상 그렇게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일어나셨던 김계환 사령관님과 달리 이종섭 전 장관님은 자신의 비화폰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 장관님이 사용하시고 있는 바로 그 2개의 비화폰이 이종섭 전 장관님이 사용하셨던 것이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통화기록은 없지만 보안UC앱에 따라서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그 내용을 군검찰에 제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신 장관님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종섭 전 장관님이 사실 같은 그 폰을 사용하셨고 그것을 국방부에서 별도의 포맷 처리나 폐기 처분하지 않았다면 이종섭 전 장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2개의 비화폰으로 사용한 기록이 그대로 UC앱을 통해서 남아 있답니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 보겠습니다.

○조국 위원 김계환 사령관님은 임의제출에 의해서 제출하셨거든요. 그 의사까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성일종 예, 그러시지요.

○조국 위원 하나만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짧게 해 주시지요.

○조국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선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정보사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건으로 기사를 한번 띄우겠습니다.

24년 7월 30일 매일경제 기사 한번 띄워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이것 3분 이상이 되나요, 조 위원님?

○조국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3분 이상 되면 이따가……

○조국 위원 예, 그러면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조국 위원 이 기사 질문은 다음에……

.....

○위원장 성일종 또 3군 총장님들한테 하실 위원님들.

○김병주 위원 (손을 두드)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이 하시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육군총장님.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육군총장입니다.

○김병주 위원 마이크 앞으로……

육사에서 독립영웅 흥상 이전이 지금 백지화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흥범도 장관 흥상을 비롯한 독립영웅 흥상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육사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고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아직 백지화가 안 됐다는 겁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은 국민적인 열망이 백지화예요. 그래서 백지화하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32사단에서 수류탄 사고 났던 것하고 12사단에서 그때 훈련병 하다가 순직한 사건 있잖아요. 32사단에서 수류탄 사고는 군경찰에서 수사를 해 보니까 귀책사유가 군에 있는 것이 확인이 안 돼서 이것은 군에서 종결이 됐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아직 종결된 건 아니고 확인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경찰에 별도 이첩이 됐나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경찰에 이첩이 된 게 아니고 군 내부적으로……

○**김병주 위원** 군 내부잖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군에 귀책사유가 발견이 안 돼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12사단에서는 훈련병 및 중대장과 일부 인원이 귀책사유가 있어서 경찰로 이첩이 됐잖아요? 초동수사는 군에서 하고?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지금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군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군은 초동수사권이 있고 귀책사유가 군에 있을 때는 경찰로 바로 이첩하는 거고 군에 귀책사유가 없이 단순 사망일 때는 군에서 종결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경찰에 통보하는 것. 지금 이 두 사례가 극명하게 하는 거라서 대통령실에서 ‘군에 초동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2개 사례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실제 그렇잖아요. 32사단은 귀책사유가 발견이 안 돼서 군에서 종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사망 사고가 나면 초동수사는 군에서 하고 초동수사를 해 보니까 귀책사유가 군에 있다 하면 바로 경찰에 이첩을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군은 수사권이 없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얘기가 이 2개 사례에 있는 겁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합참의장님, 오물풍선 지금 계속 수시로 날아오고 있는데 두 달 전에 제가 확인하기로는 오물풍선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아직도 군에 없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만들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매뉴얼이 없는 게 아니라 오물풍선 부양, 살포하기 전에 대비지침을 만들어서 예하에 배포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작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두 달 전에 최초 오물풍선 날아왔을 때 합참에서 장군급이 와서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제가 매뉴얼을 체크했는데 그때까지는 군에 오물풍선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없다고 보고를 받아서 ‘빨리 매뉴얼을 만들어라’. 사안사안 케이스마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었냐 이거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러니까 대비지침에 나간 그 자체가, 기본적인 절차로 대응하는 절차가 정부하고 민간하고 협조하는 관계까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김병주 위원** 그걸 언제 만들었어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오물풍선이 살포되기 전에 만들어 가지고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살포하기 전 언제 만들었어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것은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대략 그러면 올해 만들었나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오물풍선 날아올 것을 알고 미리 만들었어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가능성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전에 배포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합참의장하고 합참 참모 보고가 왜 서로 말이 다른 거예요? 오물풍선 최초에 떨어졌을 때는 저한테 와서 매뉴얼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매뉴얼을 빨리 만들어라 했는데…… 합참의장이 아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매뉴얼이 없었고 그 이후에 오물풍선에 대한 대비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대비지침은 매뉴얼이 아니에요.

매뉴얼은 상공 몇 미터에 있을 때는 GOP 라인에서 일단 1차 요격을 하라, 대공화기로 하라 뭐 이런 것이고 도심권에 왔을 때는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하지 마라 또는 어떻게 하라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나온 게 매뉴얼인데 대응지침 하나 덜렁 보냈다고…… 그러니까 지금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말이 다르고. 대통령실 말 다르고 군 다르고.

이것 빨리 구체화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지침은 다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검토하겠지만 오락가락하는 것은 없고 지침 정확하게 원점 살포에서부터 추적해서 회수까지의 기본지침이 하달된 대로 군과 정부 그다음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요격에 대한 지침은 안 내려갔나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요격은 근본적으로 요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 그 요격 자체는 요격했을 때, 앞에서도 설명이 됐지만 낙하됐을 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두 번째는 적과의 교전 문제. 낙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최적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가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추적해서 낙하된 이후에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대통령경호처에는 레이저……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하나만요.

경호처에는 레이저 무기를……

○위원장 성일종 정리해 주시지요.

○김병주 위원 그러면 합참차장은 계속 있게 하시지요.

○위원장 성일종 예.

○김병주 위원 이것 계속 따져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지금 누구 있게 하자고요?

○김병주 위원 합참의장.

○위원장 성일종 아니……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것은 지금 1분만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그러시지요.

1분 더 드리세요.

.....

○김병주 위원 얼마 전에 경호처에는 오물풍선을 요격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비밀이라서 제가 정확히 몇 대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배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것을 요격하려고 배치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오물풍선을 요격하기 위해서 레이저 무기를 배치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김병주 위원 배치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제가 아는 바로는 오물풍선을 요격하기 위해서 레이저 무기를 배치하거나……

○김병주 위원 오물풍선 플러스 무인기 다 비슷한 형태인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지침이 아니라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레이저 무기 체계입니다.

오물풍선에 대한 요격은 저희들이 테스트도 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오물풍선은 날아올 때 관측하고 내려오면 회수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일반 민간인도 해요. 군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정확히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 절차를, 매뉴얼의 형태를 어떤 형태로 가지느냐? 규범화시키느냐 예규에 넣느냐 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대비지침으로서 그것이 매뉴얼이 필요하다면 반영시켜 가지고 연말 예규 수정할 때 반영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침이 없는 게 아니고 매뉴얼이라는 게 꼭 문서화시켜 가지고 책자로 만드는 게 매뉴얼은 아니다. 전반적인 대응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저희들은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당장 해야지 연말까지 언제 기다려요.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다음에 좀 해 주시지요.

○김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회의 진행하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질의 할 때는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추가 시간을 드렸고 또 추가 시간 이외에도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가능한 한 조금씩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로 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좀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3군 총장님과 합참의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부승찬 위원 (손을 훑)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부승찬입니다.

합참의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P-518 지역에서의 비행계획 승인은 어디서 하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것은 국토부장관에서 위임돼 가지고, 장관님께 위임돼서 저한테 위임돼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대북전단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승인권자는 합참에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 위법한 행동이 되는 거네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위법에 대한 것은 합참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승인에 대한 문제를 합참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비행계획을 승인하는 데가 합참이잖아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승인을……

○**부승찬 위원** 아니, P-518 지역에서 날아다녀……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만약에 날아가게 되면, 날아 가지고 저희들이 포착을 하게 되면 관계 경찰서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통보는 하나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통보를 하는 건데,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항이 있으면 관계 경찰의 지역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통보하고 있다고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그것은 지역 군하고 그렇게 협조가 돼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여기 보면 합참에서 구두답변한 게 있어요. ‘대북전단 관련 비행신고 내역 없음. 대북전단 관련 위규비행 적발 내역 없음. 위규비행 과태료 부과 내역 없음. 의무 없음. 위규비행 의심 건 경찰, 국토부 전파 내역 없음’, 합참에서 설명한 거예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합참에서 직접……

○**부승찬 위원** 7월 29일 날이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러니까 합참에서 직접 통보했다는 게 아니고 지역 군사령관이 거기에서 접촉됐을 때는 지역 경찰에 통보를 한다는 겁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P-518 지역에 대해서는 감시 강화 안 해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감시를 한다는 거지요. 감시를 해서 표적이 포착이 되면……

○**부승찬 위원** 그러면 대북전단은 포착이 안 돼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포착이 되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통보를 안 한다니까요, 지금. 여기 한 게 없다고 지금 합참에서 얘기하잖아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합참에서 직접적으로 한 게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군에서……

○**부승찬 위원** 아니……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군단 이하 했을 때는 그 군단에서 경찰서에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합참에서 어찌됐든 승인을 할 것 아니에요? 국방부 고시가 나와 있잖아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합참에서 승인을 합니다.

○**부승찬 위원** 예, 국방부 고시가 있어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맞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P-518 지역에 대해서 감시태세 강화한다면서요, 비행물체에 대한?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감시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식별이 돼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식별되니까 일부 통보 아니겠습니까?

○**부승찬 위원** 일부 통보한 게 없다고 7월 29일 날 합참 구두답변이 있다니까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승찬 위원** 7월 29일 날,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대북전단 관련 비행신고 내역 없음. 대북전단 관련 위규비행 적발내역 없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됐어요.

그리고……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기다려 보세요.

지금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가 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

○**부승찬 위원** 있어요, 없어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계속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있어요, 없어요? 묻잖아요, 지금.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20년 7월에 위규비행 발생 시 조치 절차가 있어요, 합참에서 조치해야 되는 절차가. 거기에는 뭐가 됐냐면 ‘위규비행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규비행자의 신변을 확보하여 관할 경찰에 합동 현장조사를 의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합동 현장조사 결과’, 합동 현장조사라는 것은 경찰하고 군이 같이 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불법 사용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에게 위법에 따른 조치 의뢰하고 경찰의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3항, ‘합동 현장조사 결과 또는 경찰 조사 결과가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부대 또는 관할 지역의 경찰은 지방항공청으로 위규비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비행승인 안내서, 법무부 법무관실 검토를 마친 비행승인 안내서가 합참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이건 직무유기지요.

그러면 P-518 지역에서 아무거나 비행물체 마음대로 날려 보내도 조치 안 해요?

아니, 우리 군뿐만 아니라 북한 오물풍선, 다 감시 체계 강화해서 볼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대북전단을 보내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합참에서 할 것을 안 한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국방부장관 고시, 국방부 고시 제2022-6823호 이렇게 해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에 대

한 권한 위임 고시' 해 놓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항목을 다 써 놓고 안 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1분 정도 더 드리면 다 마무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석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1분 정도 더 쓰시지요.

○**부승찬 위원**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비행승인 안내서 있고 국방부 고시 제2022-6823호 다 해 놓고 고시까지 다 해 놓고 그리고 합참에서 설명까지 다 해 놓고…… 어찌 됐든 위법한 거고, 직무잖아요. P-518 지역에서 비행과 관련된 것은 직무잖아요. 다 없대. 이런 지침과 안내서 있고 고시가 있으면 뭐 합니까? 뭐 합니까, 이것 만들지를 말든가. 고시는 왜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총장님 답변할 것 있으신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위원장 성일종** 말씀하시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P-518 지역에 대해서 초경량체를 띠우거나 했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권자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게 떠 있는 것이, 풍선이라는 것이, 전단 그 자체가 불법이다 아니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나왔던 것처럼 무게라든가 이런 게 나왔잖아요.

○**부승찬 위원** 아니, 신고를 하라고 그랬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신고를 하는데 그것이 발견이 되면 현장에 있는 부대가 지역에 있는 경찰이나 파출소에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차가. 저희들이 모든 것을 법 집행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합참에서 신고를 안 받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한테 승인 요청을 했느냐, 승인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승인 요청한 것에 대해서만 해요?

○**위원장 성일종** 부 위원님 정리……

○**부승찬 위원** 감시체계 작동한다면서요. 그러면……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감시된 것을, 지역에 각 군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 군에서 있으면 관련 경찰서에 통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유용원 위원님.

의장님 포함해서 3군 총장님한테만 좀 해 주세요.

○**유용원 위원** 육군참모총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주 위원님께서 질의 있으셨던 부분인데 32사단에서 안타까운 수류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안장이 못 되고 벽제 봉안소에 봉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CCTV나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아직까지 순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유용원 위원** 혹시 이게 이런 자연이 벌어지는 게 채 상병 사건 때도 이슈가 된 지난 정부의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을 경찰에 넘겨야 되는지 아니면 넘긴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판단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실제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사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인데 이런 절차상 문제로 순직 결정이 자연되는 것은, 군사법원법 개정이 과거의 불행한 사건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측면이 있다고 저도 보지만 이런 부작용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해당 병사가 병무청에서 심리상 좀 문제가 있어서 배려 용사로 선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맞습니다.

○**유용원 위원** 제가 듣기로는 병역 자원 부족에 따라서 과거 같으면 면제 또는 다른 현역으로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상당수가 지금 현역 판정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현역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선 부대 지휘관들이 상당한 지휘 부담을 갖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육군을 지휘하시는 총장님 입장에서 그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위원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현역 장병들이 많은 부분 부대 관리 소요, 개인적인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령적으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 또 부대 차원에서도, 신병교육대 차원에서도 조기에 퇴소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합참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이른바 오물풍선이 우리 레이더로 탐지가 가능합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레이더로 탐지되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TOD라든지 이런 관측 수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광학 장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탐지가 어려우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요격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 무기는 최근에 언론에 공개된 것은 테스트의 거의 마지막 과정에서 공개된 거지 배치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테스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유용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합참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7월 30일 날 혹시 동아일보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 강대식 위원** 거기 보면 우리 정보 당국이 최근에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 규모를 8400명으로 재평가했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들어 본 적 있습니까?
-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들어 봤습니다.
- 강대식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정보가 국정원이 발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 발표 사전에 국정원과 합참이 협의를 했었습니까?
-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이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긴밀히 공조해 가지고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강대식 위원** 그래 협의를 했었습니까?
-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협의가 다 이루어진……
- 강대식 위원** 아니, 발표 전에.
-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발표에 대한 협의는 안 했는데 이것 평가에 대한 인원수 평가나 이런 것은 공동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강대식 위원** 그래서 이제는 합참도 전력 규모가 8400명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재평가를 합니까?
-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공동으로 평가해 가지고 동일한 수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강대식 위원** 장관님이나 합참의장님, 정보사에 의한 기밀 유출에서 보듯이 사이버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기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려고 하면 안보실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과기부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동의합니다.
- 강대식 위원** 합참의장님은요?
-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동의합니다.
- 강대식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혹시 합참의장님 또 3군 참모총장님들한테 질의하실 건가요? 아닌가요?
- 추미애 위원** 괜찮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 위원** 의장님, 5월 28일부터 열 차례에 걸쳐서 오물풍선, 지금 쓰레기풍선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 몇 개가 날아왔고 몇 개가 떨어졌지요?
-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한 3600여 개……
- 허영 위원** 3600여 개지요?
-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 허영 위원** 실제적인 민간 피해 사례도 수집을 하고 계시지요?
-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종합안을, 통보를 받아서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 허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어떤 쓰레기와 오물이 들어가 있는지도 분석을 다 하셨고.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허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의장님 생각하시기에 북한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단순한 그러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새로운 대남 공격 수단을 만들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는지……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남남 갈등과 내부적 단합 여기에 중점을 두면서 오물풍선을 이용한 우리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려는 의도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피로도…… 저는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3600개나 날리면서 대통령실 경내와 국회 인근, 지금 떨어진 곳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모르겠지만 주요한 대남 시설에 목적을 두고 정확한 위치에 떨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격 수단에 대한 데이터를 북한에서 축적 중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지금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하는 것이 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에 우선을 두고 대응을 하고 있고 쓰레기풍선을 날리는 개수 라든가 증가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하우는 증가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다행히 그냥 쓰레기로 판명이 됐지만 거기에 새로운 공격 수단을 탑재하게 되면…… 이것을 서고동저의 기압계도 다 분석을 해서 날렸어요. 그리고 정확한 경내에 투척이 되었고 만약 거기에 무기를 탑재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공격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지금 장관님께서는 격추를 못 한 게 아니라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안 하실 예정입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지금 저희들이 평가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안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이, 낙하 후에 회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허영 위원 공격을 해서, 격추를 해서 떨어지나 그냥 자동적으로 떨어지나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민간 피해는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넘어왔을 때 격추하는 건 저는 더 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쪽에서 날리는 신호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에서 날리는 서고동저의 기압계 부분들이 딱 패턴화되어 있어요.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헬기를 띄워 가지고 비무장지대 내에서 격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격추를 많이 말씀하는데 격추에……

○허영 위원 그러니까 날리는 시점을 예측을 하고 비무장지대 내에서, 그 밖에서 헬기를 띄워 가지고 격추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 방법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여러 전문가들이 그 방법이 있다……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영 위원 왜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왜냐하면 어쨌든 사격을 하게 되면 비과될 때 탄은 북한으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북한이 의도하는 도발 빌미를 주는 가능성이 있고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그 탄이 헬기 내에서 쏘는 기관총이나 저격총이라고 한다면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 정도는 비전문가인 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그냥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것이 넘어오기 전에, 그것이 무기화된 풍선으로 진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전에 방지할 수 있는 매뉴얼과 대응 지침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전술 토의도 하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보다는 안전하게 추적 관리해서 공조해서 회수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거기에 공격 무기를 실어 가지고 투하해 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완전한 공격 행위입니다. 공격 행위에 대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들에게 감내할 수 없는 대가가 갈 것이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을 써 가지고 지금 이 비열한 쓰레기를 가지고 무기화하겠다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낫다. 하지만 군에서는 대비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허영 위원** 철저하게 낙하 지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위원장 성일종** 허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허영 위원** 이런 것들 철저하게 분석해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 위원님, 총장님들한테 질의하실 건가요?

○**임종득 위원** 의장님한테 좀 질의를……

○**위원장 성일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입니다.

방금 의장님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합참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풍선을 가지고 도발을 할 때의 위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미사일로 해 가지고 펀포인트로 공격해 가지고 타격할 수 있는 시기에 전시에 사용하겠다고 풍선에 포탄을 달아 가지고 보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가능한 방법은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쓸 수 있는, 저런 치졸한 행위까지 하는 북한으로 봤을 때는 하는데 그런 공격 행위까지 한다는 것은 어렵다. 펀포인트 공격할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다면 풍선을 쏘거나 화력을 쏘거나 도발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굳이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쓸 수 있느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임종득 위원** 저는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모습 속에서 기존과 좀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도발과 관련돼서 되게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우리의 강한 대응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보였는데 지금 DMZ 라인에서 풍선을 쏴 떨어뜨리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무기체계로도 불가능하고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동의합니다.

풍선을 내려오는 거기에 사격을 하자, 대공포를 쏘자 이런 의견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2000개가 내려오는 풍선에다가 대공포 사격을 하면, 그것을 생각을 해 본다면 2차 대전 대공포 사격하고 같은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굳이 저희들이 선택할 방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회수한 풍선에서 타이머라든가 아니면 조정하는 기계라든가 장치들이 있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지금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데 타이머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노하우는 조금씩 발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폭발하는 타이머라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질문하는 내용 중에는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보내는 조정 기능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유도 기능을……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질문에, 유도 기능은 없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날아오는 풍선이지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 애드벌룬 띄워 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훌러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걸로……

○**임종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풍선이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것하고 아까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1.5km에서 2.5km 상공에 있는 풍선을 요격을 해서 떨어뜨렸을 때 피해가 같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틀립니다. 아까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km에서 저희들이 적게는 2km에서 한 4km에서 6km 되는 것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라고, 볼링공 그림에 나온 것처럼 그런 공이 떨어졌을 때 미치는 것은 모든 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대통령실 쪽에 떨어지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깜깜이다, 뚫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오는 것을 보고 요격을 했을 때 어느 쪽에 떨어집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용산에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도심 지역 아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 지역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크게, 뭐 그것은 뭐 상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랬을 때 군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추적 감시하면서 떨어지는 위치에서 경호처하고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즉각적으로 탐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있는가 확인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과장해 가지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목소리를 좀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합참의장님, 더 말씀하실 것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예, 사실 오물풍선이 날아올 때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남남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 내부에서의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군은 차분하게 흔들리지 않고 국민 보호에 최우선을 하면서 지금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이나 모든 분들이 차분하게 대응해 주는 것이 사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어 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일종 허 위원님, 더……

○허영 위원 신상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이석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허영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합참의장님 또 세 분 총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우리 합참의장님을 비롯해서 삼군 총장님들은 아주 엄중한 안보 상황을 잘 인식하고 또 이 상황을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와 또 그분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일에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를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우리 김병주…… 잠깐만 정돈하고 할까요, 이석하시고?

○김병주 위원 아니, 잠깐 이석에 대해서……

사실 오늘 여기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육해공군 총장이나 합참의장 이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당 간사와 또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서 좀 동의를 한 면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절대 이석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합참의장이 여기 있다고 지금 상황 조치가 안 된다 그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합참차장은 포 스타가 또 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국방부는 오늘 또 장관님 나오셨기 때문에 차관을 대기시키고 그런 대기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니까 군에서 우리 국민의힘 간사나 위원장님한테 보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차후에는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 드립니다.

오늘은 좀 동의를 했지만 다음에는 그런 일은 없고, 왜냐하면 물을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허영 위원 신상발언 먼저……

○박범계 위원 예, 신상발언 먼저.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저……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이석하시고 하시겠습니까?

○박범계 위원 아니요, 들으셔야 될 내용 같아 가지고……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우리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아니, 신상발언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제 질의 이후에 임종득 위원께서 마치 제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그리고 무모한 그런 주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비전문가의 무모한 그런 억지 주장처럼 표현을 하셨는데 제 질의의 요청은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지기 전에 거기서 뭐 격추를 하라는 얘기를 저는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대응 지침과 매뉴얼을 통해서 넘어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매뉴얼을 좀 만들라 이런 지침이었고, 3600개나 내려오는 이러한 새로운 무기화된 풍선이 될 것에 대한, 점점 점진화하는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 잘 분석하셔 가지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지요. 이것을 마치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또 비전문가의 정말 허무맹랑한 그러한 주장처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저기에 대해서 코멘트 한번 하시지요, 위원장님! 우리 허영 위원님……

○위원장 성일종 우리 경험 많으신 박범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먼저 말씀하시고요. 제가 또 이석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안보 전문가, 안보 비전문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영 위원님의 신상발언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전에 법사위에 있을 때 군사법원 관할이니까 국감을 군사법원에 국방부 갑니다. 그럴 때 합참의장님이나 삼군 총장님이 잠깐 인사만 드리고 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오늘도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국방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의 장인 국회에서 합참의장님이나 삼군 총장님이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좀 듣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과 같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과정이 일선의 현장에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야말로 지금 국회방송에서 생방송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고 있는데 이 시청을 통해서 합참의장께서 안보관이 철저하고 준비가 만만하다라는 그러한 발언 자체가 굉장히 좋은 발언이잖아요. 그것이 갖고 있는 안보태세에 대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보통 크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김병주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일선의 현장에 임해야 된다는 그러한 과거의 그런 식의 논리로 이 국회에서 국방위에서 주고받는 질의에 당연히 이석하는 그런 관례는 깨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저는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군사기밀 유출 건이라든지 하극상 논란과 관련해서 장관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는 아마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 성일종 저기 박범계 위원님, 곧 질의를 드릴 거거든요?

○박범계 위원 질의 아니에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보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대비태세 대책들을 세우는데 지금 하극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자꾸 그렇게 보안, 보안을 강조하면서 마치 ‘위원들은 몰라도 됩니

다. 우리가 다 잘하고 있으니 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라는 태도로 답변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정보든 무엇이든 간에 만약 우리 국방위도 비공개로 할 수 있지요, 정보위처럼. 그래서……

○위원장 성일종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 식의 우리 국방위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깊은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주신 말씀 잘 저희가 운영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각 위원님들이 의견을, 다 생각하는 관점도 틀리고 또 살아온 배경도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의견들을 저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안보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은 틀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존중하면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두 간사님께서 협의를 해 주시고요. 또 아무래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이 현장에 있는 것이 저는 그게 상당 부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또 국회가 더 소중하고 국민이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김병주 위원님이나 박범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 우리가 좀 더 회의 운영에 참고를 해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 가면 현장에서 각 총장님들한테 충분히 또 질의할 시간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양당 간사님께서 잘 이렇게 두 분이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합참의장님, 세 분의 총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병주 위원 한 10분 쉬었다가 하시지요.

○위원장 성일종 그럴까요?

○강대식 위원 10초만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우선 이석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면……

○강대식 위원 아니, 이석하라고 하고.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이석하시면서 우리 강대식 간사님 한 10초 말씀하시고 정회를 좀 하고요.

○부승찬 위원 아니, 저도 이석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위원장 성일종 저한테요? 그러면 말씀하시고……

○강대식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성일종 좋습니다. 아주 모양새가 서로 이렇게 야당한테 먼저 배려하고 좋습니다.

○부승찬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요 답변 중에, 우리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우리 의장께서 '어리석은 행위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저는 그 어리석은 행위라는 게 그러니까 허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다그치는 과정에서 '어리석은 행위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거든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한테

저렇게 당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군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탈레반에서 철군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압도적인 힘, PGM, 압도적인 첨단 과학기술을 가진 무기체계가 그런 재래식 허술한 무기체계에 당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모든 게 무기가 될 수 있지요. 그런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리석은 행위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저는 군령을 이끄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유감스러운 표현이다. 그래서 유감 발언을 꼭 들어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성일종 우리 강대식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병주 간사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들께서 우리 여당에 빨리 이석을 부탁했다 이런, 전혀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이때까지 관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관례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은 아니다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간사님 감사합니다.

우선 저 합참의장님하고요 총장님들 이석하시고 잠시 정회하고 또……

○김병주 위원 합참의장님, 유감 표시하고 가세요.

○부승찬 위원 유감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부승찬 위원님.

○김병주 위원 그것은 다른 문제지요. 그 표현을 잘못했으면……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허영 위원님의 말씀한 것을 어리석은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북한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위다,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승찬 위원 아니, 위원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의장님, 임종득 위원님의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격추도 해야 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이것을 무기화할 수도 있다라는……

○위원장 성일종 아니,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표현을 썼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예, 알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그 표현 자체는 아무리 그래도……

○위원장 성일종 아니아니, 부승찬 위원님, 지금은 좀 이석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뇌부에서도 그런 발언을 할 때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그런 어리석은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부승찬 위원님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이석하고 제가 의사진행발언, 이석하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네 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이석하고 의사진행발언 하고 10분간 쉬셨다 하시지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 성일종 정회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지금 하실래요?

○김병주 위원 지금 하고 쉬고……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이 잘하세요.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이제 3군 총장님하고 합참의장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동안 못하신 분들, 장관이나 다른 분들한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립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현안질의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 그거지요. 그런데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아까 보면 허영 위원님께서 전방에서 요격 오물풍선 해서 하면 어떻나 하니까 국민의힘 위원 두 분이 웃고, 비웃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자세들은 아주 안 맞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질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마치 야당 전체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매도하고 이런 것은 매도지요. 비판은 있지만 비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자기 생각과 비판이야 뭐 얼마든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사실 저는 그때 신상발언을 하려 하다 안 했는데 인신공격성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임종득 위원이나 강선영 위원이 처음 국회에 와서 하다 보니까 마치, 예를 들면 ‘4성 장군 출신이’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 또는 ‘국회의원 해 본 사람이’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인신공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임시가 왜 저러냐 이런 것은 인신공격이지요.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때도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저를 똑 부러지면서 보면서 인신공격하고 하는데, 저는 아마 처음이라서 아직 잘 모르구나 해서 그때 참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좀 유념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와 관련된 진행이고, 그다음 여기에서는 비판은 하되 비난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위가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책을 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봤을 때 그것이 턱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지요. 국방이라는 것은 만약의 경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제기하는데 그것을 비웃듯이 또는 마치 야당의 정치공세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 경험 많은 간사님이나 성일종 위원님이 처음에 오신 분들 그런 교육이나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장으로서……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저도 얘기해야지요.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한기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 간사님이 유치원들 데려다 놓고 훈시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심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국방을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 국민들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인데 마치 우리 여당 위원들을 싸잡아서 훈시하는 것처럼 하는 자체가 본인이 너무 오만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위치에 계시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으로 계속 한다면, 우리 국방위원회가 무슨 여기 장관부터 앉혀 놓고 장관님한테 질의는 얼마나 했어요? 전부 우리끼리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래서는 제가 봐서 앞으로 22대 국방위원회가 잘 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좀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까지만 의사진행발언 듣고 제가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조금 전에 김병주 위원께서 인신공격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 보셔야지요.

제가 어렵게 국회의원이 되고 국방위에서 첫 발언하는 그 순간 제 발언을 처음부터 막았어요, 그것도 큰소리로. 그것은 예의에 바른 거고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내가 의사진행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용하라고 하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것 다 지금 녹취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라고 두 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부사령관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국회의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진짜 김병주 위원이 그 이후에 한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신공격은요 유튜브에 나가 가지고 저보고 혼이 나갔다고 얘기를 의원들끼리 나눴대요. 그것을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이 김병주 위원이 군 모습하고 변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많이 아팠던지 강선영 위원에 대해서 정말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혜택을 받고 진급했다, 아니면 못 했다,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게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국방위원회입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대안을 내고 토론하는 것이 제복을 입고 있는 군인들과의 일에 있어서 국회가 중심에 있습니다.

군인들이 입고 있는 제복을 왜 우리 국민들이 존경의 마음을 보내겠습니까? 유사시에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전장에 나갈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도 감수할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그분들을 우리가 더 챙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무가 바로 저희 위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회의를 우리 국군 장병들이 보고 계십니다. 국민도 물론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다른 의견도 서로 존중해 주시고 가능하면 회의가 효

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서로의 감정선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토론과 논의를 이어 가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의사진행발언을 하다가 보면 끝이 없고 공격에 공격을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장병들과 함께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잘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서 끝내고요.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현재 우리 합참의장님과 3군 총장님을 대상으로만 질의를 한번 하셨고요. 질의를 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더 하고 난 다음에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순서에 의하면 박범계 위원님께서……

○**김병주 위원** 아니에요, 여기 김병주인데.

○**위원장 성일종**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님은 이것을 하셨고요. 그동안 안 하신……

○**김병주 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 성일종**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서로 의견이……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간사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박범계입니다.

김계환 사령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전 제 질의 때 속기록을 보니까 사령관께서 7월 30일 날 장관님께 보고드리면서 1사단장에 대해서 이렇게 직무배제를 시키겠다고 구두로 승인을 받아서 제가 파견 조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직무배제 명령이지 다른 게 직무배제 명령입니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그때 보고드리고 파견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게 직무배제 명령이에요.

또 더더군다나 김병주 간사님하고 7월 31일 날 통화하신 적 있지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범계 위원** 왜 기억이 안 나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1년 전 얘기라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범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7월 31일이 어떤 날입니까? 난리가 났던 날이에요. 대통령의 격노, 800-7070 전화가 있던 날이에요. 왜 기억이 안 나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병대사령관을 지금까지……

그날 김병주 간사, 제가 오늘도 또 물어봤습니다. 그날 김계환 사령관이 원래 국회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화통화로 갈음해 가지고 지금 업무를 분리시켰고—임성근 사단장 얘기하는 겁니다—보직해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전화통화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비겁해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저는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기억 안 난다고 말씀드렸지 비겁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위원** 나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또 하나 묻습니다.

군사법정에서 박정훈 대령 공판에 증인으로 나가신 적 있지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내가 아까 오전에 물었던 질문 내용이에요. ‘정상 출근을 장관이 지시했다’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답하세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역시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다 사실관계입니다.

2개의 이율배반이 있어요. 어떤 이율배반이 있느냐, 대통령의 격노 전화라는 그 전화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7월 30일 날 이종섭 장관이 총장들 결재라인을 거쳐 가지고 정상적으로 박정훈 대령이 수사한 결과에 대한 결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던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사령관 표현처럼 사의도 표명했고 사령관 말씀처럼 장관과 구두보고하면서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승인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갑자기 직무로 복귀하고 정상 출근해라 이런 이율배반이 있었습니다.

이 이율배반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800-7070 이 전화가 없었다면 장관 스스로 내가 한 결재가 틀렸구나, 사령관 스스로 직무배제를 전달한 것이 틀렸구나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바로 이 전화, 대통령의 이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결재가 다 됐던 사건에 대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책임을 물어 가지고 직무배제명령을 하고 분리조치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불과 40분 만에 대모순 관계, 역전 관계가 생긴 겁니다. 40분 만의 이율배반이에요.

딱 한 가지만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800-7070. 이 전화가 없으면 다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전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율배반이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그 부분은 수사 증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전가의 보도예요.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 증인 사안이다.

그러면 사령관은 이 나라의 안보와 이 나라 젊디젊은 사병이, 간신히 아들 본 그 엄마의 아픔을 뒤로 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기억 안 납니다?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채 해병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저나 해병대 전 장병은 정말 뼈아프게 더, 10배 이상 갖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무상 잘못된 행동과 직무상 잘못된 명령과 이율배반적인……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해 주시지요.

○박범계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두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이따가 안 하실 겁니까?

○박범계 위원 그러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고 국민께 참회하는 그런 발언을 해야지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말 못 한다, 이것이 진심으로 채 해병의 순직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령관의 자세입니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사령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실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계환 사령관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을 박선원입니다.

제가 굳이 ‘존경하는 사령관님’이라고 여겼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서 계시고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윗사람이 잘못된 지시 하지 않았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책임도 안 지고 가운데 서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한 가지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군령에 해당합니까, 군정에 해당합니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어느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박선원 위원 지금 채 해병을 수사하고 자료를 졌다가 다시 가져오고 이런 전체 과정 말이에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제가……

○박선원 위원 군령은 아니지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예, 그 부분은 군정이고……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됐습니다.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그다음에 항명죄와 관련된 부분은 군령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박선원 위원 지금 군정이고.

지금 평시입니까, 전시입니까? 지금 평시지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평시에 군정권은 법대로 집행돼야 되는 거지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모든 것은 다 법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심지어 전시라 하더라도 법에 기초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 이지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예, 충분합니다.

다음,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장관께서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셔서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지휘권이 있느냐라는 전현희 의원 질문에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장관을 통해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박선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대로 또 해도 되겠네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의 일반적인 설명을 이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박선원 위원** 직무는 채 상병 사건 수사였는데 장관을 통해서 국군통수권 행사하는 것 적법하다. 그리고 그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가 맞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이 일이……

○**국방부장관 신원식** 항명죄가 핵심이고 수사와 재판……

○**박선원 위원** 또 이 일이 발생하면, 장관께서 만약에 이런 외압 같은 지시가 내려오면 통수권이다 해서 따르시겠다, 적법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니지요. 제가 그때 박범계 위원님, 전현희 의원님, 마지막 김병주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그게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건 아니시지요? 다음 질문 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불법이고요 평시 군정권 행사는 법대로 절차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멀쩡히 생존해 계시고 자유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장관을 통해서 국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거는 절대 불가합니다.

○**박선원 위원** 군정이든 군령이든 안 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박선원 위원** 작년 7월 30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02-800-7070 번호로 전화받은 직후에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 보류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런 지시 할 수 있는 사람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국군통수권 차원에서 보면 국방부장관께 지시할 사람은 누구지요? 통수권자밖에 안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박선원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장관님, 지금 제가 듣기로는 채 해병 사건 보고도 안 받고 들여다보려고도 않는다 그러면서 국회에 나와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통수권 없는 사람이 국군통수권을 행사했다 이거는 국정농단이 되겠지요? 장관께 지시해서 수사서류 이첩 보류하라 했으니 그것이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면 국정농단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전화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장호진 안보실장도 자기들이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당 번호 사용자가 이종섭 국방부장관 외에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전화 걸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7월 29일 국회 정보위에서 박지원 위원이 물었습니다.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에게 물었습니다. 02-800-7070 대통령 전화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전화는 대통령 전화 아니고 받지도 않았다, 결국 제가 다 대답을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조태용 안보실장은 02-800-7070이 대통령 전화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신호가 왔어요. 대답 안 한 거예요. 전화가 왔다는 기록은 있지만 받지 않았다고 국가안보실장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전화인지 그 외의 다른 분의 전화인지 알아보고 아, 저거 대통령 전화 아니다 해서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님께서 국군통수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아닌 분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02-800-7070으로 받았다.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정리해 주시지요.

○박선원 위원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왜냐하면 추가질의가 또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선원 위원 그래서 국군통수권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대통령이 아니신 분에 의해서 전화를 국방부장관부터 여러 분이 받으셨는데……

○위원장 성일종 박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박선원 위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국군통수권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할 성격도 아니고 상황도 모르고 그다음에 가정을 해서 묻는 말에 대해서 제가 적절히……

○박선원 위원 아니, 증거를 제시했고요.

○위원장 성일종 박 위원님!

○박선원 위원 상황을 모르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위원장 성일종 박 위원님 다음에 추가질의 좀 하시지요.

○박선원 위원 장관께서는 상황을 모르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저는 그때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제가 주질의는 여유 있게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짤막 짤막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하실 때 또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예,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장관님,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를 대리해서 불법 활동하다가 연방수사기관에 기소됐지요? 이걸 보면 안보와 보안과 관련해서 우방이 있을 수 없고 엄격한 그런 잣대를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2011년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채집을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왜 역대 박근혜·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를 다 관통하면서 13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이걸 가지고 정보원을 노출했을까요?

제가 보면 최근에 정부 여당에서 핵, 핵, 핵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미측에서 이런 우려를 압박하려고 이 정보원을 노출시키고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 연유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알지도 못하고 적절히 대답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훌러간 걸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자위대와 또 주일미군 사령부가 합쳐서 지금 통합 극동사령부를 창설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도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설계까지 보이고 있잖아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거는 전혀 처음 듣는 소리고 주일미군을, 통합사령부를 미국과 만들었지 자위대하고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 설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네트워크나 우리가 전략사령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이런 시나리오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한미일 동맹으로 훌러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미국의 MD 소스에 편입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는 이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장관은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저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공감대 위에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되는데 행정부 단독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규백 위원** 그것을 차치하기 이전에 지금 자위대가 일본 사령부, 미 사령부에서 극동사령부로 창설돼 가지고 NATO 형식의 환태평양을 기하여 가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장관의 생각을 좀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한미일 동맹이 되려면 한일 간의 동맹이 선행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일은 상당 기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위원** 전작권 환수가 지금 상당히 미온적으로 되고 있지요. 보수 정권의 고유한 특성이라 하더라도 전략사령부나 유엔사에 관해서 정책을 보면 현 정권 안보 정책 기준이 지금 제대로 설정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작사·공작사·해작사가 지금 제 역할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안규백 위원** 그런데 한미연합사가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것인

데 굳이 이 전략사를 창설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전략사는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전략무기에 비해서 지금 현저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 있었던 워싱턴 선언 이후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실제로 작전사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체형 확장억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맥락에서, 한미일 맥락에서 지금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병력도 줄어들고 있고 지작사·해작사의, 각군의 전략무기도 다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 다 하고 그러는데 이 한반도의 작전 환경에서 미국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도 아닌데 굳이 전략사령부 창설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가 한번 토론도 해 보고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전략사령부는 아시다시피 사실 2017년 문재인 정부도 이걸 하겠다고 나온 거고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돼 왔던 것이지……

○**안규백 위원** 하지만 그것이 합목적적이고 우리 군의 발전과 한반도 작전 환경에 맞지 않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스톱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작사·지작사·공작사 각군 사령관들도 제 역할과 기능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전략무기를 묶어서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받는 한국군 전력과 미군 전력을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보낼 게 있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끝까지 행사해야 될……

○**안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해작사·공작사들이 제 역할과 기능을 못 하면 모르는데 제 기능에 맞게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하나로 전략사령부로 묶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러니까 기존에 지해공 작전사들이 하던 영역 외에 우리의 어떤 다양한 전략무기가 일단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위협으로 볼 때 변하지 않은 게 북한의 위협인데 그중에서 위협의 성격 중에서 비대칭 위협, 그중에서도 핵·WMD에 관한 위협이 가장 우리한테 치명적인 위협이 됐습니다. 그걸 좀 집중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양상과 다른 전략사가 필요했다 이렇게 합의가 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이 잘 안 가는데요. 다시 한번 이와 관련해서 한기호 위원님도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20초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한 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지난해인가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인데요 이분의 ‘일본이 온다’라는 경제 관련 책을 소개를 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그런 페이스북 내용을 올리셨어요. 아마 일본이 경제를 회복했는데 우리는 계속 잠재성장을마저도 사상 최악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이웃 나라와 잘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역임했던 분의 책을 일본 경제의 부상 측면에서, 한국 경제 위기라는 측면에서 얘기하신 거를, 지금 이 군사동맹은 방금 안규백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국회에서 제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구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3분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나와 주세요.

평소에 흔히 군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계셨고요. 특히 해병대 정신은 위기에 부하를 앞세우지 않는다고 한다, 전우를 버리지도 않는다 그러한 자세이신 것 같은데 누가 이런 해병 정신을 모독하고 훼손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사령관님은 대통령 격노설 잘 알고 계시지요? 이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예, 말씀하십시오.

○추미애 위원 아니, 말을 되받아칠 필요가 없어요. 잘 알고 계십니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예, 아니요’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가적인 말 하지 마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작년 7월 31일입니다.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박정훈 대령과 통화한 적 있지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예, 통화는 한 적 있는데 시간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시간 안 물어봤습니다.

박정훈 대령과 통화하기 전에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상당히 길게 통화했습니다.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예, 통화기록 확인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리고 해병대 김형래 행정관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또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도 했습니다. 이것 인정하시지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통화기록 확인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꽤 오랫동안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그것은 법정에서도 제가 증언을 했지만 정확히, 이 관련해서 통화는 한 것 같은데……

○추미애 위원 관련해서 통화했다, 그러면 김형래 행정관하고도 통화할 때 이 관련해서 당연히 통화했네요, 바로 그 직후이니까? 그리고 해군참모총장에게 대통령 격노설 보고한 거지요? 대통령 화를 냈다고 한다.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아마 채 상병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통화는 했지 대통령 격노설에 관련해서 통화한 그것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추미애 위원 말장난합니까, 지금?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말장난이 아니라, 저한테 답변을 묻는 이유가 저는 제가 기억나는 부분 그다음에 그때 채 상병 사건이 있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 앞에 제가 아까, 언론에 격노설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그 직후에 박정훈 대령과 통화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통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격노가 됐든 짜증이 됐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과 관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련된 얘기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빼려고 하니까 자꾸 얘기가 꼬이는 거예요, 말이 많고.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저는 지금까지 진술하면서 법정이나 공수처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도 아닙니다.

○**추미애 위원** 고위참모회의 기억나십니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저희 자체 회의는 있었지만 고위참모회의는 없었습니다.

○**추미애 위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박정훈 대령은 고위참모회의 시에 사령관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격노설에 관해서.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이윤세 전 공보실장, 문연철 방첩부대장 등 함께 들었다고 하니까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주장한다면, 일대일로 조용히 들었다라고 한다면 부인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 말이 더 진실에 가깝겠지요.

그리고 차관 지시사항이다라고 하면서 박정훈 대령에게 ‘죄명, 혐의사실, 혐의자 빼라. 왜 해병대는 말을 하면 안 듣느냐’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수사 중인 사항으로 저는 공수처에서 다 답변드렸고 그걸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수사 중인 사항이다?

그러면 참고하십시오. 신범철 국방차관은 ‘왜 해병대는 말을 안 듣나라는 취지의 발언은 했을 수 있다’라고 시인을 했군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그런 것 제가 법정에서……

○**추미애 위원** 남의 기억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위원님……

○**추미애 위원** 오리발이 다 통하지는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8월 2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만난 적 있지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항명죄 수사하기 위해서 해병대사령부에 왔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추미애 위원** 항명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항명죄 수사하기 위해서 해병대사령부에 왔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서?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그것 수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대상자가 저였기 때문에 저를 수사하러 왔던 겁니다.

○**추미애 위원** 그래서 그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검찰단장은 그냥 저를 수사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고……

○**추미애 위원** 수사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고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검찰단장은 잠시……

○**추미애 위원** 얼굴만 보고 헤어졌습니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아닙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항명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잠시 만났던 거고 이후에는 검사를 통해서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만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라고 얘기 나눴어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단장이 항명죄와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령관하고 차를 한잔 먹었고 이후에……

○**추미애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못 알아듣습니까?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왜 자꾸 엉뚱한 말을 하면서 회피하십니까? 정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추미애 위원** 군복 입고 계급장 달고 그 자리에 서 계시면서 정직하지 않아요. 자꾸 엉뚱한 말……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제 부하들도 분명히 다 보고 있는데 계급하고 직책에 관련돼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래서 해병대 정신은 위기에 부하를 앞세우지 않는다,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위원장 성일종** 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추미애 위원**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위원님께서 해병대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평생 해병대 명찰을 달고 해병대에 소속해 있는 제 정신이 더 해병대 정신에……

○**추미애 위원** 부하들 앞에서 좀 당당해지시라는 말이에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지금까지 정정당당하게……

○**위원장 성일종** 자, 마무리……

○**추미애 위원** 그렇게 되지도 않는 일로 검찰단장 만났으면 ‘뭐라고 했느냐?’, ‘그때 당당하게 말했다’ 그것도 말을 못 하면서 무슨 말 합니까?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보충질의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물론 성일종 위원장님이 훌륭하신 분인지는 제가 잘 알지만 상당히 마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날아오는 것 쪘서 떨어뜨리면 속이 시원하겠지요. 그런데 우선 북쪽에서 날아올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체계가 전방에 배치돼 있는 대공포가 쓸 수 있겠지요. 그러면 휴전선을 넘어온 다음에 쏜다 하더라도 그 실탄은 어디 떨어집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신원식 북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북쪽으로 떨어지지요, 중앙분계선 넘어가서 북쪽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탄이, 대공포가 한 발만 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발을 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도발로 간주될 수 있어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휴전선을 넘어온 것을 쏘기가 곤란한 겁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정전협정 위반을 늘 북한이 해 왔는데 우리가 위반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습니다. 또 임종득 위원님이 아까 불링 하나를 가지고 비유했듯이 우리 국내에 왔을 때 풍선을 맞춰서 떨어지면 자유 낙하하는 거예요, 한 5kg짜리가. 5kg 짜리가 한 2km를 자유 낙하한다고 했을 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장관님께 새로운 방법으로 ‘이런 걸 한번 연구를 시켜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사령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사령부를 만든다는 것은 지휘체계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지휘체계의 변화가 어떻게 해서 왜 필요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지휘체계의 변화가 지금 전략사령부에서 운용할 무기들이 합참의장이 직접 운용했어야 될 무기들입니다. 그러면 합참의장은 지작사를 포함해서 육해공군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지휘를 하는 전방 상황을 포함해서 전략무기까지 다 같이 지휘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클 겁니다. 또 잘못하면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은 전후방이 구분될 수 없고 중심도 깊이, 압록강 선까지도 우리가 실제로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략사령부를 만들어서 작전지휘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 상당히 의미 있고 시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한기호 위원님 우려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점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데프콘 3·2 되면 한국군의 주요 전투부대는 연합사로 작전통제가 전환이 되고 합참의장은 수도권과 2작전사령부 후방지역에 있는 작전만 지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사로 이관하지 않고 한국의 전략무기는 직접 통제한다.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보자 마시고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의 전략무기가 늘어날 겁니다. 그런 미래를 보고 만들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북한이 요 근래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온 것 중의 하나가 북한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적대적 두 국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의 관계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변의 주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건데, 이걸로 인해서 북한이 대남 평화통일을 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던 것을 명목상으로는 해체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한기호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선 작년도 12월 달에 노동당 중앙회의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적대적 국가’라고 했고 ‘앞으로 영토를 규정

하는 헌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겁이 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해상 국경선, 그러면 영토에 대한 것이 지금 북한 헌법에는 없는데 여기에다가 영토를 규정화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하고 충돌할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영토조항을 넣겠다고 하는 것을 예의 주시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놓치면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분 더 써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냥 하시지요.

○한기호 위원 전임 위원장도 좀 혜택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아닙니다. 그냥 하시지요.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북한의 오물풍선, 우리가 북한으로 날리는 전단, 이와 같은 것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림으로써 본인들에게 더 큰 손해가 온다면 날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확성기 방송하는 건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확성기 장치도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시각매체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각매체들도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북한을 향해서 아주 해상도 높은 그러한 시각매체물을 만들어서 북한 인민군 심심할 테니까 영화도 보여 주고 또 우리의 발전상도 보여 주고 올림픽 메달 딴 것도 보여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아주 훌륭한 선전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그냥 지금 방송만이 아니라 시각매체들도 확실하게 이번에 다시 기회되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으신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이상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료 요구하셨지요?

○**허영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7월 24일 오전에 대통령실 경내에 북한 오물풍선 1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자 군 당국은 대통령실 인근 방공부대에 최근 개발된 국산 레이저 대공무기를 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 기사인데 6월 초에 충남 태안군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오물풍선에 대비해서 레이저 대공무기를 통해 가지고 오물풍선을 격추하는 시연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연회 결과에 대해서 조속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저도 자료제출……

○**위원장 성일종** 박범계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아까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저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가서 사건기록을 회수해 와 가지고 그것을 항명기록에 첨부하고, 편철하고 그 기록을 국방부조사본부로 보내 가지고 재검토를 시킨 줄 알았더니 유재은 관리관 얘기는 ‘그것은 해병대수사단으로 가서 그 기록을 가져온 거다’. 그랬을 때 이게 원본과 사본이 어떤 거냐 했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유재은 관리관이 답을 했어요.

원본이라는 게 경북경찰청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단에서 가져온 기록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두 번째, 원본이든 사본이든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단에서 그 기록을 가져온 법적인 근거가 뭔지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주신 말씀, 자료 부분들을 협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5분씩 안 줍니까?

○**위원장 성일종** 왜 자꾸 그러세요. 쭉 다 했는데……

○**김병주 위원** 아니, 아까 저는 육해공군 총장들 보내는 결로 질의를 하는 결로 그걸하고 보충질의는 별도로 이해했는데 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4분으로 해요. 3분으로 뭔 질의를 합니까?

○**위원장 성일종** 3분씩 하시고요. 그동안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또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조금씩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주세요.

장관님, 임성근 사단장 구명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종호 씨 문자를 통해서 이종호가 얘기하는 VIP,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됐다는 의혹이 지금 화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그게 사실 진위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 관련해서 세 가지 진짜 저는 이것이 사실일 거라고 믿는 것이 아주 고위 정보, 고급 정보가 그 안에 보면 한 네 가지가 언급이 돼요.

장관님이 지명을 받은 게 작년 9월 13일이잖아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김병주 위원** 지명받기 전에 인사검증을 하는데 인사검증, 언제부터 자료제출이나 통보를 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한 10일 전쯤.....

○**김병주 위원** 한 한 달 전쯤 되겠지요? 9월 13일.....

○**국방부장관 신원식** 10일 전쯤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정확.....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통상 최소한 한 달 정도 검증을 하는데, 그런 자료인데 두 달 전인 7월 13일 날 이종호는 이미 장관 교체가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국방장관 추천했는데 우리 것 될 것이다, 사실 장관님도 몰랐고 저도 몰랐는데 이미 알았고요. ‘우리 것 될 것이다’ 하는 말에는 신원식 장관님이 됐으니까 신원식 장관을 지칭하지 않나 싶은데, 이종호 씨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전혀 모르고 그 사람 자체를 저는 신뢰를 안 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고급 정보, 이건 대단히 고급 정보지요. VIP 정도나 알 수 있는 고급 정보인데, 두 번째가 해병대가 독립하는 4군 체계로 전환해서 4성 장군을 만든다는 건데 4군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4월 달쯤 대통령께 보고했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신원식** 제가요?

○**김병주 위원** 예, 국방부에서.

○**국방부장관 신원식** 4군 체제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한 적도 없고 저는 4군 체제 찬성하지 않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정과제, 이행과제를 보고하면서 했잖아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니요, 안 했습니다. 무슨 그것은..... 그런 보고를 한 적도 없고 저는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는데 4군 체제 반대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4월 달에 4성 장군이 해병대에서 나온다고 문자 공지를 국방부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알고 있지요? 4월 달쯤.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니, 그런 문자 공지를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데.....

○**김병주 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이라면 이종호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실체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막았다, 7월 30일 날 본인이 자진 사퇴를 결심했다라고 7월 31일 날 제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하고 통화할 때 확인이 됐던 거거든요. 이것은 세간이 잘 모르는 사항인데 이 사람은 알고 그래서 VIP한테 얘기하겠다, 이런 고급 정보를 아는 것은 대단히 그런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십시오, 2분만.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알았어요. 1분……

○위원장 성일종 아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1분 안 주실 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빨리 마무리하세요.

○김병주 위원 마이크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말……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이따가 재재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너무 짜셨어요, 위원장님. 1분 더 주시지.

알았어요.

.....
○위원장 성일종 제가 짜지 않은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중의 소년병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장관께서 들어 본 적이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들어 봤습니다.

○강대식 위원 정부기관에서 6·25 참전 소년병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피해를 규명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정한 것이. 약 74년 만인데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 결정문에 보면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또 실질적인 명예회복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고 현충시설 또한 위령탑을 건립해야 한다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강대식 위원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계신 영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장관님께서 우리 군의 안보 기조는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이런 자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기조가 보훈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공감합니다.

○강대식 위원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대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영웅들에 대해서 보훈과 예우를 우리 국방부가 즉시, 강력히, 끝까지 나서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보훈 사항은 보훈부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법을 발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통과를 안 하면 보훈부에서도 부대적인 의견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서해 강화도에 위치한 교동도라는 곳을 통해서 북한 성명불상자 2명이 귀순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사실은……

○강대식 위원 처음 듣는 것……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닙니다. 이미 일부 보도가 나와 있는 걸로 방금 확인했는데 현재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강대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군인지 민인지 그것도 아직 구분이 안 돼 있겠네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제가 그것을 1차 보고는 받았지만 법령상 그걸 이야기할 수 없어서, 하여튼 관련 기관의 조사가 끝나면……

○**강대식 위원** 조사가 되면 국방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발표하는 주무기관이 국정원입니다.

○**강대식 위원** 국정원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대식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국방위원회하고 관련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에 대해서 만일 관련 기관에서 정식 발표를 하면 저희가 사실은 출발 지점부터 계속 감시해서 유도했던 성공적인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게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의를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유재은 법무관리관.

아까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청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한 것과 별개로 재검토를 위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에서 기록을 가져왔다. 원본이냐, 사본이냐, 뭐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확인했고요. 일단 해병대 수사단에 원본이 있었고 그걸 조사본부가 가서 가지고 왔고 경북에서 검찰단이 인수한 자료는 사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사본이다. 굳이 8월 2일 날 즉각적으로 경북경찰청에서 원본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경북경찰청에 있었던 것은 사본입니다.

○**박범계 위원** 그게 사본이라면 사본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본부가 굳이 해병대 수사단에 가 가지고 그 원본을 확보한 이유가 뭐예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무단이첩이 됐고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변사 사건의 관할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그 관할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했고요. 1차 수사기관에서……

○**박범계 위원** 그게 아니고 경북경찰청에 사실은 기록이 이첩된, 사실상 이첩된 것이 접수 등록이 안 됐을 뿐이지 이첩된 게 굉장히, 오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 이첩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회수가 되기까지 저녁 7시까지 7시간 동안 경북경찰청에서……

대한민국 경찰의 행위가 행태가 이 모양이에요. 경북경찰청에서 고발장도 다 접수하는데 이거 접수 안 해 줬어요. 누군가 영향을 미친 거라는 말이에요, 이첩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경북경찰청은 사실상의 소유자, 보관자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판례가 있습니다만 그거를 국방부 검찰단이 가져온 거예요, 항명죄 기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이 가져온 그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겨 가지고 재검토를 시키면 이것은

완전한 너무나 명백한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검찰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경찰 아닙니까?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록을 어떻게 확보할까? 그래서 고심 끝에 아까 제가, 법무관리관이 얘기했지요?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걸 재검토하는 데 원래 소극적이었다고, 부정적이었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관리관 포함하는 회의를 통해서 재검토해라. 그러면 추가 조사하라는 말이냐? 아니다. 그냥 기록만 보고 법무관리관실에서 제공한 의견서대로 결론만 내주면 된다. 즉 임성근만 빼 주면 된 다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본부가 직접 해병대 수사단에 가 가지고 기록을 확보를 한 거예요. 아닙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아닙니다.

○**박범계 위원** 조사 잘 받고 있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박범계 위원**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부르면 언제든지 갑니다.

○**박범계 위원** 좋아요. 들어가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달 51사단에서 불행한 장병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아직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해당 사단에 특별히 잘 지시하셔서 부모님들의 아픔이 커지지 않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저기 777사령부, 특수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지요? 누가 지휘관으로 가든지 쉽게 임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820 특기 자리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11월 777사령관에 양 모 소장이 보직되었는데 반년도 못 채우고 2024년 4월에 갑자기 다른 자리로 전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충암고등학교 출신 박모 소장이 들어왔지요. 아까 정기 인사 말씀하셨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777사령관 자리를 반년도 안 돼서 갈아치우는 게 과연 정상적인 정기 인사입니까? 그 인사 장관님이 안 하셨지요? 장관님이 하신 인사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사 사태의 결과로 현 777사령관이 차기 국방정보본부장, 곧 있을 인사에서 존경하는 원 본부장님 대신 곧 갈 거다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본인이 그런 말 하고 다닌다는 말도 있어요. 동기이자 정보사령관 문 소장은 진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 때문에 본인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대통령 고등학교 후배인 현 777사령관의 경쟁자들이 하나둘씩 진급 경쟁에서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심지어 박 소장은 임기제로 진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 올라갈 것이다, 사고만 안 나게 도와달라’ 이런 말을 하고 다녀요. 장관님, 우리는 그러면 몇 달 후에 이런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충암고, 경호처장 충암고, 국군방첩사령관 현재 충암고 그리고 777에서 문상호를 제치고 올라온 박종선 국방정보본부장, 신원식 장관님은 경호처장과

특수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방첩정보 친위 체제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지요.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님의 지휘 통제 및 정보 관리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장관님께서는 이미 처참하게 무너진 군 정보 역량, 사실 이번에 광개토 어쩌고저쩌고 하는 코드네임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다 무너진 것입니다. 장관님, 이번 인사에 꼭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제가 또 박선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정면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나 지나친 억측이고요. 777사령관이 물론 중요한 정보수집 부대지요. 그런데 777사령관을 했다고 해서 정보본부장으로 연결된 사례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지금 정보본부장 하는 원천희 중장은 올 5월에 임기제 진급을 지난 봄에 했습니다. 2년간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희 정보본부장이 특별한 현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항도 없는데 왜 중간에 임기를 한다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만일 777사령관이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면 강력하게 문책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선원 위원** 원천희 정보본부장, 잘 들으셨지요?

지금과 같은 위기 국면에 우리 정보체계 재구축이 중심이 돼서 장관님 잘 보좌하시고 정보 역량을 잘 유지하시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세요.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기무사가 적폐 세력으로 지목되면서 안보지원사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1300여 명의 요원이 원대 복귀 등으로 감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상당수가 방첩요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다시 방첩지원사로 개편이 되면서 방첩 기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 등으로 해서 지금까지 증원된 인원이 한 1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유용원 위원** 이런 것 할 때, 이번에 발생한 이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은 많은 존경하는 야당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고 저도 그러한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방첩지원사의 방첩 기능 강화가 아닌가 싶고요. 그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노력하실지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우선 무너진 정보 업무 체계를 재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합리적인 외부의 감독 체계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

실 정보 부대에 대해서 이런 방첩의 위해 요소를 진단하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그동안 후퇴했습니다. 다시 복원시켜서 건강하고 튼튼한 정보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언론인으로서 비교적 오랫동안 군 담당하면서 많은 부대를 가 보기도 하고 겪었는데 저는 해병대를 춥고 배고픈 군대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가장 강한 충성심을 갖고 유사시에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군대, 부대가 해병대가 아닌가 싶고요. 이 채 상병 건으로 인해서 해병대가 이런 상황이 된 게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해병대사령관께서 지난 총선이 끝난 다음에 지휘서신을 통해서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 차다,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 이런 서신을 쓰신 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편적인 답변을 하실 기회만 가지신 것 같아서 지금 어떤 심정이시고 어떤 자세로 채 상병 사건에 임하고 계신지 충분히 하시고 싶은 만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먼저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해병대라는 이름 하나로 형제이자 같은 가족이었던 채 상병의 순직은 저뿐만이 아니라 해병대 전 장병들에게 매우 큰 아픔이자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병대는 변함없이 명령과 임무 완수를 명예로 여기는 조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대내외로 많은 꾸지람을 얻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해병대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존중까지 저하되었습니다. 분명히 잘잘못은 국가기관인 공수처와 법원에서 진행 결과들을 확인하겠지만 조직에 대한 꾸지람과 질책은 저에 대한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속해 있는 해병대 조직과 구성원들만큼은 존중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해병대는 변함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입니다. 앞으로도 국가가 명령하는 그 현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이고 해병대사령관이자 군인으로서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용원 위원** 사령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유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위원** 아까 질문에 이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이종섭 전 장관이 쓰고 계시던 비화폰 2개를 여전히 갖고 계시다고 답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계속 썼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요.

○**조국 위원**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종섭 장관의 통화 기록, 즉 KT나 SK 기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안 앱에 의한 기록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 전화기를 신 장관님이 인수받기 전에 그 전화 내역, 이종섭 장관의 그 통화 내역을

포맷하셨습니까? 포맷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저는 포맷할 이유도 없고 포맷할 줄도 모르고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국 위원** 그렇다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만약에 포맷을 했다면 그 포맷한 사람은 증거인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계시는 그 비화폰 2개에서 신 장관님의 통화 기록 말고 이종섭 장관이 썼던, 언제 누구에게 통화했는지가 확인될 수 있는 그 기록을 임의제출하실 생각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이종섭 장관의 통화 기록을 제가 임의로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조국 위원** 법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답변 다음 기회에 주시고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국 위원** 그다음에 매일경제와 아시아경제 기사를 아까 하다가 중간에 정지되었기 때문에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 기사를 보시면 ‘국내 정보기관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 네트워크를 해킹하는 과정에서’라는 말이 매일경제에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경제를 보게 되면 민간단체—이름은 읽지 않겠습니다—가 서울 특정 지리를 얘기하고 정보사 영외 사무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보사 차원의 기획 공작명이 적혀 있습니다. XXX 사업입니다. 제가 일부러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보도에서 무엇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보도에서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까 해킹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해킹을 한다고 하는 우리의 정보 수집 역량 그리고 비밀 사업명 등이,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노출돼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위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정보가 유출되었고 정보기관의 장소와 사업명이 공개되어 버렸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보안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국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살포하는 오물 쓰레기 풍선의 무게가 보통 5~10kg 정도 인 것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 위원** 우리나라에서, 국토부에서 협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인자유기구에 2kg 이상의 물건이 매달려 있으면 위법하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답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히 거기에 해당되는데, 오물풍선을 북한에서 내려 보내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남쪽에서 위로 보내는 건

데 대북전단 풍선이 분명히 2kg 이상, 보통 5~10kg인데 이 항공안전법 규제에 따라 통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법 자체가 저희 국방부 소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반이기 때문에 법에, 다르기 때문에……

○**조국 위원** 그러면 명백히 지금……

○**위원장 성일종** 조국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조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면 여기서 시간 일정 때문에 뜨셔야 되나요?

○**조국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마무리하시고.

○**조국 위원** 예, 하나만 답……

그러면 이제 질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마무리해 주시고.

○**조국 위원** 지금 현재 국군수도병원의 미인수 시신이 몇 구인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있는데 정확한 현황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위원** 가장 오래되어서 지금 인수가 안 돼 있는 게 2003년입니다. 2003년에 사망한 강 모 상병의 시신을 21년째 가족들이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1년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21년간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관님께서 가족분들과 담당 직원이든 누구든 보내서 21년째 지금 냉동실에 있는 시신을 빨리 꺼내서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장관님, 이번에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하셨잖아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부승찬 위원** 혹시 동맹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맹?

○**국방부장관 신원식**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지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고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 비준을 받아서 정식으로 국가 간의 약속으로 서명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보면 여기 보도자료를 냈어요, 7월 28일 날. 거기 보면 그냥 국회 비준동의만 없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내용상으로 보면 동맹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한미일이 공통의 위협이 있어요. 북한 그다음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를 저해하는, 중국을 겨냥하는 거지요. NATO에서도 22년 최초로 중국을 위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맹의 가장 전제 조건은 공통의 위협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동맹이에요. 제도화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격상 동맹의 개념상으로는 동맹이지요. 저는 이것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동맹이랑 다른 게 없어요. 제 의견이고요.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되겠고요.

유엔사 관련돼서 여쭐게요.

지금 언론지상이나 아까 조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방대 총장이 국방연구에 유엔사에 대한 전략적 가치와 관련된 논문도 쓰셨고 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국가 안보실에서 발간한 뉴스레터에 보면 박영준 국방대 교수 기고문이 소개되는데요. ‘유엔사 안보협력회의에 일본을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이 옵서버조차도 유엔사에 들어와서는 안 되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 학자의 견해로……

○**부승찬 위원** 아니, 안보실 발간 뉴스레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유엔사에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 2014년 7월에 일본평화헌법 9조 1·2항이 헌법 해석을 통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각의결정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리고 나서 한민구 장관이 나카타니 겐을 만나서 ‘대한민국헌법 3조상 북한도 우리 영토이니 적 기지 공격을 할 때는 한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의를 받아라’라는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카타니 겐이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것을 좀 주지해 주셔 갖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이뤄 봤으면 좋겠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한미일 안보협력은 사실은 삼국의 가장 공통 위협을 북핵 위협, 미사일 위협을 포함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공동의 안보 위협이 있지만 공동의 안보 위협이 있다고 해서 다 동맹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상 필요 외에도 그 나라 국민들의 공감대, 여러 가지 요인, 제가 예를 안 들어도 여러 가지 요인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실 겁니다. 국민적 공감대 바탕 위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저는 한참 요즘 K-방산이 뜨고 있는데 방사청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사업이 바빠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덕분에 K-방산 기업들이 살판이 난 것 같고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이 활기를 띠고 또 방산업

체가 있는 지역에 활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 방산 수출 예상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좀 도전적이지만 200억 불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200억 하니까 그림이 아마 잘 안 그려지실 것 같은데 최근 변화의 모습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이전에는 한 25억~30억 불 정도의 방산 수출을 하던 것이 21년도에 73억 불, 22년도에 173억 불 그다음에 작년에 135억 불 이렇게 뛰었지 않습니까? 이 도표에서 나타난 변화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그것이 스테이블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수출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했고 전력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수한 무기가 있다라는 게 최우선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러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의 능력, 그런 무기와 관련돼서 수입을 희망하는 나라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업체가 상당히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사청뿐만 아니고 국방부, 여러 부처가 같이 노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금융 지원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혼자 안 되는데 범정부 차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 안보 정세가 그러한 무기의 새로운 수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소요를 많이 일으킨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한국의 K-방산의 뿐을 설명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다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 이렇게 뿐을 일으키느냐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성능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이 전쟁의 특수가 마냥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있을 3~5년 정도의 방산의 뿐의 원도우는 열릴 것 같은데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들의 독트린이 바뀌었습니다.

1분만, 저 1분 아까 한 번도 안 썼어요.

○위원장 성일종 그냥 하시지요.

○임종득 위원 독트린이 바뀌어서 생산라인이 다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생산라인을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3~5년 정도 걸리는 것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이 기간에 정말 유럽이든 동남아든 관계된 국가들과 방산 수출의 관계를 끈끈히 가져 가지고 지속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유재은 법무관,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시는 동안 얘기하겠습니다.

유재은 법무관이 조금 전에 박범계 위원이 ‘수사받고 있느냐’라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부르면 나갑니다’라고 대답했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예, 맞습니다.

○안규백 위원 뭐가 그리 당당합니까? 사람은 내용보다도 태도와 모습이 중요해요. 뭐가 그리 당당합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제가 당당함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조사……

○안규백 위원 태도와 모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김계환 사령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 같지는 않지만 해병대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그리 당당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외람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규백 위원 외람된…… 당신의 책임이 큰 거예요, 지금!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제가 못한 일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안규백 위원 들어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위원님, 잠깐 시간 주시면 제가 말씀……

○안규백 위원 들어가! 어디서 앞에서 말대꾸, 들어가요!

제가 사령관한테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사령관의 태도와 모습에 진정성이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사령관께서 이 문제를 책임을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12차 방위비분담금이 5차 회의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되고 있는데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우리 국방위가 어떻게 보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봉사 문고리 잡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충분한 협상 내용을, 물론 협상 과정입니다마는 어떤 내용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 12-1차 체결된 뒤에 그때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국방 예산 인상률로 연동하지 않겠다. 이게 예전 같으면 물가상승률 2%, 3%에 연동해서 했는데 국방비 인상률만큼은 연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마지막 합의 내용의 메시지를 냈거든요. 저는 한미혈맹의 핵심 의제가 안보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방위비분담금이 굉장히 경과가 중요하고 또 우리 국방위가 들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외교 협상은 외교부 주도라서 일단 외교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고 그다음에……

○**안규백 위원**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물론 그러니까 한미의 외교적 협상을 중간보고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발표하기 전에 외교부하고 협조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끝나 가는데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건 위원장님이 원인 제공했기 때문에……

○**위원장 성일종** 안규백 위원님, 다음 질의가 없으시지요?

○**한기호 위원** 안 하실 거예요. 조금 더 드리면 안 하실 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그래요. 한 1분…… 아까 임종득 위원도 안 드려서, 그냥 좀 하시겠습니까? 원칙은 또 있으니까 그냥 하시는 것……

○**안규백 위원** 아니요, 않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이따가 재재에 질의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나 앞에 사령관이나 다, 장관님 마찬가지인데요. 이 자리가 입을 맞추고 궤변을 늘어놓는 자리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령관이 부사령관한테 지시를 내리고 부사령관이 예하 간부·장교들한테 순차 지시를 내려서 뭔가 잘못이 있어서 책임 소재를 밝혀야 된다고 칩니다. 그런데 허리를 뚝 잘라서 중간에 있는 부사령관 지시를 어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불성설이지요. 여러분 아무도 이 자리에서 수긍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정훈 대령이 누구 지시를 어겼느냐 그랬더니 종전에는 전부 비서실장, 장관 이 자리에 다 나와 가지고 21대 국회에서—여기 증인이 다 계십니다—‘국방부장관 지시를 어겼다’. 제가 문서를 들이댔어요. ‘밑줄 긋고 사령관 이렇게 고쳐 쓴 게 말이 되냐, 이 문서가’ 그랬더니—아까 질의도 했지요—다 입을 맞추어서 사령관 지시 어긴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에 예를 든 거랑 대조해 보면 그게 왜 어불성설인지 이해를 하시겠지요?

그래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우리 안 위원님한테 혼난 거예요. 그래도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 포인트는 대통령이 격노를 했고 그것 때문에 무리하게 항명사건으로 만들어 놨고 그래서 누구 지시를 어겼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와서 사령관 지시 어긴 겁니다 이러고 있어요, 중간에 잘라 가지고.

누구 지시 어겼어요?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말을 못 하니까 대통령의 불법을 염호하려고 장관 지시를 어겼다 했다가 말이 안 되고 사령관 지시 어겼다 이렇게 입을 맞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게 들통난 자리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천희 육군중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예.

○**추미애 위원** 육사 37기인 조보근 전 국방정보본부장 잘 아시지요? 올해 몇 번 만났습니까?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올해 한 번 만났습니다.

○**추미애 위원** 5월 31일지요?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날짜는 지금 기억을……

○**추미애 위원** 예,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국방부 인근에서 만찬 회동하셨지요?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예, 점심 때 만났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때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아까 언론에, 저 화면에 나온 대로 그런 연구소를 하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군사시설을 민간인에게 제공해서 공작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연구용역 수주에 도움을 주었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거기서는……

○**추미애 위원** 여기에 문상호 소장이 문제를 지적한 거지요? 민간인들하고 협력하고 접촉이 빈번하다 보면 군사기밀 유출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를 지적받은 것 아닙니까?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가능성은 있지만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협력하자라는 그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만 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미애 위원** 이 배후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있는 거지요?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그건 전혀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마치 검사들의 전관특혜와 비슷한 거예요.

저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 무리하고 민감한 대북사업조직하고 연계돼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커미션을 받는 그런 무리하고 민감한 사업조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은가,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책을 들고 다음에 국방위원회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오늘 질의하는 중에 장관님, 장군들 정보직이 그 보직에 대해서 조보근

장군과 연관돼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한번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사실이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신원식 장관님이 그럴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예. 내년도 편성하는데 참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먹는 것 가지고 얘기하면 치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사하지만 이게 군에 미치는 사기는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4년도 예산편성할 때 국방부가 간부들 급식비를 739억 원을 요구했지만 133억 원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이게 무슨 문제로 생기느냐? 우리들한테 일만 시키고 밥도 안 먹인다 이렇게 불평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관심을 좀 쓰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관심을 쓰고 있고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혀영 위원님이 예산편성하는 데 아마 간사님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간부 급식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설사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액수가 반영돼서 간부들이 이런 걸 가지고 불평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잔반처리비가 작년도에 195억 원이 들었습니다, 편성이. 이것도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취사반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주머니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취사 보조하시는 분들이. 휴일 같은 경우 숟가락으로 한 숟갈도 뜨지 않은 식판의 밥을 그냥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희 지역에 그런 분들, 유권자가 여러 분 계시니까…… 그래서 보급해 주는 쌀, 급식해 주는 쌀의 양을 국방부가 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밥을 버리는데 증식비, 특식비를 계속 편성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전향적으로 한번 다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예결위에서 간부 급식비를 포함해서 하여튼 간부와 부이사관들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감사합니다.

○**허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시트가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17명이 채 해병 관련돼서 서로 주고받은 통화내역 리스트입니다.

제가 초반기에 장관님과 김계환 사령관에게 박정훈 대령이 부하냐고 여쭤봤을 때 부하다라고 옳게 말씀을 주셨는데, 리더는 물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지만 또 부하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보호하고 조직을 보호하는 것도 상관의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 계신 장관님이나 또 김계환 사령관님이나 중요한 것은 그런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하를 보호하고 또 정말 진실과 사실에 기반한 고백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분석한 기록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기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한번 보시고 얼마만큼 통화를 하셨는지 스스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님께 이종섭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통화 사실을 질의했었는데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씀하셨는데 8월 1일 날 한국 시간 9시 47분, 현지 시간 새벽 5시 47분에 2분 25초간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초급간부 처우 문제와 새만금 군 지원 문제 등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새벽 5시 47분 사실상 기상하시기도 전 시간인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제 질의 이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보훈부의 입장이 필요하겠지만 국가유공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훈급여를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자로서의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추가적인 수입으로 산정이 돼 가지고. 이것은 보훈급여에 대해서 제외하는 방침이 맞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뒷부분 대답부터 드리면 그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인데 사실 법의 문제 또 재정 당국의 재정 여건에 있어서 재정 당국에서의 반대, 여러 가지로 해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국회에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통화에 관련돼서는 제가 거듭 밝히지만 채 상병 문제와 관련해서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아니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종섭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한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채수근 상병에 대해서는 통화한 적이 없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여당 간사하고 국방부장관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무슨 영향을 끼칠 위치도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제 진정성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안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17시23분)

○위원장 성일종 재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신 가운데에서 안건 하나 상정하려고 합니다.

소위 구성 및 명단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 간사님들끼리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김병주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강대식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추미애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 각각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 소위원장(김병주·강대식·추미애) 인사

(17시25분)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선임되신 소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 주신 김병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법안소위 위원장 임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법안소위는 우리 국방위에서 아주 중요한 소위 중의 하나입니다. 국방부가 필요한 법안도 있고 또 우리 장병들 복지를 위한 법안들도 있고 군사력 증강을 위한 법안도 있습니다.

지난 21대에 사실 소위 활동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발의한 법안들이 소위에 한번도 올라오지 못하고 폐기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22대에는 여기 국회 법에 나온 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회 개최 일시는 매주 수요일·목요일 오전 10시, 일하는 국회법에 의해서 매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소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또 위원회를 월 2회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에서 법안이 좀 더 심도 있게 심의가 되고 그리고 또한 발의된 심의들은 모두가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신 강대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어느 소위원회인들 뭐 중요하지 않은 소위원회가 있겠습니까만 특히나 우리 국방 예산은 어느 상임위원회의 예산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머리를 잘 맞대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국방이나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의사를 서로 존중하면서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추미애 위원님께서 어려운 것 맡아 주셨는데 추미애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미애 위원** 위원장님께서 어려운 일이라고 미리 예언을 하고 계시듯이 군대 내 사망 사고가 이 정권 들어서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의 청원심사 소위가 그동안 열린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가 열릴 가능성도 있어서 이 청원소위에 구성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신발끈 동여매시고 단단히 각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신뢰받는 군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국회의 청원소위가 좀 더 활발하게 또 성과 있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감사합니다.

오늘 훌륭하신 세 분이 소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셔서 위원장으로서도 아주 든든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함께 협의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돋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님들의 인격과 품격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 가지고, 한기호 위원님을 예결산으로 보내 주시고 법안 심사를 국민의힘에서 다른 위원으로 대체해 주는 것이 법안심사소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좀 고려해 주시지요.

○**위원장 성일종** 다 통과가 됐으니까요 위원님, 간사님들 간에 추가 필요하시면 협의를 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규백 위원님께서 예결산으로 가 계시지요?

○**안규백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게 안규백 위원님 5선 동안에 국방위를 한 번도 안 바꾸셨고요 또 정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4선 하실 때 한 번도 안 바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양당을 대표해서 큰 거목이십니다.

배석해 주신 군 관계, 장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이 두 분을 좀 찾으셔서 자문도 받으시고 또 국회의 여러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협조를 받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재보충질의까지 마쳤고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재재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덟 분의 재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연장선상입니다.

임성근 사단장 구명운동을 위해서 이종호 씨 문자로 보면 VIP, 이종호가 얘기하는 VIP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던 정황·증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핵심, VIP 정도만 알 수 있는 내용이 흘러나와서 저는 여기에 대한 신뢰, 대단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장관 교체에 대해서 두 달 전에 알았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사실 그리고 해병대 4성 장군이 앞으로 될 것 같다, 그것은 국정과제에도 있고 이런 걸 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이 7월 30일 날 자진사퇴 의향을 해병대사령관한테 비쳤고 이런 것들은 고위급만 알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이 있던 것이 확인된다면 이것은 완벽한 국정농단 사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 해병 특검법이 다시 발의가 되는데 최초에는 채 해병 특검법에서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것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대통령 특검법으로, 이제는 국정농단 특검법으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 더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장관님, 골프장 군 체력단련장의 저녁의 운영은 안 하지요? 3부는 없지요, 저녁에?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장, 강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김병주 위원** 그런 것 아니라 없지요. 아마 장관님이 골프를 안 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3부는 없어요.

인사복지실장님…… 누구 있나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수삼** 3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주 위원** 마이크로 얘기하세요. 이것 시간 빼 주시고.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수삼** 3부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삼부 내일 체크’라는 단어는 삼부토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5월 14일 날 이것을 얘기했는데 이를 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와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17일 날, 3일 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삼부토건의 주가는 오르기 시작하고 7월 15일 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삼부토건의 주가는 5월에 1000원이었던 것이 7월에 5000원으로 5배나 뛰고 있고 주가 조작에 실제 이종호가 관여했다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혹시 김건희 여사도 관여가 되지 않았나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명백백히 조사로 밝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대식** 장관님 답변……

○국방부장관 신원식 특별히 제가 언급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대식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장관님, 방첩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첩사 1300여 명 다 회복돼 있지요, 총원?

○국방부장관 신원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원 위원 방첩사 인원 1300여 명 다 회복됐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다 회복 안 되고 일부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1100명 됐나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한 100여 명 된 걸로 아는데 정확한 통계는……

○박선원 위원 1100여 명 이상 됐습니다. 거의 다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청 횟수는 많이 늘었지요? 지금 감청 몇 선 하고 계신지 아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선원 위원 보고받으십시오. 대폭 늘었습니다. 제가 숫자를 여기서, 저도 비록 야당 위원이지만 보안사항이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방첩사가, 정보사의 보안이 뚫린 것에 대해서 방첩사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방을 해야 되는데……

○박선원 위원 카운터 인텔리전스(counter intelligence), 방첩해야 되는 거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런데 그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최근 이삼 주 수사 안 하고 탐보상태 고 군검찰단에 넘겼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항명 사건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박민규 수사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수사 중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장관님, 조보근 그리고 박민규로 이어지는 세 분만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장관 직속으로 정보사를, 휴먼 인텔리전스(human intelligence) 파트를 떼내서 직속으로 하려고하신 게 아닌가 여쭙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02-800-7070 번호, 조태용 안보실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화가 왔다. 근데 안 받았다. 대통령 전화 아니다’, 7070이 누구 전화인지 안다는 뜻이지요.

결국 장관님께서 통수권 차원에서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권정의 일부를 초법적으로 도 지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라면 어떻게 됩니까, 통수권 관련해서?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니, 가정을 전제로……

○박선원 위원 아니, 02-800-7070의 전화가 왔는데 대통령이 아니었고 전화가 왔고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그 전화로 간 수신자들의 직위와 신분을 볼 때, 대통령께서 전화는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전화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는 가정 맞아요. 대통령께서 전화 안 하셨는데 장관님께서 ‘이것은 통수권의 행사다’라고 주장하신다면 그건 틀린 거겠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제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일단 그 전화번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가정에 대해서도 제가……

○**박선원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특별히 답변을……

○**박선원 위원** 조보근, 박민규 관련해서요 원천희 본부장께서는 5월 중순에 두 차례 보고받았지요, 문상호 사령관한테? 바깥의 사무실 쓰는 것하고 그리고 항명관계 부분, 두 번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고 한 번은 눌렀고 한 번은 장관께 보고하셨지요?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6월 기억은 7일 날 전화로 보고받고 그다음에 그다음 주 수요일 날 서면으로 보고받고 바로 다음날 장관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선원 위원** 처음에 할 때는 보고 안 하셨지요?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예, 일단 사항을 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직접 서면으로 보고서……

○**박선원 위원** 왜 ‘참아라, 그만둬라’ 하셨나요? 뒤에 조보근 등 장관님이 계시다는 것 알고 계셨지요?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그때는 그 심각성을 그렇게 크게 못 느꼈습니다.

○**박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대식**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사실관계……

○**위원장대리 강대식** 장관님, 하실 말씀 계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사실관계가 오늘 검찰에 방첩사에서 송치한 것은 법적으로 10일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치됐고 군검찰도 10일간입니다. 그리고 연장하면 10일, 20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소될 때까지 이것은 법적인 물리적 시한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박선원 위원** 그것은 구속이 됐을 경우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이것은 블랙요원 유출 관련된 거고 900여단장의 상관 모독 혐의의혹에 관련돼서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하고 있고 김병주 위원님께 아까 날짜를 제공하라고 그래서 그때 보고를 했는데 정확하게 6월 13일 날 정보본부장이 900여단장의 문제점을 저한테 지휘보고를 하고 ‘이것은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승인하고 그날부로 바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였으면 이게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대식 간사, 성일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선원 위원** 방첩사령관이 정보사령부도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박민규도 제대로 수사 안한 것은 777에 다른 분이 오기를 기다리는 순환보직 인맥이 작동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니, 지금 900여단장에 관련된 것은 상관 모독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첩사가 수사할 게 아니고 국방조사본부, 군사경찰에서 조사할 사항이라 법대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군무원이 박민규 장군 예하의 직할에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박선원 위원 당연히 박민규를 조사해야지요, 방첩사령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장관님,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수사 관련 사항 일단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협의자 군무원에 관한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윗선이 어떻게 연결돼 있느냐는 추가 보강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방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KF-21 초도 양산 물량이 원래 계획에 반토막이 나면서 사실 업체라든지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잔여물량은 타당성 재검증 및 총사업비 증액 추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최초 사타에서 20대만 먼저 양산을 하고 그다음에 항전장비 등에 대한 ROC를 구체화하고 성능 검증한 후에 나머지 20대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ROC 구체화나 성능 검증은 끝났고요. 그와 관련된 타당성 재검증이 후반기에 되면 아마 내년도에 곧바로 20대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면 총 40대에 대한 양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유용원 위원 KF-21 관련해서 또 큰 문제가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이 한 1조 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산상으로는 1조 원인데 여러 가지 고려하면 그것보다는 적은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그것 전체를 공군에 부담시키는 것은 또 공군 쪽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지금 기재부하고 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업체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조만간에 그 방안을 결정해서 방추위에 보고하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KDDX를 둘러싸고 양대 회사 간의 갈등, 충돌이 정말 점입가경인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K-방산이 호기를 맞고 있고 그중에 기대가 되는 분야가 합정 분야 아니겠습니까? 캐나다와 폴란드 잠수함 사업이라든지 호주의 호위함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은 국내 업체들이 힘을 합쳐서 도전해도 부족할 상황에 이렇게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어디까지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방사청이라든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맞습니다. 과도한 경쟁은 국가 안보 또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일단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된 방

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과거에 해 왔던 관례대로 할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도덕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의 전력화 시기 그다음에 수출에 대한 기여도, 국가 경제발전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법과 규정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유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장관님,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풍선에 대해서 북한이 포격 할까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그렇게 실렸는데 제가 이야기한 내용과는 좀 상이합니다.

○**부승찬 위원** 됐습니다.

이게 대북전단, 아까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국방부가 마치 할 역할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비행금지선 이북에 대해서는 이게 위임 규정에 따라서 국방부 관할입니다. 위임 규정에 따라서 위임 관리 규정에 따라서 국방부 그리고 국방부장관께서는 합참에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대북 풍선을 북한에서 쓸까 이것을 예의주시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대북전단 자체를 막는 게 중요하지요. 이것은 한미연합 업무 규정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 규정에도 명확히 나와 있어요. 이것을 왜 자꾸 승인만 받겠다고, 승인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합참의장이 얘기하시는 게 이게 직무유기예요. 이런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사청장님, 여기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소요결정, 소요검증, 선행연구의 분절적 단계를 통합소요기획으로 통합하여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전력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여기 누가 이것을 집행합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통합소요기획이요?

○**부승찬 위원** 예.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소요기획은 합참에서 합니다. 그러나 합참이 주도하지만 여러 기관들이……

○**부승찬 위원** 아니, 소요결정, 소요검증, 선행연구까지 다 합참에서 해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아니지요.

○**부승찬 위원** 통합하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저희들이 통합소요기획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제반 절차들을 통합하는 것이고 그것에 관련해서 많은 기관들이 거기 참여를……

○**부승찬 위원** 아니, 물론 이것 단축하는 것 저도 동의해요. 단축해야 될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이 과정을 보면……

봐요. 이게 통합소요 검토 분석을 6월 말까지 받은 국방부가 국방연구원에 분석 의뢰를 해요. 그러면 분석 의뢰하면 9월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월에 합참에서 소요결정을 할 계획인데 이게 두세 달 만에 이 분절된 것을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나 이거예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래서 일단 통합소요기획의 큰 원칙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방연구원이 부정청탁 금지법 감사원 감사를 받았잖아요. 검찰에서 수사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국방대 교수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그렇게 치면 그 국방연구원의 모 박사가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위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도 갔고 장관 보좌관으로도 갔어요.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여기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신청하실 의향은 없는지, 의뢰하실 의향은 없는지……

○**국방부장관 신원식**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제가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알지를 못 해서……

○**부승찬 위원** 아니, 대충 아실 거예요. KIDA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국방대 교수 이재명 캠프에서……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국방부에서 이것도 요청을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하고 계신데요. 대한민국의 정말 큰 석학 한 분이 국방위를 지켜보시다가 두 가지 건의사항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의 중에 제가 질의 내용이 아니고요. 두 가지만 잠깐 장관님하고 ADD 소장님한테 또 방사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통신연구소나 화학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보안수당이라는 것을 드리면서 이러한 좋은 인력들을 수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방과학소장님, ADD에서는 지금 이러한 보안수당이 없지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국방과학연구소장 이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이 수당을 좀 신설을 하면 KAIST라든지 우리나라의 수재들이 지원하는 데 아주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KAIST에서 작년도에 ADD로 한 명밖에 안 갔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사청

하고 협의해 주시고 또 국방부장관님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허 위원님께서 예결위 간사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육해공 이 3군이 있는데 무기체계를 작동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소요제기를 하는데 이게 10년씩 걸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은 공군대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육군은 육군대로 업그레이드를 일단 좀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용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데 언제 그것을 10년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핸드폰 쓰는데 업그레이드를 수시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시스템을 갖추어서 효율적인 무기의 호환성이나 성능을 우리가 더 배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방사청장님 또 3군하고 ADD하고 협력을 해서 다음 국회까지 이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가 있으면 국방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운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무기를 개량하는 게 아니고 운용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장관님, 군인의 당직수당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역 때도 경험을 했었고 사실 2차장하면서 이 부분을 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돈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관철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군무원이 문재인 정부 때 한 4만 6000명까지 늘었지요?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들으시는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 주시면……

○**임종득 위원** 그래서 군무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직 관리 문제도 그렇고 숙소 문제 가 심각합니다. 전방 같은 경우는 공관도 없는데 개인이 밖에서 세 들어 살아야 되는데 집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산의 문제인데, 허영 위원님이 예결위의 간사로 계시니까 잘 협조를 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무원 기밀 누출과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도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 정부를 질타를 했고 여당 위원님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를 평가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뿌리 없는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땜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군의 기강이라든가 보안 문제도 결국은 다 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군무원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첨보에 의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였던 2017년 때부터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수사 중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중간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기무사를 정보지원사로 개칭을 하고 기무사 대공요원을 1300명 방출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이 다 복귀했다고 이렇게 질문하시고 답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한 10%인 100명밖에 복귀 안 했습니다. 이번 사고도 여기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방첩 기능과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방첩 기능이 약화되면 아무래도 예방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안규백입니다.

석종건 청장님, 본인은 KDDX 방위사업이야말로 K-방산의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KDDX가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함정으로 된 나라가 몇 개 있지요, 기술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지금 스파이 아이디 레이더와 비교해서 KDDX 레이더가 성능이 얼마나 되지요, 우리 거와 비교해서?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거의 대등합니다.

○**안규백 위원** 거의 대등하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가발전을 해서 울릉도 주민의 약 10일분의 전기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개략 그런 것으로……

○**안규백 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이 부분이 마지막까지 성공이 되면 정말 자주국방의 달성이겠네요라고 평가해도 되겠네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렇습니다. 국산화율을 한 90% 이상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미국의 이해를,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또 수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주 굉장히합니다.

그러면 이 KDDX 국산화율이 90% 넘는다는 얘기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일단 9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장관, 이건완, 석종건 청장한테 각각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상 제약이 있어 제가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에 2억 5000불 수출 달성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200억불 수출 쾌거를 달성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요새 최근 들어서 국방부가 방위사업청에 있는 R&D 기능을 국방부로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것을 막아야 되지요. 문제가 있다면 가는 것이 맞지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용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게 조직의 수장으로서 넘기시겠습니까?

저는 이 방위사업청이 만약에 국방부에 가게 된다면 국방부가 어떤 측면에서는 업체를 직접 관리하고 딜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R&D를 주면서 업체하고 국방부하고 관련한 그런 측면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개청 이후에 2.5억 불에서 200억 불까지 달성하고 있고 각종 이 모든 K-방산이 날개를 달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예요. 문제가 없잖아요.

저는 이 R&D를 국방부로 빼 가면 껍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이건완 소장님 가셨나요?

제가 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신상범 기품원장님!

○**국방기술품질원장 신상범** 예.

○**안규백 위원** 취임을 축하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국방부 질의에서 리튬 폭발 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어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군에 폭발 건이 접수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다행입니다마는,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품원에서 지금 어떤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방기술품질원장 신상범**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우리 군 전투력의 생명줄 같은 군수품 품질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리튬 관련해서 그 전자가 1990년대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면서 본질적 문제가 있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것도 아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 그 이후에 일부 야전에서 사용자 불만 건도……

○**안규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역시 군수 전문가답게 온지 며칠 안 됐지만 아주 현안파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품원장님, 방위사업청장님 그리고 이건완 소장님……

이건완 소장님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이건완** 예.

○**안규백 위원** 왜 뒤에 앉아 계세요?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 R&D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위에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만 놓아 두고 R&D 기능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하면……

대단히 저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못 드리고 별도로.....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한번 만나서.....

○국방부장관 신원식 안규백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용산의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국회에 와서 군을 아주 대단히 비하를 합니다.

장관님, 우리 군에는 조사본부, 군사법원, 검찰단, 방첩사 이렇게 사법기관이 여러 개 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장관님, 그 수사 능력을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문성이 떨어집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보기에 따라 부족하다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임무 수행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위원 장관님은 믿으셔야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위원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용산 법률비서관 출신의 국회의원이신데 ‘대규모 사건이나 안전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군에서 자주 수사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진상을 규명하기 어려우니까 보다 전문성 있는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 수사단에서 수사한 것을 수사가 아니라고, 조사라고 우겨요.

수사가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게 수사인지 조사인지는 조금 해석 따라 틀린데.....

○추미애 위원 해석이 아니라 수사단이 그 직위와 직책, 권한을 가지고 했으면 그건 수사지 거기 법률비서관이 조사라고 우긴다고 수사가 조사로 바뀝니까? 호박에 줄 친다고 수박이 됩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 문제는 법률적 해석을 제가.....

○추미애 위원 법률적 해석이 아니고, 이것은 군의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군사경찰 1만 7000명 포함한 50만 대군을 대표해서 이런 군을 폄하하고 군을 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단호하셔야지요. 뭘 법률적 해석의 문제라고 그러십니까, 검찰 정권에 쫓아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추미애 위원 검찰 정권에 쫓아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검찰 정권이라는 그 정의에도 동의를 못 하고.....

○**추미애 위원** 그 표현이 문제이시군요? 말꼬리 잡지 마시고 졸지 마세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니……

○**추미애 위원** 별거 아닙니다. 그들이 수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검찰 정권에 졸았다는 표현을 장관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국군장병에 모독입니다, 제가 볼 때.

○**추미애 위원** 지금 국민이 모독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말씀을……

○**추미애 위원** 제대로 법에 따라서 처리한 멀쩡한, 평생을 군에 이바지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항명죄로 기소를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바꿔치기를 해도 분수가 있지.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마이크가 잡겼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가 하면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거예요. 그들을 보좌하는 것은 국무위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이 허수아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아까 법률비서관의 그런 주제넘은 말처럼 지금의 이 정보사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장관께서 질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존경하는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물론 국무위원 중에서 제가 특별하게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군 지휘권을 가진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견이 다른 면이 있고 또는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더라도 ‘허수아비’나 ‘검찰 정권에 졸았다’ 이런 표현은 우리 장병들이 보면……

제가 이 국방위원회 끝나면 돌아가서 장병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게 아니고 장병을 생각하셔서 용어 표현에 좀 더 신중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청을 올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아주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추미애 위원님한테 하신 말씀은 아닐 거고요. 우리 모두가 제복을 입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병사들 또 장병들이 있으니까 장관님께서 주신 말씀은 존경의 의미로 좀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지난번 21대 때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을 낸 것 중에 보훈부와 국방부가 국방위원회로 와서 국방보훈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22대에도 논의해야 되고 마침 박찬대 원내대표님이 우리 국방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저 사진을 보시면, 저 내용이 뭐냐 하면 한상국 전사자의 부인입니다. 김한나 씨인데, 우리가 추서 진급을 합니다. 전사하거나 순직했을 경우 추서 진급을 해서 유족연금을 받을 땐 추서 진급한 연금으로 주자 하는 얘기가 국방위에서 통과가 돼서 21대 때 법사위에까지 갔는데 법사위에서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저분은, 사실은 김한나 씨는 이 시위를 국방부에 가서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런 면에서 보훈부 업무하고 국방부 업무하고 연관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원화되어서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터진다는 거예요.

또 전역자 관리에 있어서도 만기 전역자는 국방부 소관 업무입니다, 예비군 업무하고. 그러나 중기 전역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보훈부 업무입니다. 이 양쪽에서 전역한 사람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역한 병사들은 병무청 업무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역한 자에 대해서 3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통합해야지만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를 대통령님하고도 한번 심각하게 논의해서……

보훈부가 국방부하고 업무 연관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렇습니다. 보훈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이 예비역 군인들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우리 22대에서는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추서 진급됐을 경우 유족연금을 추서 진급으로 받을 수 있게 힘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유족연금이 얼마나 많이 인상되느냐 하면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평균 내보니까. 그래서 많은 액수도 아닌데 유족들에게 좀 더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말씀 잠깐 좀 멘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는 정말 정치력이 있으시고 경험도 풍부하신 추미애 위원님을 비롯해서 안규백 위원님 등 다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또 저희 당에는 한기호 위원님도 계시고요.

제가 정무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부는 국방하고 합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러다가 이게 같은 상임위에 있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추서 계급이 있는데 연금이 유가족을 위해서 생존해 계시던 그 직급으로 나간다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선 위원님들께서 앞장을 좀, 특히 추 위원님께서 앞장서 주시면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정치력을 더 좀 이렇게 한번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

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다른 위원회하고도 한번 이렇게 협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게 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지요.

○**위원장 성일종**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겠어요.

다음으로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제가 아까 30초간 자료제출을 했는데 관련돼서 추가 자료제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제출이 안 와서.

○**위원장 성일종** 예, 그러시지요.

○**허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한 사안들은 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허영 위원** 그런데 자료제출이 안 와서 꼭 해 주시고.

지금 북한이 십여 차례 36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남한 쪽으로 내려보내서 오물풍선의 정확한 낙하율이 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0여 풍선의 낙하지점, 내용물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나 국회 등 주요 시설에 낙하한 곳,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 상임위까지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요청을 좀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허 위원님 잠깐만, 혹시 그게 기밀이 포함될 수 있으니 대면 설명, 자료제출보다는 판단해서 필요하면 대면 설명이든 아니면 자료제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제가 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오물풍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폭 장치도 설치가 돼 있고 타이머도 설치가 돼 있고.

저는 오물풍선에 GPS가 설치된다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정말 무기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3600여 개의 오물풍선의 낙하율 대비해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군의 대응 지침이나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대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장관님, 아까 자료제출과 연계해서 지난 6월 초에 레이저 대공무기 오물풍선에 대한 실험을 한 게 맞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때 시연했을 때는 무인기였습니다.

○**허영 위원** 오물풍선에 대한 실험을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여러 언론이나 판단한 바로는 이게 오물풍선 손상도가 심하니까 비슷한 재질인 라텍스 풍선까지도 다 구비를 해 가지고 서해상으로 띄워서 실험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풍선을 맞히니까 풍선이, 이게 풍선 아닙니까? 투과하거나 반사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격추를 하지를 못했어요.

다만 이제 그 밑에 달린 그 내용물은 직접적으로 레이저를 쏘면, 이 레이저가 대상 물체가

충분히 레이저를 받아야지만 폭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있겠다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험은 분명히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어리석다 그리고 비전문가의 정말 안보 불안 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이면적으로는 이렇게 다 비공개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격추 실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서울 상공에서 격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그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지대에서 이러한 무기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주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사실을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리고 지난 7월 31일, 얼마 안 됐습니다.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장관님께서는, 우리 당 김용민 의원께서 임성근 사단장이 북한이 미사일 도발할 때 체력 단련을 골프장에서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파악이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확인했습니다.

○**허영 위원** 친 사실이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친 사실이 맞고 부적절한 행위였습니다.

○**허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 6월 합참에서는 육군 1사단장에 대해서 오물풍선 내려올 때 음주했다고 해 가지고 보직 해임했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오물풍선 내려올 때 음주했다고 해 가지고 본인 해직을 당했습니다. 골프장에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제가 조금 설명, 시간이 다 됐군요. 제가 설명, 추가적인 답변을……

○**허영 위원** 제 발언 다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군 1사단장은 그날 오물풍선이 예상이 돼서 대비태세 강화 지시가 있었고 오물풍선이 실제 날아오는데 회식을 계속 진행해서 보직 해임이 됐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 보니까 그때 그 기간의 앞뒤로 해서 UFS니 뭐니 이렇게 골프 금지 기간이 하달이 돼 있었는데 그때는 그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이제 날아왔는데 들어오는 것은 어떤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기보다 스스로 판단해야 될 어떤 윤리적인 사항인데 그걸 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떤 장군을 처벌을 하려고 그러면 명확한 법과 규정의 위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고위 장성으로서 골프를 치다가 미사일 도발이 있으면 복귀를 해서 지휘 위치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어떤 마음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게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우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군공항 이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다가 지금 SPC 구성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도 개정 발의를 해 놨고 또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 도심에 있는 군부대 이전 문제하고 이걸 연관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있지만 이 부분이 또 기재부의 어떤 동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관건이 있기 마련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기재부와의 어떤 그 문제를 중간 역할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면 좋겠다.

무슨 소리냐, 한 가지 방안은 군공항 이전 문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선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 업체들이 지금 선투자에 대한 문제, 리스크 문제 때문에 잘 덤벼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SPC가 지금 자꾸 자연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물론 특별법 내용에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조항, 어떤 그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하고 도심 내에 있는 군부대 이전 문제하고 연관을 시킨다면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많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는 어떤 액수로 군공항 이전 문제하고 연계시킬 수는 없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고 적극 좀 나서서 한번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무리한 부탁입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닙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오랜 여망과 숙원사업이라는 걸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고 우리 군 작전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최대한 전향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강 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 당국의 나름대로 규정과 입장도 있고 또 조율해야 될 입장이 있는데, 국방부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국회에서 기재위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좀 공감을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전향적인 입장을 같이 견지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정무적인 판단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생각, 사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강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재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김병주 간사님께서 전투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재재재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주 간사님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박 위원님 있으시고, 부승찬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1분씩 하시고. 또…… 세 분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3분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장관님, 이전 방사청장도 해당되는 건데 인도네시아하고 KF-21 분담금이

원래 1조 6000억, 1.6조였는데 1조를 못 내겠다 해서 6000억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방추위 통과 됐나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아닙니다. 방추위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병주 위원 언제 방추위 진행되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아마 이번 8월 달에 올릴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나름 제가 봤을 때 방사청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1조 원을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부족한 거지요.

○김병주 위원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칭 영업사원 1호라고 하시는 윤 대통령께서는 1조 손해를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지요, 어떻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일단 저희들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인도네시아가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또한……

○김병주 위원 대통령께서 직접 확인했어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님, 대통령은 이거 어떤 노력을 했어요, 1조나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영업사원 1호면 1조 손해 보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어떤 노력을 했나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

○김병주 위원 왜 답변이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김병주 위원 아니,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했냐고요. 1조면 엄청난 돈의 액수인데 이렇게 손해, 분담금을 못 내고 하면 결국은 이 분담금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영업사원 1호라고 지칭하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여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방추위 통과되고 이런데 뭔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말로만 영업사원 1호면 뭐 합니까?

지금 이 사항은 군에서는 저는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봐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면 장관께서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로 날아가서 해결을 하든가 그런 노력이라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노력이 없이 이렇게 1조 원이, 이거 결국은 혈세에서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영업사원 1호라 하지 말고 이런 문제에 나서는 것이 민생이고 국익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또 방위사업청장님, 지금 대통령께서 1호 영업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문제가 여러, 정부 측에서는 노력을 하셨을 거로 알고 있고 저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답하실 수가, 곤란한 경우에 지금 직면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김병주 위원님한테 따로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존경하는 장관님,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우리 국방위가 여야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방위력 개선, 병영문화 개선, 군 운영 발전 또 즉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 완비 이런 점에서 여야 위원의 입장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또 하나 문제가 늘었습니다. 제 지역 부평을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공수대원들이 살고 계시는데요. 그분들 보면 정말 전투력도 충만해 있고 군인정신도 살아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생활이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월급 받아도 다 빼고 하면 180에서 220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이 이번 올해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좀, 물론 재정 당국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갈수록 병역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사병들을 위해서요. 부사관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결산소위 위원으로서 또 존경하는 허영 위원과 우리 국방위 위원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할 테니까 특전사를 비롯한 부사관의 복지, 급여 개선을 위해서는 별도로 한번 장관님께서 기조실장을 저에게 보내 주시든지 해서 함께 노력을 하시기로 그렇게 하시지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장병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장병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SM-3 도입 결정됐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유는 뭔가요? 도입 배경, 도입 왜 하는 겁니까? SM-3 도입 왜 하는 거냐고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여러 가지 고도화되고 있는 위협에 저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의 요격이 필요하다고 군에서 판단을 했고 이와 관련돼서 소요가 결정됐고……

○부승찬 위원 중간 단계라 하면 어디입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상승, 저희가 지금 현재 대부분 갖고 있는 것은 종말 단계인데 중간 단계는 상승 단계 이후에 종말 단계 전까지, 그 중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중간, 이게 SM-3가 개발될 때를 보면 기본적으로 부스팅 이후의 단계.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그렇지요.

○부승찬 위원 GVI 이전 단계에서 쓰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실제적으로 한반도 전국에 위협이 되는 것들은 이 고도에 다다르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입을 미뤄왔던 거고.

그러면 아니,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중장거리용에 대한 요격이잖아요, 미국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부승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이 갖고 있는 중장…… IRBM이나 ICBM 같은 경우가 해당될 텐데 무기체계 만들 때 IRBM이나 ICBM을 단거리용으로 쓰려고 만들어요? 가성비가 떨어지지요. 이 사업비를 8000억 원 이상 들여서 40개를 사서 얼마나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돼요? 차라리 저는 종말 단계가 더 낫다고 보여져요, 2~3분 안에 한반도 전역에 다 들어오는데. 이거 SM-3와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설명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현재까지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겁니다. 저를 이해시키면, 저도 대한민국의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 국방위 다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허투루 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KF-21 인도네시아 1조 6000억 원 중에 6000억, 1조 원은 어떡할 거냐고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 SM-3는 도저히 봐도.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알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위원장이 질의를 할 때는 자리를 바꿔서 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강대식 간사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사회를 봐 주시고 제가 짧게……

○**한기호 위원** 그냥 하세요.

○**위원장 성일종** 아닙니다. 그래도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은 다 하는데. 국방위원장 높으신 분이 왜 그러세요.

○**위원장 성일종** 거기는 그렇더라도 저야 국방위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나쁜 전례를 만드는 거예요.

(성일종 위원장, 강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대식** 마지막으로 성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강대식 위원석에서)

장관님, 긴 시간 동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핵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방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핵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북한이 핵잠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나 또 그러한 정후를 갖고 있다라고는 판단하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의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능력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북한은 아주 고순도의 우라늄 농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잠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국방 측면에서 이에 대한 대비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고민 지금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우선 우리의 지정학적인 환경, 우리 국방 수요 그다음에 예산 대효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심층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 이 부분은 우선 핵에 대한 물질에 대한 확보, 그렇지요? 농축한 원자, 이 원료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 또 기술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자금은 우리가 댈 수 있는 충분한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핵잠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여러 각도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지금 유용원 위원님을 비롯해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많은 세미나도 열고 있고 또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책임 있게 원료에 대한 문제, 설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검토하실 거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하여튼 필요성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적인 요소를 검토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방사청장님, KDDX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2개 회사가 다 대한민국 회사고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념설계할 때부터 여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개념설계가 끝났고 그 개념설계한 것을 경쟁사가 이것을 탈취해 갖고 조사가 들어갔고 그 와중에 또 기본설계가 들어갔고 그리고 상세설계의 단계까지 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맞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그런 와중에서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우리 방사청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어디에도 억울함 없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알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도 늘 보고를 해서, 국회에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께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또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게 아닙니다. 전 정부에서부터 죽 내려왔었던 일들입니다. 그 와중에서 이게 실수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18년도 4월인가에 압수수색이 들어가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 압수수색 와중에 방사청은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 9월 달에 이게 설계를 낸 게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아까 신형 발사대 250대를 북한이 지금 전진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직 실전 배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우선 감시가 1번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시와 그리고 우리가 이에 대한 대응하는 무기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무기체계도 당연히 지금 있는 시스템에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감시자산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의 감시자산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우리의 감시는 사실은 한미연합 감시자산에 처하기 때문에 감시는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지만 현재로도 큰 문제는 없고 대응에 관련돼서는 킬체인과 KAMD를 결합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북한이 계속 능력을 발전시키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계속 대책을 내놓고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국민들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있는 부분을 국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님을 비롯해서 ADD 소장님까지 이 체계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더 주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사청장님, 아까 KF-21 인도네시아 문제 이것 잘 알고 계시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것은 전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현 정부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입니다. 또 외교와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인도네시아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 부분도 잘 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할 때 보니까 1조 아래로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협상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금액 같은 경우도 딱 정리하기보다는 협상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금액을 아까 낮추시던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대식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식 간사, 성일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재재재보충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정부 측에서 장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고 또 제가 회의를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국회는 위원님들 중심으로 회의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뒤에 계신 실무자나 또 여러 분들께서 섭섭해하실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음 상할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내려놓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답변을 꼭 했어야 되는데 이 답변만큼은 내가 못 해서 아쉽다 그러시면 지금 기회를 좀 드릴까 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질의를 할 사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진

행되고 있다든지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한 두어 문 꼭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유재은 법무관리관께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던 게 있으셨거든요. 유재은 법무관리관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아까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위원장 성일종 짧게 해 주십시오.

○국방부법무관리관 유재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수사에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쳐야 되고 제가 이제까지 했던 말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드리기 위해서 했던 말씀인데 그것들이 위원님 보시기에 불편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또 다른 분, 방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아까 KF-21 분담금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추위에 올리는 것은 체계개발이 후년에 끝나기 때문에 당장 예산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방안을 강구해서 올린다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은 저희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외교부나 기재부 여러 부서가 긴밀히 지금 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국익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잘 가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대통령께서 가시는 그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인도네시아하고 아주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 일일이 말씀을 못 주시겠지만 김병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필요하면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제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추미애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아까 8월 2일 날 제가 결재하면서 국방부장관님 지시를……

○위원장 성일종 사령관님, 위원님들 질의를 반박하거나 그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그것 아닙니다.

○위원장 성일종 안 계시기 때문에 단지 팩트나 이런 것들에 오해가 있으면 국민들한테 알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는 처음부터 해병대사령관 지시를 어긴 것으로 이렇게 갔지, 국방부장관님 지시를 나중에 해병대사령관 지시로 고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명죄는 처음부터 해병대사령관 지시를 어긴 것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해명하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1분만 주십시오. 이건 제가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1분 잠깐 드리시지요.

○**김병주 위원** 지금 8월 2일 날 저녁에 군검찰단장이 방문했잖아요. 와서 실질적으로 이첩에 관계된 항명 분야 이런 분야를 제가 봤을 때는 해병대 사령관한테 검찰단장이 회유를 한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과 한 팀이었는데 해병대 사령관을 처음에는 항명죄로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커지니까 밑에 책임을 인가해서 장관 지시가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을 어긴 것으로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유추가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무슨 그런 구차한 변명을 하세요. 8월 2일 그날 회유당한 것 맞잖아요.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위원님**.

○**김병주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 성일종** 이 부분은 또 격론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김병주 위원님 발언을 끝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무진 쪽에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건완 소장님!

○**김병주 위원** 여기서 끝내시지요.

위원장님, 더 이상 하면 위원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이런 기회밖에 더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저는 또 위원을 대표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고 정부 측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신원식** 우선 존경하옵는 성일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22대 첫 국방위인데 바쁘신 가운데도 업무보고 받아 주시고 군에 대한 애정 어린 귀한 말씀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군을 배려하시고 또 품격 있게 저희들 지도편달해주신 것 잊지 않고 저희가 기대에 부응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조금 위원님께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병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가장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가장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합니다. 해병대가 얼마나 우리 국군을 대표하는 부대인가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최근 2년간 김계환 사령관이 부임하고 난 뒤에 정말 김포라든지 NLL, 서북도서에 단 1건의 적의 도발도 허용하지 않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인 해병대 1사단의 전투력도 엄청 나게 강화가 됐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 김계환 사령관의 훌륭한 리더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 부임하고 어제부로 딱 10개월 됐는데 그동안 김계환 사령관하고 채 상병에 관련된 문제 한 번도 제가 대화를 해 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런 힘듦을 보태지 않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색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을 하건대 위원님들 질문들이 사실은 저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1년 동안 거의 비슷한 질문을 계속 김계환 사령관에 관련돼서 합니다. 이제는 김계환 사령관은 어차피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김계환 사령관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위에서만이라도 김계환 사령관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존중해 주시고 김계환 사령관이 임기 다할 때까지 해병대를 지금처럼 훌륭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국방위원님들만이라도 좀 애정을 가지고 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정중하게 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허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일종 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허영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말씀하시지요.

○허영 위원 장관님의 부하를 존중하고 부하의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피의자로서 수사 대상자로서 선상에 있는 부하 사령관에 대해서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식의 이런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어차피 수사와 재판이 있기 때문에……

○허영 위원 칭찬을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허영 위원 칭찬을 좀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신원식 박정훈 대령은……

○허영 위원 똑같은 부하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신원식 제가 장관이 되고 난 뒤에……

○위원장 성일종 허 위원님.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분이 어떤 업무를 수행한 것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한 김계환 사령관을 칭찬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허영 위원 김계환 사령관님, 그러면 박정훈 대령 칭찬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

○위원장 성일종 아니……

○김병주 위원 잠깐 10초만 주세요, 10초만.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김계환 사령관만 힘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더 힘들어요. 국민들이 더 힘들고 유가족이 더 힘들어요.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성일종 많은 위원님들께서……

○김병주 위원 박정훈 대령은 더 힘들고……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이제……

○강대식 위원 고함 좀 지르지 맙시다.

○김병주 위원 마이크를 안 켜 주니까 고함을, 크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대식 위원 그냥 이야기해도 다 들립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마이크 10초만 켜 주세요, 내가 조용히 얘기할 테니까.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국민들이 지금 해병대 이 사건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국민들은 안 보입니까, 국방부장관은? 유가족은 안 보이고요? 김계환 사령관만 보입니까, 박정훈 대령은 안 보이고?

○강대식 위원 그만합시다. 마침시다.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이제 끝날 때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국방부장관이 국민이 보여야지!

○위원장 성일종 아니, 김병주……

○김병주 위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그만하시지요.

○김병주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켜 주면 제가 조용히 얘기한다는데 왜 안 켜 주세요.

○강대식 위원 마이크 켠 거하고 안 켠 거하고 뭐가 달라요?

○김병주 위원 마이크 안 켜 주니까 목소리가 커야 여기 다 들릴 거 아니야, 국민도 들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성일종 끝날 시간입니다. 끝나는데 목소리……

○김병주 위원 끝나니까 지금…… 왜 끝날 때 이런 분위기를 만듭니까?

○위원장 성일종 목소리 높여서 이런 소리를 국민들께서 들으시면 스트레스 받으십니다, 더운 날씨에. 이제 그만하시지요.

○김병주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1년 내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1년 내내 화가 나오! 왜 장관은 국민은 안 보입니까?

○강대식 위원 좀 끝냅시다!

○위원장 성일종 그만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김병주 위원님,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조절되지 않은 그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김병주 위원 왜 조절이 안 돼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만합시다, 간사님.

○위원장 성일종 그만하시지요, 간사님.

○국방부장관 신원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도 그만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신원식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방부 등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의견들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성일종 위원, 김민석 위원, 강선영 위원, 부승찬 위원, 강대식 위원, 유용원 위원, 이상여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이 됐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님, 김종철 병무청장님,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 및 관계 기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률안심사(7인)	◎김병주 김민석 부승찬 허 영	더불어민주당(4)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	국민의힘(3)
예산결산심사(8인)	박범계 박선원 안규백 추미애 황희	더불어민주당(5)
	◎강대식 강선영 유용원	국민의힘(3)
청원심사(5인)	◎추미애 김병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3)
	강선영	국민의힘(1)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조 국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회임

○출석 위원(16인)

강대식 강선영 김민석 김병주 박범계 박선원 박찬대 부승찬 성일종 안규백
유용원 임종득 조 국 추미애 한기호 허 영

○첨가 위원(1인)

황 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 신원식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인사복지실장 김수삼
기획관리관 김경욱
법무관리관 유재은
국방혁신기획관 주광섭
정책기획관 윤봉희
국제정책관 이승범
방위정책관 곽태신
인사기획관 오영대
군수관리관 이갑수
전력정책국장 원종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원천희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명수

육군본부

참모총장 박안수

해군본부

참모총장 양용모

공군본부

참모총장 이영수

해병대사령부

사령관 김계환

병무청

청장 김종철

차장 최규석

기획조정관 김용무

병역자원국장 임재하

입영동원국장 문경식

사회복무국장 정홍식

방위사업청

청장 석종건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조현기

미래전력사업본부장 한경호

기획조정관 홍미루

국제협력관 정기영

방위사업정책국장 박정은

방위산업진흥국장 김일동

함정사업부장 신현승

첨단기술사업단장 김태곤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노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이건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신상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손재홍

【보고사항】

○ 위원 선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병주 김민석 박범계 박선원 박찬대 부승찬 안규백 추미애 허영 황희	더불어민주당	2024. 6. 10.
강대식 강선영 성일종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	국민의힘	2024. 6. 26.
조국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024. 6. 10.

○ 간사 선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2024. 8. 1.
강대식	국민의힘	2024. 8. 1.

○의안 회부

2023회계연도 결산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5.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8)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2024. 6. 14.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0)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17.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4)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2024. 6. 19.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9.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9. 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5.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1)

이상 25건 6월 27일 회부됨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4. 6. 2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0)

7월 1일 회부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9)

7월 2일 회부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7)

7월 3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8)

7월 4일 회부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6)

이상 3건 7월 9일 회부됨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0)

이상 3건 7월 11일 회부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5)

이상 3건 7월 15일 회부됨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이상 3건 7월 18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0)

7월 19일 회부됨

국방안전기본법안

(2024. 7. 22.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8)

이상 2건 7월 23일 회부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3)

7월 24일 회부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4)

이상 2건 7월 25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5.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5.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1)

이상 2건 7월 26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8)

이상 2건 7월 29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8)

8월 2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1)

8월 5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5. 30.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9)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5. 30.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5. 31.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5)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2024. 5. 31.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024. 6. 5.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5)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6. 5.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7)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2024. 6. 10.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4)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6. 11.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8)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12.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4.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4.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2)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6. 18.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3)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20.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0)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2024. 6. 20.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0)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2024. 6. 20. 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024. 6. 20.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2)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25.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6)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25.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4)

이상 20건 6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1.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

이상 2건 7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10.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1)

7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7. 11.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2)

7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024. 7. 15.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7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23.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7)

7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5.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6)

7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청원 회부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24. 6. 14. 은승찬 외 51,75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7)

6월 30일 회부됨

○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국방부령	제1152호	병역법 시행규칙	병무청	2024. 6. 20.
대통령령	제34624호	병역법 시행령	병무청	2024. 7. 2.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4625호	군인징계령	국방부	2024. 7. 2.
국방부령	제1153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	2024. 7. 2.
대통령령	제3467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2024. 7. 7.
대통령령	제3467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국방부	2024. 7. 8.
대통령령	제34676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	2024. 7. 9.
국방부령	제1154호	병역법 시행규칙	병무청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6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국방부	2024. 7. 15.
대통령령	제34678호	군인복제령	국방부	2024. 7. 15.
대통령령	제34706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2024. 7. 17.
대통령령	제34705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부	2024. 7. 23.
국방부령	제1156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	2024. 7. 23.
국방부령	제1157호	방위산업 계약사무처리규칙	국방부	2024. 7. 23.
대통령령	제34762호	군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63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89호	전략사령부령	국방부	2024. 8. 6.
대통령령	제34790호	국방시설본부령	국방부	2024. 8. 6.
국방부령	제1160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2024. 8. 7.

○보고서 제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2024. 6. 27.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제출)

2024년도 2분기 이용·전용·이체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2024. 7. 16. 병무청장 제출)

2024년도 2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및 50억 이상 세부사업간 조정명세서

(2024. 7. 18. 방위사업청장 제출)

2024년도 2/4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내역

(2024. 7. 31. 국방부장관 제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 관련 보고서

(2024. 8. 5. 국방부장관 제출)